



회복의 기초

교사 교재

종교 225

코너스톤 과정

회복의 기초 교사 교재

종교 225

표지 그림: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월터 레인.

오류를 포함하여, 의견이 있거나 정정할 사항을 발견하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eminaries and Institutes of Religion Curriculum Services
50 E. North Temple St., Floor 8
Salt Lake City, Utah 84150-0008
USA

Email: ces-manuals@ldschurch.org

여러분의 성명, 주소, 워드 및 스테이크 명칭을 기재해 주십시오.

교재 제목을 반드시 기입하신 후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 2015,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Version 3, 5/16

영어 승인: 8/14

번역 승인: 8/14

*Foundations of the Restoration Teacher Manual*의 번역

Korean

12556 320

목차

회복의 기초 교사 교재(종교 225) 소개	v
1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	1
2 첫번째 시현	6
3 물문경의 출현	11
4 물문경—우리 종교의 종석	16
5 신권의 회복	21
6 교회의 조직	25
7 영원한 복음을 선포함	29
8 후기 이스라엘의 집합	34
9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름	39
10 진리를 추구함	44
11 교리와 성약에 담긴 주님의 음성	50
12 우리 시대의 추가 경전들	54
13 “시현”	59
14 커틀랜드 성전과 신권 열쇠들	64
15 역경을 견디는 힘	69
16 죽은 자의 구속	74
17 나부에서 복음을 가르침	79
18 상호부조회와 교회	84
19 영원한 결혼과 가족에 관한 교리	89
20 복수결혼	94
21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101
22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	106
23 회장단의 승계	111
24 나부를 떠나 서부로의 대이동	117
25 유타 전쟁과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	125
26 신권에 관한 계시	132
27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킴	137
28 구원 사업을 서두름	141
Handouts	147

회복의 기초 교사 교재(종교 225) 소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가르칠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의 목적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의 목적은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자신과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사 및 지도자 지침서[2012년], x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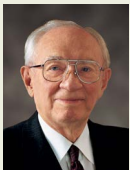
여러분은 부지런히 복음대로 생활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며, 반과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성신의 영향력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42:14 참조)

여러분은 학생들이 영을 통해 배움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더 깊이 개종할 수 있도록 도울 기회를 받았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교리와 원리들을 찾고 이해하며, 그것의 참됨과 중요성을 느끼고 적용하도록 도움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지침서는 가르치는 과정을 이해하고 교실에서 성공을 거두는 방법을 배우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지침서를 자주 참고한다.

이 과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회복의 기초(종교 225) 과정은 학생들에게 표준 경전,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 관련된 근본적인 계시, 교리, 역사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을 공부할 기회를 준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교회 교리와 역사의 정확한 이해에 필요한 교리적 기초와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진리를 찾고,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며,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상황을 경전과 교회 교리, 교회 역사와 관련 짓는 방식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회복의 실재성에 관해 이렇게 간증했다.



“이 교회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후기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휘장이 걷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관련된 간증, 권세 및 교리를 부여해 주신 놀라운 일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위대하고도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엄숙함과 절대적인 진지함을 갖고 간증합니다.”(“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1쪽)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회복된 복음에 관한 간증을 강화해 가면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려는 결심을 굳건하게 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더욱더 훌륭히 준비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학생들이 종교 교육원 졸업을 위한 학점을 취득하려면 각 과의 학생 읽기 과제에 제시된 성구, 연차 대회 말씀, 그 밖의 기타 자료들을 읽어야 한다. 또한 출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교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는 것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 교재의 각 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과목은 한 학기 과정으로, 50분 분량의 수업을 할 수 있는 28개 과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이 일주일에 두 번 있는 경우에 하루에 한 과씩 가르친다. 90분에서 100분짜리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경우라면 하루에 두 과를 가르친다. 각 과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개
- 읽기 자료
- 교수 제언
- 학생 읽기 과제

소개

해당 과의 주제와 목적을 간략히 소개하는 부분이다.

읽기 자료

해당 과의 개요에서 다루는 교리와 원리, 복음 진리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후기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같은 추천 자료들을 보여 준다.

교수 제언

교수 제언 영역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또한 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지침서의 4.3.3과 4.3.4 참조)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안된 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거룩한 진리들을 찾아보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들이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교수 방식과 학생들의 필요성 및 상황에 맞게 제안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자료를 재구성할 때에는 십이사도 정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다음 권고를 따른다.



“먼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조정하라고 자주 가르치셨던 패커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르치도록 미리 정해진 공과에 철저히 기반을 둔다면, 그다음에 우리는 영의 인도에 따라 자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융통성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자료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조정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과제인 균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먼저 받아들이고 후에 조정하는 접근 방식이 건전한 기반에 머무는 좋은 방법입니다.” (“A Panel Discussion with Elder Dallin H. Oaks” [Seminaries and Institutes of Religion satellite broadcast, Aug. 7, 2012], lds.org/broadcasts)

이 과정에는 다양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이 실려 있다. 가르칠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은 주제와 관련된 교회 지도자들의 다른 말씀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

교수 제언 영역에는 최소한 한 가지 교리 또는 원리를 표현한 문장이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이 교리와 원리들을 발견하고 배운 것을 나눌 때, 이 교재에 언급된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그들의 대답이 틀렸다는 암시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면, 다시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신중하게 돕는다.

이 교과 과정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를 주제별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예시한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 10쪽, 23~31쪽, 38~41쪽 참조) 몇 달 후에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에서는 “종교 교육원에서 경전을 가르치고 배우”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판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를 주제별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주제별로 복음을 공부하며 얻는 몇 가지 유익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 권의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의 폭을 넓혀 주고, 주제에 따라 공부하는 것으로 지식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상관 관계와 모형 및 주제를 상고하며 계시를 탐구하는 일은 ... 우리의 영적인 지식의 바탕 위에 더하여 구원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이해를 넓혀 줍니다.

제 판단으로는 상관 관계와 모형 및 주제를 찾기 위해 열심히 경전을 상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과 뜻이 통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은 영적인 보고의 문을 열고,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넓히며, 거룩한 경전에 대한 깊은 감사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영적인 결심을 낳습니다. 이렇게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구속주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고 이 후기의 휘몰아치는 악의 바람에 맞설 수 있습니다.” (“A Reservoir of Living Water”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Feb. 4, 2007], 3, speeches.byu.edu)

이 교재의 일부 자료는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세미나리 교재*의 자료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학생 읽기 과제

이 영역에는 학생들이 각 과에서 강조하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구와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및 다른 자료들이 실려 있다.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이 자료들을 배정해 주고 읽어 오라고 권고한다. 이 영감받은 자료들을 학습하면, 반 토론에 더 잘 참여할 준비가 될 뿐 아니라 과정의 주제들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학기 초에 학생 읽기 과제 전체 목록을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어떻게 가르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르칠 준비를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준비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성신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했는가?
- 배정된 성구와 읽기 자료를 학습했는가?
- 교재 내용을 읽어 보았으며, 그 내용 중에 학생들의 필요 사항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조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 결정했는가?

- 학생들이 학생 읽기 과제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 내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 각 학생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다음 제안이 도움이 될 것이다.

- 학생들에게 매 수업 전에 부탁받은 성구와 기사를 읽어 오도록 권장한다.
- 학생들에게 학습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요청한다.
- 학생들에게 자신의 말로 교리와 원리들을 설명하고, 관련 경험을 나누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알고 느끼는 바를 간증할 기회를 자주 준다.
- 수업마다, 또한 그날그날 다양한 학습 활동과 방식을 사용한다.
- 학생들이 주님의 영을 느끼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특권을 누리며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 만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교리와 성약 88:78, 122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학생들이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스스로 참여할 때 비로소 성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 학생들이 진리를 말로 표현할 때, 그들은 영혼에 확신을 얻으며 개인적인 간증이 강해집니다.”(“To Understand and Live Truth” [evening with Elder Richard G. Scott, Feb. 4, 2005], 3; si.lds.org)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공과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가르칠 준비를 할 때,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활동과 기대치를 조정한다.

더 많은 방법과 자료는 disabilities.lds.org의 장애 관련 자료 페이지 및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정책 지침서(Seminaries and Institutes of Religion policy manual)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 및 프로그램을 조정함 편에서 찾아본다.

제1과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

소개

유사 이래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울 신성한 권세를 부여받은 선지자들을 부르심으로써 배도 기간을 끝내셨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 경륜의 시대에 이 역할을 맡은

선지자였다.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에 관해서 더 잘 가르칠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읽기 자료

- 엠 러셀 벨라드, “성경의 기적”,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0~82쪽.
- 고든 비 힝클리, “모든 시대의 정점에서”,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7~90쪽.
- 닐 에이 맥스웰, “태초부터”,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18~20쪽.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31~36쪽.

교수 제언

아모스 8:11~12; 조셉 스미스—역사 1:5~10

대배도와 회복의 필요성

수업 전에 다음을 칠판에 쓴다.

기갈=

한 학생에게 아모스 8장 11~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기근이라는 단어가 어떤 상징으로 쓰였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 아모스는 어떤 종류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칠판에 적은 “기근=” 옆에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을 쓴다.)
- 아모스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존재해 왔다는 어떤 증거를 보았는가? (아모스 8:11)

역사를 통틀어 아모스 8장 11~12절의 예언이 여러 차례 성취되어 왔지만, 이 예언의 중요한 성취로 알려진 것 중 하나가 바로 대배도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전 아모스 8장 11~12절 옆 여백에 ‘배도(대배도도 포함)’라고 적게 해도 좋다.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대배도가 일어나게 된 몇 가지 요인을 찾아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악한 사람들이 사도와 교회 회원들을 박해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도들의 죽음과 더불어 신권 열쇠와 신권 권세가 이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교리들을 순수하게 지키고 교회 회원들을 위해 질서와

합당성의 표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없이 세월이 지나면서 교리는 타락했으며, 교회 조직과 침례 및 성신의 은사의 부여와 같은 신권 의식에도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시와 신권의 권세 없이 사람들은 경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해석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에 의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짓 개념들이 진리처럼 가르쳐졌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및 성신의 참된 성품과 본질에 관한 많은 지식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및 성신의 은사에 관한 교리들은 왜곡되거나 잊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받았던 신권 권세는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35쪽)

- 이 말씀에 따르면 대배도가 일어나게 된 몇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
- 대배도가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대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복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배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모로나이서 7:16)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의 참됨을 증거하는 성신의 권능(경전 안내서, “성신”, scriptures.lds.org)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셨다. 하나님은 그 시기 동안에도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다양한 문화 속의 남성과 여성에게 영감을 주셨다. 마틴 루터와 윌리엄 틴들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자신들이 찾은 이상을 기독교인들이 더 실천하며 살도록 도우려 애썼다. 개혁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유럽과 북미 정치가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의 자유가 더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여전히 온전하게 회복하지 않으셨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45~46쪽 참조)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수세기 동안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훌륭한 남녀들이, 그 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만,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 체제와 가르침을 수정하고, 강화하고,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들의 용감한 행동으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는 그들의 업적이 영감받은 것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더불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는 아니었습니다.”(“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0쪽)

학생들에게 1820년, 어린 소년 조셉 스미스는 참된 교회를 찾고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5~10절을 조용히 읽어 보면서 대배도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묘사하는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 조셉 스미스가 자신이 겪었던 영적인 시련들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했던 몇 가지 문구는 무엇인가?
- 조셉 스미스는 종교적인 동요에 둘러싸인 자신의 기분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가 진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첫번째 시련을 경험했고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 내용은 다음 과에서 토론할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부름과 복음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반복하면서 확립하신 방식에

따른 것이었음을 짚어 준다. 예컨대 에녹의 부름(모세서 6:26~32)과 노아의 부름(모세서 8:17~20)도 이 방식을 따른 것이었다. 이 방식을 설명하는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배도의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도가 퍼진 각 시기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은 또다른 선지자를 불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권의 권세를 새로이 주심으로써 그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선지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책임을 맡은 선지자가 인도하는 시기를 ‘경륜의 시대’라 부릅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33쪽; 또한 경전 안내서, “경륜의 시대” 참조)

- 조셉 스미스를 통한 복음의 회복은 어떤 면에서 이전 경륜의 시대에서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인가?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전반적인 배도가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가르칠 권세를 부여하셨다.** 학생들은 또한 이 교리를 이해해야 한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 이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신앙을 지닌 누군가에게 복음의 회복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첫번째 시현에서, 조셉 스미스는 지상에는 참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성경에 대배도에 관한 예언이 실려 있지만, 이 배도가 일어났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며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니파이후서 27:25~26; 교리와 성약 1:12~30

복음의 회복은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후기에 지상에 복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주님의 설명 일부가 경전에 실려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회복의 시기에 세상의 영적 상태에 관해 주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니파이후서 27장 25~26절에 실린 회복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조용히 읽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들과 어구들에 표시하게 해도 좋다. (주: 학생들이 자신이 경전에서 배운 내용을 파악하고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한 가지는 중요한 단어들과 어구에 표시하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 복음의 회복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회복에 관해 여러분이 “기이하[다]” 혹은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교리와 성약에서 되풀이되는 주제 중 한 가지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인 복음의 회복임을 짚어 준다.) “주제란 ... 지배적이고 반복적이며 통일된 성질이나 생각을 말합니다.”[David A. Bednar, “A Reservoir of Living Water”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Feb. 4, 2007), 6, speeches.byu.edu]

반원 절반에게 교리와 성약 1편 12~17절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신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교리와 성약 1편

18~30절을 공부하면서, 복음의 회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주: 교리와 성약 1편 30절은 제6과에서 더 상세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다음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한다. **복음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신앙을 키우며 후기의 재앙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예감과 즐거운 예감으로 고취되어 우리가 사는 이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86쪽)

- 과거의 선지자들은 왜 우리 시대를 고대했는가? (학생들이 찾아낼 만한 한 가지는 다음과 같다. **회복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 줄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몇몇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인류사의 위대한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을 인식합니까? 지금은 지나간 모든 시대의 초점입니다. ...

전능하신 이 후기의 사업, 곧 옛 선인들이 말씀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씀한 이 사업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지상에 오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현재의 우리보다 더 훌륭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하고, 더 용서하고, 더 도와주며, 더 사려 깊게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중대하고 엄숙한 역사 의식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시대는 최후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며 과거의 모든 시대는 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실재와 참됨에 대해 간증드립니다.”(“모든 시대의 정점에서”, 리야호나, 2000년 1월호, 89~90쪽)

- “우리는 모든 시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느낌을 일으키는가?
-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킨 경험 한 가지를 나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피하도록 한다.
-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 읽기 과제

- 이사야 29:13~14; 아모스 8:11~12; 니파이후서 27:1~5, 25~26; 교리와 성약 1:12~30; 조셉 스미스—역사 1:5~10.

- 고든 비 힝클리, “모든 시대의 정점에서”,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7~90쪽.

제2과

첫번째 시현

소개

값진 진주에 실린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기사는 교회에 관한 그릇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평생토록 첫번째 시현에 관한 몇 가지 기록을 제공했다. 이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그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회복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 과는 학생들이 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읽기 자료

- 고든 비 헝클리, “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8~81쪽.
- “첫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lds.org/topics](https://www.lds.org/topics).

교수 제언

조셉 스미스—역사 1:1~2

선지자는 그릇된 소문을 바로잡으려고 첫번째 시현에 관하여 썼다

조셉 스미스는 1838년부터 자신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값진 진주에서 조셉 스미스—역사로 알려진 부분은 훨씬 더 긴 역사 기록에서 발췌된 것이다.

한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며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역사 기록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말한 내용을 찾아보게 한다.

- 1절에 따르면, 우리 교회 초창기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소문을 후원한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과 유사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관한 잘못된되고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며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 조셉이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 관련된 사실을 일어난 그대로 알리기 위해”[조셉 스미스—역사 1:1])
- 회복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조셉 스미스가 직접 적은 기록을 읽어 보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인들이 잘못된되고 왜곡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엘 앤더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학생들에게 눈으로 읽으라고 한다.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교회에 관한 일부 정보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든 간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신앙의 시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1쪽)

- 첫번째 시현과 복음의 회복, 그리고 교회 역사의 다른 사건들에 관한 진리를 알기 위해 개인적으로 탐구할 때, 우리는 어떤 자료를 추구하고 신뢰해야 하는가? 왜 그런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포함하여, 자신이 듣거나 읽은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한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가 시현이 있고 나서 수년이 흐른 후에야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첫번째 시현의 실재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고 말해 준다. 만 14세였던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본 시현을 처음으로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본 이후로 그것에 관해 말하기를 주저했다고 설명해 준다.(조셉 스미스—역사 1:21~26 참조) 그는 자신이 적절한 시기라고 느낀 때에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였다. 구주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들이 변형의 산에서 경험한 일을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마태복음 17:9 참조), 어떤 성스러운 경험은 영의 속삭임이 있을 때에만 나뉘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셨다.

첫번째 시현 기록

주: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이 과의 마지막 내용인 조셉 스미스—역사 1:8~20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시간을 남겨 둔다.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가 개인적으로 또는 서기의 도움을 받아 첫번째 시현에 관한 서로 다른 기록을 최소한 네 가지를 남겼다고 설명한다. 이에 더하여 조셉 스미스의 동시대 사람들이 이 시현에 관하여 몇 가지 기록을 남겼다. 각 기록은 조셉의 경험에 관한 다른 면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조셉 스미스가 보고 들었던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여러 가지 기록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라고 한다.

- 삶에서 겪은, 중요하거나 의미심장한 경험을 생각해 본다. 그 경험은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 경험을 언제 또는 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한 학생에게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경험이 여러 번 다시 전해질 때 역사가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들어 보라고 한다.

“첫번째 시현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은 물론 주안점과 세부 사항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한결같다. 역사가들은 한 사람이 수년간 여러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경험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이야기할 때마다 그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고유한 세부 사항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바울의 시현과 변형의 산에서 있었던 사도들의 경험에 관한 여러 경전 기록들에서도 첫번째 시현 기록들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차이점이 나타난다.[사도행전 9:3~9; 22:6~21; 26:12~18; 마태복음 17:1~13; 마가복음 9:2~13; 누가복음 9:28~36]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시현에

관한 모든 기록 전반에는 기본적인 일관성이 있다.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조작의 증거라고 그릇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풍성한 역사적 기록들은 잘 기록되지 못했더라면 알지 못했을 이런 놀라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준다.”(“첫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lds.org/topics)

그 기록들 사이의 차이점의 한 가지 예로서 학생들에게 “1832년 기록이 용서를 구하는 소년 조셉 스미스의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에 치중했다면, 1838년 기록은 ‘교회의 일어남과 발전’의 출발선에 있었던 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첫번째 시현 기록”, lds.org/topics)고 말해 줄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배정받은 읽기 과제에는 첫번째 시현에 관한 각기 다른 기록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복음 주제 관련글, “첫번째 시현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수업 이외 시간에 그 글을 공부함으로써 각 기록이 첫번째 시현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이바지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해 보라고 권유한다. (주: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학생 읽기 과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반 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첫번째 시현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어떻게 이 성스러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넓히고 그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은 이 성스러운 경험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 준다. 기록이 빈약했다면 우리의 이해의 폭도 더 좁았을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저는 신약전서에 네 사람의 복음 저자가 있어 각자 자신의 관념을 갖고 당시에 자기가 기록하는 목적에 일치하도록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에 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도의 빛, 1985년 2/3월호, 23쪽)

첫번째 시현의 실재성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나눈다.

조셉 스미스—역사 1:8~20

교회의 타당성은 첫번째 시현의 참됨에 달려 있다

몇몇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8~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행한 몇 가지는 무엇인가?
- 사탄이 왜 조셉 스미스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고 생각하는가?

몇몇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6~1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 16~17절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영원한 진리들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으로 봉사했던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소리 내어 읽어 준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 학생들에게 콜리스터 형제가 강조한 진리들을

자신의 경전에 표시하라고 해도 좋다. 또한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16~19 옆의 여백에 **조셉이 배운 진리들**이라고 적으라고 해도 좋다. (주: 경전에 표시하고 주해를 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전 공부 요령이다.[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사 및 지도자 지침서(2012), 21쪽 참조]



“조셉 스미스는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신성한 숲에서 나왔을 때 조셉은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네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 독립된 존재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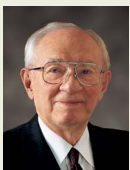
조셉 스미스가 발견한 두 번째 위대한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살과 뼈로 된 영화로운 육신이 있다는 점입니다. ...

조셉 스미스가 배운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

조셉 스미스가 배운 네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완전한 교회가 당시에는 지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조셉 스미스—회복의 선지자”,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35~36쪽)

-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진리들을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그러한 진리의 필요성은 사탄이 어린 조셉 스미스가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 애썼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든 비 항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우리의 모든 힘은 [첫번째 시현]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사기입니다.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늘 아래 가장 기이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

... 1820년에 자신의 가족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야고보의 말씀을 읽은 한 소년의 기도의 응답으로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그 독특하고 놀라운 경험 위에 이 교회의 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0쪽)

- 어떻게 이 교회의 진실성이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과 연결되어 있는가?
-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 간증을 지니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학생들이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지만, 다음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에 대해 간증을 얻을 때, 우리는 또한 회복된 복음의 참됨을 알게 된다.**)

이 과를 마무리 하면서 첫번째 시현의 진실성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지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개인적인 간증은 우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교회에 대한 그릇된 정보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도 신앙 안에서 굳건히 머무는 데 도움이 된다. 조셉 스미스가 진리를 배운 방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간증한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여쭙 수 있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다.(야고보서 1:5 참조) 학생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간증을 어떻게 얻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한두 명의 학생에게 자신이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된 경험을 발표할 시간을 준다.

학생 읽기 과제

- 조셉 스미스—역사 1:1~26.
- 고든 비 헝클리, “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8~81쪽.

제3과

몰몬경의 출현

소개

주님께서 천사 모로나이를 보내셔서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받아 번역하도록 준비시키셨다. 실제 번역 과정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몰몬경 소개,

1830년 판) 번역되었다고 말했다. 증인의 율법(고린도후서 13:1 참조)에 따라 주님께서는 여러 명에게 이 고대 기록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전 세계에 전하는 몰몬경에 대한 신뢰성이 그들의 증언으로 강화되었다.

읽기 자료

- Neal A. Maxwell, “By the Gift and Power of God,” *Ensign*, Jan. 1997, 36–41.
- “몰몬경 번역”, 복음 주제, lds.org/topics.
- “몰몬경의 출현과 신권의 회복”,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제5장, 제2판(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년), 52~66쪽.

교수 제언

조셉 스미스—역사 1:30~35, 42~54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다

한두 명의 자원자에게 1823년 9월 21일 밤에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천사 모로나이가 방문한 것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로 반원들에게 요약해 달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다음 정보를 나눈다.

“1823년 9월 21일 저녁, 조셉은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는 가족의 통나무 집에서 자신의 다락방 침실로 갔지만, 그는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잠든 후에도 깨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가지신 목적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드렸다. ...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조셉은 방안에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으며 그 빛은 점점 밝아져 방은 ‘한낮보다도 더 밝아’졌다. ‘지극히 흰’ 성의를 입은 하늘의 사자가 그의 침대 곁에 나타나 공중에 서 있었다. (조셉 스미스—역사 1:30~31) 이 사자는 니파이 백성의 마지막 선지자 모로나이로 여러 세기 전에 몰몬경이 기록되어 있는 판을 묻었으며 지금은 이 성스러운 기록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교리와 성약 27:5 참조) 그는 조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에게 시키실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 일 중 한 가지는 조셉이 금판에 새긴 성스러운 기록이 묻힌 근처의 언덕으로 가는 일이었다. ... 조셉은 이 기록을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게 될 것이었다.

다음날, 조셉은 몰몬경 판이 묻혀 있는 언덕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모로나이를 만났고 판도 보았지만, 4년 동안 그 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

1827년 9월 22일, [조셉의 아내 에머]는 그와 함께 언덕으로 가서 모로나이가 선지자의 손에 판을 맡기는 동안 근처에서 기다렸다.”(*교회 회장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7~59쪽)

학생들에게 몰몬경 표제지를 펴고 첫 번째 문단을 훑어보면서, 이 고대 기록이 어떻게 출현하고 번역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읽고 나면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몰몬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다.**)

한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34~3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도록 도우셨던 한 가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한다.

- 이 구절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가 고대 기록을 번역할 때 주님께서 도우셨던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었나? (주님께서 번역을 위해 우림과 둠뮌을 주셨다.)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면서 사용했던 또다른 도구는 그가 금판을 받기 수년 전에 발견한 작은 타원형의 돌로서 “선견자의 돌”로 불리었다고 설명한다. (“몰몬경 번역”, 복음 주제, lds.org/topics) 역사 기록은 선지자가 번역을 하면서 때로는 우림과 둠뮌을, 때로는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다는 것을 밝혀 준다.

다음 말씀을 학생들에게 소리 내어 읽어 줌으로써 주님께서 우림과 둠뮌, 그리고 선견자의 돌을 통해 선지자에게 몰몬경의 영어 번역문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번역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받은 조셉은 거듭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루어졌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한번은 이렇게 덧붙였다. ‘몰몬경의 출현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세상에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들을 비롯해 번역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일부 기록에서는 조셉이 그 판의 문자들을 연구했음이 드러난다. 대부분 기록에서 조셉이 우림과 둠뮌(해석기나 선견자의 돌 중 한 가지)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그가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다고 언급하는 기록도 많다. 이런 기록들에 따르면, 조셉은 해석기 또는 선견자의 돌을 모자 안에 넣고 외부의 빛을 차단하기 위해 모자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서 그 도구에 나타나는 영어로 된 말을 소리내어 읽었다고 한다. 이렇게 묘사된 과정을 살펴보면 몰몬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앨마서 37:23~24]를 예비했다고 하신 구절이 연상된다.” (“몰몬경 번역”, 복음 주제, lds.org/topics)

조셉 스미스가 단기간에 몰몬경을 번역했다는 사실도 그가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설명해 준다.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며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조셉이 단기간에 몰몬경을 번역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828년 4월부터 6월까지 조셉은 마틴 해리스가 나중에 분실한 116쪽을 번역했습니다. 조셉은 올리버 카우드리를 서기로 두고 1829년 4월 7일 화요일에 다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85일이 지난 그 해 6월 30일에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시간을 번역에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어림잡아 예상하더라도 선지자와 그의 서기가 최신판에 담긴 531쪽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번역하는 데 걸린 시간은 65일, 또는 그보다 적을 것입니다. (John W. Welch, *Ensign*, Jan. 1988, pp. 46–47 참조) 계산해 보면 하루에 평균 8쪽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한 권 번역하거나, 개인적으로 몰몬경 읽기를 계획할 때 이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A Treasured Testament,” *Ensign*, July 1993, 61–62)

-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몰몬경이 출현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방식은 무엇인가?

- 우리가 물문경의 출현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이 책이 참됨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물문경 번역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책에 관한 영적인 증거를 받을 수 있다.)
-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모로나이가 판을 가지고 왔으며 그것은 물문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유례없는 놀라운 일입니까. 금판에 관한 조셉의 이야기는 환상적입니다. 그것은 믿기 어렵고 이의를 제기하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읽을 수 있도록 여기 있습니다. 조셉이 말한 것 외에는 이것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짧은 시간에 번역을 하였으며 그것은 500페이지가 넘는 출판물이 되었습니다. ...

여러 해 동안 비평가들은 물문경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물문경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물문경은 그들 모두보다 오래 보존되었으며, 오늘날 물문경의 영향력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산에서 뜨인 돌”,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84~85쪽)

- 물문경의 참됨을 믿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는가?

물문경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출간되었다고 간증한다.

교리와 성약 17편

세 증인과 여덟 증인의 증언

조셉 스미스는 물문경을 번역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 고대 기록을 증언할 사람들을 지정하실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해 준다.(니파이후서 27:12~13; 이터서 5:2~5 참조) 그 당시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와 마틴 해리스는 각각 이 특별한 증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다. 교리와 성약 17편에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담겨 있다.

몇몇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7편 1~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 증인들에게 그 판을 본 이후 무엇을 행하라고 명하셨는지 찾으라고 한다. 학생들이 찾은 것을 들어 본 후에, 이렇게 질문한다.

- 이 사람들이 판을 보아도 좋다는 주님의 허락을 받기 전에 먼저 옛 선지자들처럼 신앙을 보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3~5절에 따르면, 그 판을 본 후 이 증인들이 지니게 될 책임은 무엇이었는가?
-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문경의 참됨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지니게 되는 책임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증거를 받은 후에 그것을 간증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교리와 성약 88:81 참조]) 또한 이 원리가 우리가 경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의 한 가지 예라는 점을 짚어 줄 수 있다. “패턴이란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거나 만드는 데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획이나 모형, 또는 표준입니다.”[David A. Bednar, “A Reservoir of Living Water”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Feb. 4, 2007), 5, speeches.byu.edu]

- 진리를 간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한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가 세 증인과 함께 한 경험을 기록한 내용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마틴 해리스, 데이비드 휘트머, 올리버 카우드리와 나는 숲 속에 들어가 판을 보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검손하고 열의에 찬 기도로 간구해 보자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 두 번째 기도에도 실패하자 마틴 해리스는 우리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실패하여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자기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 후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 우리 앞에 천사 [모로나이]가 서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판을 손에 든 천사가 그가 판들을 한 장씩 넘길 때 우리는 금판과 그 위에 새겨진 글자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 이어 우리는 머리 위의 밝은 빛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본 번역은 정확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할지이다.’

나는 이때 데이비드와 올리버를 두고 마틴 해리스를 찾아보았는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도 열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함께 기도하여 자기도 우리가 방금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마침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까와 같은 시현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두 번째였으므로 나는 다시 한 번 같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마틴 해리스는 벅찬 기쁨을 참지 못해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1:54~55)

조셉은 휘트머의 집으로 돌아와 자기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저 말고도 세 사람이 더 그 판을 보게 하셨어요. 그들은 한 천사를 보았고, 이제 그들은 제가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이 진실됨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기분이며, ... 이제 제가 더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제 영혼은 기쁨을 느낍니다.”(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8, page 11, josephsmithpapers.org/paperSummarylucy-mack-smith-history-1844-1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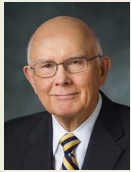
- 조셉 스미스가 이 경험을 한 후에 왜 기뻐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판과 하늘 사자를 증거하는 증인이 이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덟 증인이 또한 그 판을 볼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해 준다.

반원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에게는 몰몬경 소개 편에 나오는 “세 증인의 증언”을 읽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여덟 증인의 증언”을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증인들의 경험에서 중요한 요소를 찾게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 세 증인의 경험과 여덟 증인의 경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세 증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천사를 보았지만 그 판을 만지지는 않았다. 여덟 증인은 조셉 스미스가 보여 주는 판을 보았으며 손으로 만져 볼 수 있었다. 세 증인이 좀 더 영적인 경험을 한 반면, 여덟 증인은 판의 실재성을 좀 더 물질적인 경험을 통해 목격했다.)
- 몰몬경이 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증인을 두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다고 생각하는가?

몇몇 학생들은 세 증인 모두와 여덟 증인 중의 일부가 결국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가능한 모든 반대에 비춰 볼 때, 몰몬경의 세 증인의 증언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관련된 불화와 시기심으로 인해 이 세 증인들은 각기 그들의 증언이 공포된 지 8년쯤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파문되었습니다. ... 그러나 생을 마칠 때까지 어떠한 증인도 출판된 증언에서 벗어난 다른 말을 하거나 그 진실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증언은 다른 증인보다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으나,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이 세 사람이 심하게 조롱을 받고 다른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증언을 지켜 나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몰몬경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한 정직한 사람들의 엄숙한 선언 그 자체보다 더 훌륭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목격자: 마틴 해리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2쪽)

- 세 증인이 교회에서 파문된 이후에도 그들의 증언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그들의 증언을 강화한다고 생각하는가?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틴 해리스는 나중에 재침례 받았다고 설명해 준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7편 6절을 다시 언급해 주면서 이 절이 몰몬경의 참됨에 관해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증언을 담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며, 몰몬경이 참됨을 증언하신 내용이 실려 있다.

학생들에게 몰몬경에 대한 자신의 증언이 몰몬경에 실리게 된다면 어떻게 상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증언 또는 간증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 발표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수업 전까지 누군가에게 몰몬경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 보라고 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17편; 조셉 스미스—역사 1:29~54.
- Neal A. Maxwell, “By the Gift and Power of God,” *Ensign*, Jan. 1997, 36–41.

제4과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소개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셨다는 증거이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몰몬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이고,

간증의 종석입니다.”(“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쪽)라고 가르쳤다. 몰몬경에 대한 학생들의 간증이 깊어질 때, 그들은 그 진실성을 반박하려는 사람들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화될 것이다.

읽기 자료

- 에즈라 테프트 벤슨,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4~7쪽.
- 제프리 알 홀런드, “영혼의 안전”,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8~90쪽.
- “몰몬경과 DNA 연구”, 복음 주제, lds.org/topics.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17:6; 19:26; 20:5~12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셨다는 증거이다

수업 전에 다음 날짜와 사건들을 칠판에 적어 둔다.

1820년 첫번째 시현을 받음

1823년 모로나이의 방문이 시작됨

1829년 신권이 회복됨

1829년 6월 몰몬경 번역이 완료됨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조직됨

-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우리는 복음의 회복에서 몰몬경이 맡은 역할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몰몬경은 교회가 완성되기 전에 완성되어야만 했다. 그것은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30년 4월에 교회가 조직되기 직전에 몰몬경의 인쇄가 끝났으며 판매 광고를 한 지는 2주도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20편 8~1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몰몬경이 담고 있는 것과 증거하는 바를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에 표시하라고 해도 좋다. (주: 이 과정 내내 학생들에게 그들이 찾은 중요한 진리를 자신의 경전에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읽는 동안, 다음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

몰몬경은 세상에 _____을 증거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칠판에 적힌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몰몬경은 경전이 참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부름을 주시며,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한다.**)
-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부름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하여 어떤 지식을 얻는가?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7편 6절과 19편 26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두 구절의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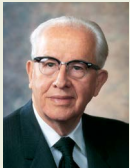
-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몰몬경은 참되다는 주님의 선언이 담겨 있다.)
- 주님께서 몰몬경의 참됨을 간증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다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다.**

- 이 문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몰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 되는 데에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이고, 간증의 종석입니다.”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5쪽)



반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마다 다음 주제 중 한 가지를 정해 주고 토론하도록 한다. 몰몬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 교리의 종석이 되는가”, 어떻게 “간증의 종석이 되는가” (각 주제를 하나 이상의 그룹에게 정해 줄 수도 있다.) 각 그룹에 다음 유인물을 나눠 주고, 맡은 주제에 관련된 유인물의 말씀을 참고해서 토론하라고 한다.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



“몰몬경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되는 종석입니다. 그것은 ... 주님의 실재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 구주에 대한 그 간증은 분명하며, 오염되지 않고,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오늘날 기독교 세계의 많은 곳에서 구주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비로운 탄생과 그분의 완전한 생과 영화로운 부활의 실재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그러한 모든 진리에 대하여 명백하고 틀림없는 말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또한 속죄의 교리를 가장 완전하게 해설해 줍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쪽)

“우리 교리의 종석”



“몰몬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충만한 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 구원과 승영의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는 많은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는, 다른 경전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많은 것이 것처럼 간결하고 진귀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쪽)

“간증의 종석”



“몰몬경은 간증에 대한 종석입니다. 종석을 떼어 내면, 아치가 무너지듯이, 교회의 모든 것은 몰몬경의 진실성과 더불어 서게 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 몰몬경이 참되다면 ... 인간은 회복과 그에 수반되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쪽)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그룹별로 토론한 내용을 반원 전체와 나눠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몰몬경에 대한 느낌과 그것이 어떻게 자기 간증의 종석이 되어 왔는지를 나눠 달라고 하면서 공과의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

몰몬경의 그릇됨을 증명하려 애쓰는 적대자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180여 년] 동안 이 책만큼 조사받고, 공격당하고, 거부당하고, 분석되고, 표적이 되고, 비난받은 책은 아마도 현대 종교 역사에서, 아마도 그 어떤 종교 역사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종종 이 책의 기원에 관한 실패한 이론들이, 즉 에단 스미스, 솔로몬 스팔딩, 정신이 이상한 편집증 환자와 교활한 천재들이 만들어 낸 주장들이 뜻도 모른 채 뒤집어되고 사라지곤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이들의 한심한 답변 중에 그 어떤 것도 시험을 견뎌 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번역자인 젊고 배우지 못한 조셉이 준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증조 할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어떤 사악한 사람도 이 같은 책을 쓸 수 없으며, 그 어떤 선한 사람도 그것이 참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이 같은 책을 쓰지 못한다.’”(“영혼의 안전”,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9쪽)

- 교회의 적대자들이 현재에도 빈번히 몰몬경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애쓰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홀런드 장로의 증조할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몰몬경의 참됨을 뒷받침하는가?

한 가지 예로서, 몰몬경 백성들과 아메리칸 인디언들 사이에 아무 연관성도 없음을 믿게 하려 DNA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적대자들이 몰몬경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애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다. 학생들이 이 주제에 관하여 질문이 있다면 [lds.org/topics](https://www.lds.org/topics)의 ‘복음 주제’에 실린 글 중에 “몰몬경과 DNA 연구”를 읽어 보라고 한다.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든다

학생들에게 한 친구가 몰몬경의 참됨을 반박하는 어떤 내용을 들었다고 말하는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 보라고 한다.

- 그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주겠는가?
- 몰몬경의 참됨에 대해 여러분이 얻은 간증은 몰몬경에 대한 비판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 의심, 고난의 시기가 오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그 신앙이 비록 작고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 몰몬경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에 부딪힐 때 홀런드 장로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다음 원리를 강조해서 언급한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의문 또는 의심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이미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하며 더 깊이 연구하여 답을 찾을 수 있거나 장차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계시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 몰몬경과 그것이 담고 있는 원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지식에 이르게 되었는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며 공과를 마무리한다.



“모든 후기 성도는 일생을 통해 몰몬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위태롭게 되며 영적, 지적인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몰몬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쇠막대를 굳게 잡고 있는 개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큼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벗, 1988년 5월호, 7쪽)

- 몰몬경을 정기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아 왔는가?

몰몬경의 참됨에 관하여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몰몬경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몰몬경 연구를 더 높은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모로나이서 10장 3~5절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약속, 즉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고 싶으면 몰몬경을 연구하고 그 책의 참됨에 관하여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을 상기시킨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17:6; 19:26; 20:5~12.
- 제프리 알 홀런드, “영혼의 안전”,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8~90쪽.

제5과

신권의 회복

소개

1829년 5월 15일에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아론 신권을 회복했다. 곧이어 고대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했다.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세를 지니게 되며, 모든 영적인 일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과에서 학생들은 멜기세덱 신권의 인도 아래 어떻게 교회가 기능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읽기 자료

-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성스러운 은사”,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57~60쪽.
- 델린 에이치 옥스,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9~52쪽.
- Larry C. Porter, “The Restoration of the Aaronic and Melchizedek Priesthoods,” *Ensign*, Dec. 1996, 30~47.

교수 제언

조셉 스미스—역사 1:68~71; 교리와 성약 13:1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회복했다

침례 사진(침례를 받는 청남[복음그림책(2009), 103번 참조; 또한 LDS.org 참조])과 성찬 집행하는 사진(성찬 축복[복음그림책, 107번; 또한 LDS.org 참조])을 보여 준다. 학생들에게 이 성스러운 의식들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삶이 어떠했을지 묘사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 의식들은 아론 신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축복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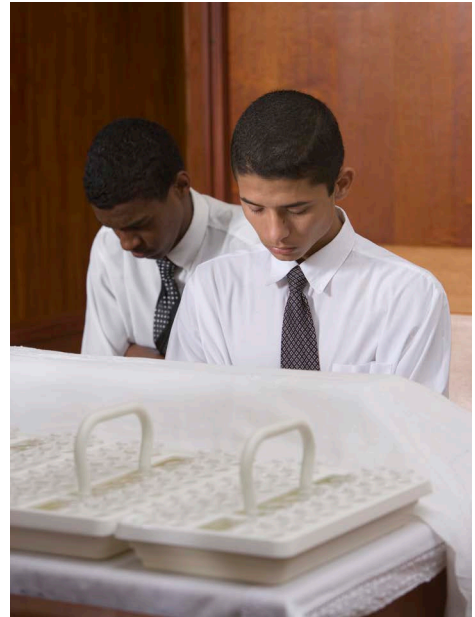
한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6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며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무엇을 하다가 침례에 관해 주님께 여쭙어 보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6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사자로 온 침례 요한이 전한 말은 교리와 성약 13편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짚어 준다. 반원들에게 질문한다.

-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하늘의 사자로부터 신권을 받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당시 지상에는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신앙개조 1:5 참조])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70~71절을 읽으라고 한다. 이 구절은 선지자 조셉이 이 경륜의 시대에 첫 번째로 신권을 행사했음을 분명히 밝혀 준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람들은 왜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례를 주지 않고 그 둘이 서로에게 침례를 베풀게 했는지 궁금해한다.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적절한 권세를 지닌 하늘 사자가 지상에 신권 권세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권세가 회복된 후에는, 지상에서 행해지는 침례와 성임과 같은 모든 의식들은 필멸의 존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게다가 침례 요한은 조셉과 올리버가 서로에게 다시 신권을 부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성임과 침례의 올바른 관계 [또는 올바른 질서]”가 정립되었다.(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1954~1956], 3권 80쪽)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

아론 신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을 받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아론 신권이 ‘천사의 성역의 열쇠’와 ‘회개와 침례 그리고 죄 사함의 복음’에 관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는 침례 의식과 성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며, 성찬은 침례 성약과 축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회개가 먼저 있는 다음에 가능합니다. ...

[우리 가운데] 침례 받은 후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침례 후에도 좀 더 깨끗해지기 위한 규정이 없다면, 우리 각자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됩니다. ...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와 성약을 준수하며 성찬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침례 성약을 새로이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

이 점에 있어서 아론 신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 사함에 관한 이 모든 중요한 절차는 침례의 구원 의식과 새로이 하는 성찬 의식을 통해 실행됩니다.”(“아론 신권과 성찬”,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7~38쪽)

몇몇 학생에게 칠판에 적힌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말해 달라고 한다. **아론 신권의 의식을 통해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많은 축복이 가능해졌다고 간증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72; 교리와 성약 84:19~22; 107:8, 18~19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하다

한 학생이 조셉 스미스—역사 1장 72절을 소리 내어 읽는 동안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 문구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이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이 일은 1829년 5월에 사스케하나 강 근처 어딘가에서 이루어졌다.(Larry C. Porter, “The Restoration of the Aaronic and Melchizedek Priesthoods,” *Ensign*, Dec. 1996, 30–47 참조) 교회를 조직한 이후에 선지자는 신권의 목적 및 교리에 관한 다른 계시들을 받았다. 신권은 교리와 성약 전반에서 다루는 보편적인 주제이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84편 19절과 107편 8, 18~19절을 조용히 공부하면서, 이 구절들이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이 구절들을 상호 참조해 보라고 할 수도 있다. (주: 상호 참조는 공부하고 있는 구절에 관해 더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경전 공부 기법이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멜기세덱 신권에 관해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대답을 들으면서 다음 문구를 칠판에 쓴다.

복음을 베풀

왕국의 비밀의 열쇠를 지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님

교회의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님

계시를 받는 열쇠를 지님

천군과 교통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함께 거하는 열쇠를 지님

다음 진리를 강조하며 칠판에 대답을 요약할 수도 있다. **멜기세덱 신권은 교회의 모든 의식과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닌다.** 학생들이 칠판에 적힌 문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질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토론한다.

- 멜기세덱 신권이 “복음을 베풀”는 몇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84:19) (대답에는 특정 의식을 집행하고, 교회를 감리하거나 인도한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멜기세덱 신권이 “왕국의 비밀의 열쇠를 지님”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84:19)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영적 진리”[경전 안내서, “하나님의 비밀”, scriptures.lds.org]라고 설명해 주어도 좋다. 다른 비밀들 가운데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바는 조셉 스미스에게 곧 계시될 성전 의식들과 그것이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에 의해 집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합당한 교회 회원들은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에 참여하고 관련 성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일부를 배울 수 있다.)

- 멜기세덱 신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교리와 성약 84:19) (우리는 멜기세덱 신권에 의해 집행되는 의식들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문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어 주어도 좋다.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신권이 없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멜기세덱 신권 ... 을 통하여 모든 지식, 교리, 구원의 계획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들이 하늘로부터 계시’된다고 말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08쪽]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2쪽)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84편 20~22절을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회의 모든 회원이 멜기세덱 신권을 통해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들을 한다.

- 오직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로 집행되는 의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확인, 멜기세덱 신권 부여, 성전 의식, 유아 축복, 병자 축복, 축복사의 축복, 사람을 부름에 성별하는 것)
- 하나님처럼 되는 권능을 의미하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신권 의식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멜기세덱 신권 의식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가?
- 신권 의식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어 왔는가?
- 또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신권에 대한 감사와 간증이 더욱 커졌는가?

신권 축복에 관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나눌 것을 고려해 본다. 학생들에게 신권 지도자에게서 오는 지시를 더 잘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 읽기 과제

- 조셉 스미스—역사 1:68~72; 교리와 성약 13:1; 84:18~22; 107:1~19.
-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성스러운 은사”,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57~60쪽.

제6과

교회의 조직

소개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1830년 4월 6일에 교회를 조직하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20편 머리말; 교리와 성약 20편 1절 참조) 이 계시는 또한 구주의 성역과 가르침에 관해 회원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교리와 성약 1편 30절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회복된 교회가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라고 밝히시면서, 이 교회가 후기와 우리 삶에서 맡은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읽기 자료

- 헨리 비 아이어링,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20~24쪽.
-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년) 제6장, 67~68쪽.
- 보이드 케이 팩커, “유일한 참된 교회”, *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89~92쪽.
- Jeffrey G. Cannon, “‘Build Up My Church’: D&C 18, 20, 21, 22,” *Revelations in Context* series, Jan. 3, 2013, history.lds.org.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20:1~3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

학생들에게 신약 시대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관하여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서 공과를 시작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우리는 사도들의 사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믿는가?
-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이 필요함을 설명해 주는가?

한 학생에게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었는지 귀 기울여 보라고 한다.

“1830년 4월 6일, 물문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지 11일 후에, 60여 명이 뉴욕 주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통나무 집에 모였다. 그곳에서 조셉 스미스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조직했으며, 후에 계시 받은 대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었다.(교리와 성약 115:4 참조) 영이 가득 임한 기쁜 모임이었다. 성찬이 집행되었고, 믿는 자들은 침례를 받았으며, 성신의 은사가 부여되었고, 남자들은 신권에 성임되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주님은 계시를 통해 조셉 스미스를 교회의 지도자,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장로’(교리와 성약 21:1)로 지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상에 다시 한 번 세워진 것이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8쪽)

학생들에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신약 시대 교회의 특징과 유사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한다.

교리와 성약을 읽을 때 각 편의 머리말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준다. 이렇게 하여 계시들에 관한 역사적 맥락을 정립할 수 있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20편 머리말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2013년판 교리와 성약에는 2005년 한글판 교리와 성약의 각 편 머리말에 없는 일부 역사적 정보가 추가되었음을 짚어 줄 수도 있다.) 다른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20편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며, 복음의 회복과 관련된 통찰을 찾아보라고 한다. 질문한다.

- 이 성구들은 복음의 회복에 관해 어떤 진리들을 가르치는가? (학생들이 찾아내야 하는 진리 중 하나는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라는 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다.



“조셉 스미스와 동료들은 뉴욕 주 페이엠티라는 조용한 마을에 있던 피터 휘트머 농장의 초라한 통나무 집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

처음 시작한 여섯 명이 이제는 ... 거대한 신앙의 가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지구촌 160개국에 산재할 만큼 교회는 발전했습니다. ... 눈부신 발전이 아닙니까?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눈부신 일이 아닙니까? 미국에 토대를 둔 어떤 교회도 그렇게 빨리, 그렇게 널리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 전혀 없는 현상입니다.”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4쪽)

-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후기에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은 무엇인가?
- 우리 개개인은 우리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20:17~37, 68~69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와 침례받은 회원의 의무

교리와 성약 20편은 초기 성도들에게 교회의 신조와 성약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해 준다. 이 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와 회원들의 의무에 관한 주님의 많은 지시 사항이 담겨 있다. 이 계시는 교회 초기의 몇몇 대회에서 낭독되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1830년에 교회에 새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리고 애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반원 절반에게 교리와 성약 20편 17~28절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29~36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하면서 회복된 주님 교회의 모든 회원이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를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내용을 경전에 표시하게 해도 좋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학생들에게 찾은 진리들을 나눠 달라고 하고, 왜 그 진리가 자신에게 중요한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교리와 원리를 명확히 밝히셨다.**

반원 절반에게 교리와 성약 20편 37절을 읽으며,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20편 68~69절을 읽으며, 우리가 침례받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 이 구절들에 있는 지시 사항은 교회 회원들이 따라야 하는 분명한 원칙이 되었다고 짚어 준다.

반원들과 함께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침례받으려는 사람은 그 전에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는가?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찾아내야 한다. **침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자 하고, 끝까지 그분을 섬기려는 결심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주님께서는 우리가 침례받은 후에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 **침례 후에 우리는 경건한 행실과 말로써 주님께 우리의 합당성을 나타내 보인다.**)
- “경건한 행실과 말로써 ...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20:69)
- “주 앞에서 거룩하게 [견는]”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20:69)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20편에 있는 교리들과 교회의 관행은 물론경에도 묘사되어 있으며, 모든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을 짚어 줄 수도 있다. 예컨대 교리와 성약 20편 17~36절에서 설명하는 교리는 물론경에서도 묘사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리와 성약 20편 73~80절에 기록된 의식과 관행은 물론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1:30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이 모든 교회가 참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이 올바르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해 준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약 일 년 반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관해 중요한 설명을 하셨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편 30절을 눈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주님께서는 회복된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표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이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기 전에, 이 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줘도 좋다.)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로 간주되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



“이 교회는 유일하게 참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신권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시절에 그러하셨듯이, 땅에서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권능을 이 교회에만 부여하셨습니다. 그 열쇠들은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었으며 이후에 그는 그 열쇠들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부여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20쪽)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회복된 교회는 참됩니다. 구주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복음 14:6)이십니다. 또한 이 교회는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성신께서 역사하시며 성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성신을 받으라”,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97쪽)

- 아이어링 회장과 베드나 장로가 밝힌 진리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의 여느 교회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교회는 구주의 교회이며 성신께서 역사하시고 성신의 은사와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전 교리와 성약 1편 30절 옆 여백에 이 내용의 일부를 적으라고 해도 좋다.)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교리와 성약 1편 30절을 인용한 후에 교회에 관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서술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설명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팩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이 교리에 관해서 양보를 하면 회복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교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갖고 있든, 우리가 얼마나 주재롭게 보이든, 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비판이 가해지든,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

우리는 다른 교회에는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회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진리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진리가 더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유일한 참된 교회”,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91, 92쪽)

- 어떻게 이 교리가 회복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가?

학생들에게 개인들이 어떻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됨을 알 수 있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1:30; 20:1~3, 17~37, 68~69.
- 헨리 비 아이어링,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20~24쪽.

제7과

영원한 복음을 선포함

소개

교리와 성약은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특정 회원들에게 주신 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계시에서 주님은 그 회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의 선택된 자들을 모으라고 명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부름을 받아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된 선교사들에게 힘입어, 교회는 급속히 성장했다. 오늘날 교회 회원들은 복음을 나누는 일을 돕는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완수하면서 선교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고 있다.

읽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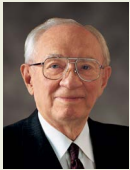
- 닐 엘 앤더슨,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7~80쪽.
- 엘 톰 페리, “영혼들을 내게 데려오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09~112쪽.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29:4~7; 33:2~7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을 돕도록 종들을 부르신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선교 사업은 교회가 지닌 활력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교회가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업 덕분입니다.”(“선교사 봉사”,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17쪽)

-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선교 사업은 어떤 면에서 “교회가 지닌 활력의 근원”인가?

회복 초기에 주님의 사업에 어떻게 이바지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대신해서 계시를 구해 달라고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이런 계시들은 때로는 한 개인에게, 때로는 여러 개인에게 주어졌다. 교리와 성약 33편은 두 명의 개인인 에스라 테이어와 노드롭 스위트를 위해 받은 계시의 한 가지 예라고 설명해 준다.

학생 몇 명에게 교리와 성약 33편 2~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선교 사업에서 맡은 역할에 적용되며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어구, 또는 상징을 찾아보라고 한다.

- 주님은 어떤 상징을 사용하셨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어도 좋다.)
- 이런 상징들이 어떻게 선교 사업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학생들에게 6절을 주의 깊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때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찾은 것을 자신의 말로 발표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선택된 자들을 모으는 일을 돕는다. 이 계시에 뒤이어 에스라 테이어가 “자신의 헛간에 가득” 사람들을 모아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듣게 했다고 연결할 수도 있다.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vol. 1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3), 206]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정의한 십이사도 정원회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요소는 주님께서 고대에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 복음을 믿고, 교회에 가입하여 왕국으로 들어오는 일도 그 요소입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515)

한 학생에게 교회가 조직된 후에 처음으로 부름받은 선교사들 가운데 일부에 관한 다음 기사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이 초기 선교사들이 어떻게 주님의 선택된 자들을 모으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귀 기울여 보라고 한다.

“[1830년 가을],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올리버 카우드리, 피터 휘트머 이세, 팔리 피프렛 및 지바 피터슨 등에게 ‘레이맨인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교리와 성약 28:8; 30:5~6; 32:1~3)하라고 계시하셨다. 이 선교사들은 여러 인디언 부족들 가운데서 조금씩 전도하며, 약 2,400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지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로 시드니 리그돈의 개혁주의 침례교 신도들로 구성된 약 130명의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그리하여 그 이듬해에 수백 명의 교회 회원들을 위한 집합 장소가 될 곳을 개척하였다. 선교사들은 또한 훗날 시온 성이 건설될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있는 정착민 가운데에서도 개종자들을 찾았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50쪽; 또한 Richard Dilworth Rust, “A Mission to the Lamanites: D&C 28, 30, 32,” Revelations in Context series, Feb. 22, 2013, history.lds.org 참조)

오하이오 주 북부의 이 개종자들로 그 당시 교회 회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해 준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29편 4~7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정의를 찾아보라고 한다.

- 구주께서는 그분의 택함받은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학생들에게 북미 이외 지역에서 봉사했던 첫 선교사들의 업적은 주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모으는 데 자신의 중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보여 주는 극적인 예가 된다고 설명해 준다. 한 학생에게 다음 요약문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히버 시 김볼(1801~1868) 장로에게 주었던 권고에 귀 기울여 보라고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히버 시 김볼은 이렇게 회고했다. ‘1837년 6월 1일경, 제가 커틀랜드에 있는 성전에 앉아 있을 때 선지자 조셉이 제게 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종 히버를 영국으로 가게 하여 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 김볼 장로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압도되었다.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종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셉에게 그곳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를 [인도했던]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저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또한 커틀랜드에 있는 올슨 하이드, 윌라드 리차즈, 조셉 필딩 스미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아이잭 러셀, 존 스나이더 그리고 존 굿슨에게도 부름을 주었다. 이 형제들은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는 김볼 장로와 합류할 예정이었다. 뉴욕 시에서 만난 그들은 1837년 7월 1일, 영국으로 출항하는 *개리* 호에 승선했다. 북미 지역 밖에서의 이 첫 선교 사업으로, 선교사들은 영국에서 첫해 동안 약 2,000명의 개종자를 교회로 인도했다. 김볼 장로는 기쁜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셉 형제님, 주님은 이 국민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나부에서 브리검 영의 인도하에 대부분의 십이사도가 참여한 사도들의 두 번째 선교 사업을 지시했다. 1839년 가을에 출발한 십이사도는 1840년 영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1841년까지 교회에 약 6,000명이 넘는 개종자를 데려오게 된 사업을 시작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327, 329쪽)

- 히버 시 김볼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서 받은 권고는 무엇이었는가?
-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려 애쓰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

교리와 성약 4:1~7; 18:10~16; 31:1~12; 34:5~6; 39:20~23; 88:81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리와 성약은 교회 회원들이 선교 사업에 참여해야 할 책임과 그 축복을 거둬서 상기시킨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책임은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계시들에서 반복되는 유형과 주제이다. 경전을 읽는 사람들이 유형과 주제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흡족히 취할 수 있게 된다.(see David A. Bednar, “A Reservoir of Living Water”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Feb. 4, 2007], speeches.byu.edu 참조)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88편 81절을 조용히 읽고, 그 내용이 현재 교회 회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신의 말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대답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의무가 있다**이다.)

다음 표를 보여 주거나 칠판에 그린다. 반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경전 구절을 하나씩 정해 준다. 학생들에게 배정된 구절을 읽으면서 복음을 나누는 책임과 약속된 축복을 찾아보라고 한다.

	책임	축복
교리와 성약 4:1~7		

	책임	축복
교리와 성약 18:10~16		
교리와 성약 31:1~12		

충분히 시간을 준 후에 몇몇 학생에게 찾은 답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베드나 장로가 설명한, 복음을 나눠야 하는 우리 각자의 책임에 대해 귀 기울여 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들은 언제나 충실한 선교사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선교사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이 구속주이심을 증언하고 그분의 복음이 참됨을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회원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교회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구주의 교회에 속한 회원 개개인은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신성한 의무가 성취되도록 돕는 엄숙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약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후기 성도는 모든 나라의 모든 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라는 이 책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

참으로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엄숙한 책임을 느낍니다.”(“와서 보라”,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07쪽)

- 구주의 교회에 속한 회원들이 선교 사업을 엄숙한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십이사도 정원회 엘 톰 페리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자신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 부지런해지고 싶은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복음은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의 속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속죄는 죄를 씻고, 치유하고, 영생을 부여할 힘을 줍니다. 속죄의 가능할 수 없는 모든 축복들은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복음의 의식들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을 받음, 그리고 끝까지 견딤입니다.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위대한 선교 사업 메시지는 온 인류가 구조되고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들도록 초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업 메시지는 회복에 관한 지식으로 강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대에 그러하셨듯이, 오늘날에도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분의 복음이 회복된 신권의 권능과 권세로 집행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외의 어떤 메시지도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것처럼 위대하고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없습니다.”(“영혼들을 내게 데려오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10~111쪽)

- 우리 각자가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더 부지런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답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34편 5~6절, 39편 20~23절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복음 메시지를 나누라고 명하신 다른 중요한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 복음의 영원한 중요성을 이해하면, 우리 신앙에 속하지 않은 이들과 복음을 나누겠다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더 커지는가?
- 복음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경험했던 일을 설명해 준다.

학생들에게 몇 분 동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보라고 한다. 예컨대 그들은 지인 중에 현재 교회 회원이 아닌 누군가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느낌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기 위해 매일 기도하도록 권유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4:1~7; 18:10~16; 29:4~7; 31:1~12; 33:2~7; 34:5~6; 39:20~23; 88:81.
- 닐 엘 앤더슨,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7~80쪽.

제8과

후기 이스라엘의 집합

소개

교회가 조직된 후 일 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오하이오 지역으로 모이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37:3 참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후기 성도들은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르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곳곳에 모이고 있다. 이 과에서 학생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셔서 그들을 강화하고 성전 축복을 포함한 더 큰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심을 배우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84:4 참조)

읽기 자료

- 리셀 엠 넬슨,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9~82쪽.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38:31~33; 39:15; 95:8; 110:9

오하이오로 모이라는 부름

교리와 성약 뒷부분에 있는 “미국 뉴욕 주, 펜실베이니아 주 및 오하이오 주 지역” 지도(교회 역사 지도 3), 또는 이 지역을 나타내는 다른 지도를 보여 준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회복에 관련된 사건의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보라고 한다. 첫번째 시현 (뉴욕 주 맨체스터), 신권의 회복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 그리고 교회의 조직 (뉴욕 주 페이엣)

그런 후에 몇몇 학생에게 다음 말씀을 돌아가며 읽게 한다.

“전 성직자이자 커틀랜드 지역에서 새로 개종한 회원인 시드니 리그돈과 에드워드 파트리지라고 하는 비회원 친구 한 명은 선지자를 만나 교회의 가르침을 더 받기를 갈망하여, 1830년 12월에 4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여 뉴욕 주 페이엣까지 조셉 스미스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선지자에게 그들 자신과 커틀랜드 성도들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청했다. 주님께서 그 응답으로 뉴욕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함께 모[여야]’(교리와 성약 37:3) 한다고 계시해 주셨다. 뉴욕 주에서 열린 교회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집회가 1831년 2월 2일에 휘트머의 농장에서 열렸을 때, 주님은

회원들에게 ... [교회 회원들이 오하이오로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반복하셨다. ... 회원들에게 함께 모이라고 한 이 지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첫 번째로 내려진 부름이었다. ...

1831년 4월 중순경, 콜스빌에서 오하이오로 길을 떠난 회원들은 68명이었다. 80여 명의 페이엣 지부 성도들과 50여 명의 맨체스터 지부 회원들도 주님의 지시에 똑같이 순종하여 1831년 5월초에 그들의 집을 떠났다. ... 5월 중순경, 뉴욕 주에서 온 모든 지부의 성도들은 배로 이리호를 가로질러 오하이오 주 페어포트 항까지 건너갈 수 있었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 커틀랜드와 톰슨 군구의 목적지까지 안내되어 갔다. 이미 후기의 이스라엘 대집합이 시작된 것이었다.”(우리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사[1996], 17~19쪽)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38편 31~3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집합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음 네 가지 축복을 찾아야 한다. (1) “원수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집합하게” 된다. (3)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된다. (4)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학생들에게 각자의 경전에서 이 네 가지 축복을 찾아 표시하라고 해도 좋다. (주: 학생들은 경전에서 ‘열거’된 정보들을 찾아봄으로써 주님이나 선지자가 강조하시는 주요 사항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내용을 칠판에 적는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들을 모으신다.** 경전에서 집합의 교리는 종종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고 짚어 줄 수도 있다. “상관 관계란 생각이나 사람 또는 사물이나 사건 사이에 연결된 고리나 관련을 말하며 경전은 다양한 상관 관계들로 가득합니다.”(David A. Bednar, “A Reservoir of Living Water”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Feb. 4, 2007), 4, speeches.byu.edu)

주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후기 성도들을 오하이오로 불러 모으셔서 이 경륜의 시대에도 율법을 받도록 하셨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38:32 참조) 오하이오에서 주님은 교회에 자신의 율법을 계시하기 시작하셨다.(교리와 성약 42편 머리말 참조)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나와 믿음과 표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어떻게 사탄의 힘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오하이오에서 성도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고 약속된 축복은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모이고 5년이 지난 후, 커틀랜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해 준다. 하늘 사자가 완공된 성전에 방문하여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와 권세를 회복해 주었다. 성전 헌납식에 참석한 수많은 회원은 쏟아져 내리는 영적 나타내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성전에서 씻음과 기름 부음 의식을 받았다. 몇 년 후에 나부에서 성전 엔다우먼트 의식이 성도들에게 소개되면서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는 약속이 더 온전히 성취되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가 나부에서 전한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세상의 어떤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 집합의 주요 목적은 주님께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 집의 의식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밝히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16쪽)

-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시받은 대로 함께 모여서 성전을 건립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주시는가?

교리와 성약 45:62~67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즉 시온을 설명하시다

뉴욕의 성도들이 오하이오로 모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오보하고 비방하는 많은 잘못된 신문 기사와 소문이 있었다고 설명해 준다. 이 기간 동안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평화롭고 안전한 집합 장소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45편 62~6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서쪽 지방”(교리와 성약 45:64)으로 집합하라고 명하신 목적을 찾아보라고 한다. 다음 질문을 해 볼 수도 있다.

- 주님께서 무엇이 “곧 너희 문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가? “곧 너희 문 앞에”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 주님께서 성도들이 서쪽 지방에 함께 모여 무엇을 하기를 바라셨는가?
- 왜 그들은 재물을 모아야 했는가?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이 구입하여 거주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 성도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땅은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가?

경전에서 시온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준다. 때로는 그 단어가 시온의 백성을 의미하며,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교리와 성약 97:21)로 묘사된다. 또 다른 곳에서는 시온이 교회 전체와 스테이크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교리와 성약 82:14 참조) 시온이라는 말은 또한 특정한 지리적 장소를 나타내기도 한다. 교리와 성약 45편 66~67절에서 시온은 성도들이 세우고 모여야 하는 장소로, 때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는 지리적 도시를 언급한 것이다.(또한 제3니파이 20:22; 21:23; 이더서 13:1~8; Bible Dictionary, “Zion” 참조)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즉 시온을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학생들은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 **새 예루살렘은 평화롭고 안전한 피난처이며,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 여러분은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어떻게 시온의 안전함과 평화로움을 맛보아 왔는가?

1831년 6월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교회의 네 번째 대회를 마칠 무렵,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와 몇몇 장로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약 1,450 킬로미터 거리인 미주리로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하셨다고 설명해 준다.(교리와 성약 52편 절 요약 참조) 도착한 후에 선지자는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가 “중심지”로서 미주리 주가 “약속의 땅이요 그리고 시온 성을 위한 장소”(교리와 성약 57:1~3)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시온을 건설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수백 명의 후기 성도가 미주리 주 잭슨 군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회원들과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이 결국 폭력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1833년 11월과 12월에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뒤로한 채 잭슨 군을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교리와 성약 115:5~6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의 스테이크에 모인다

안전과 평화를 위해 여러 지역으로 모이려는 성도들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교리와 성약 뒷부분에 있는 지도 “교회의 서부 이동”(교회 역사 지도 6)을 보여 준다.




성도들은 결국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지역에서뿐 아니라 미주리 주 서부 지역에서도 떠나도록 강요받았다고 설명한다. 1839년에 성도들은 일리노이 주 나부에 모이기 시작했으며, 그곳에 큰 도시를 세웠다. 하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성도들은 또다시 자신의 집을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그들은 미국 서북부를 가로질러 로키 산맥으로 이주하여 정착했으며 솔트레이크시티에 교회 본부를 세웠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15편 5~6절을 읽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이 구절에 따르면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이는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인가? (대답에는 다음 진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악에 대항하는 방어진이자 피난처인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인다.**)
- 시온의 스테이크는 어떻게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모국에서 방어진과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가?
- 자신의 와드 또는 지부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이면서 힘과 보호를 느낀 적이 있었는가?

학생들이 오늘날 교회 회원들이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이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십이사도 정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마지막 경료의 시대의 초기에 시온으로 집합하는 일에는 미국의 여러 지역, 즉 커틀랜드, 미주리, 나부 및 산꼭대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장소들은 늘 성전을 지을 집합 장소였습니다. 스테이크의 조직과 더불어 대부분의 국가에 충실한 자들의 수에 맞는 성전이 건립되면서, 현대의 계명은 한 곳에 집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있는 스테이크에 집합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충실한 자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충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 시온의 스테이크는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교리와 성약 115:6)가 됩니다.“(“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쪽)

한 학생에게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현재 이스라엘의 집합은 참된 교회에 가입하여 참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그러므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국어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집합의 법을 지킨 것이며, 이 후기에 성도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439)

- 여러분의 생애 동안 교회가 지은 성전 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보았는가?
- 시온의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회원으로서 어떤 축복을 받아 왔는가? 성전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아 왔는가?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이 시온의 스테이크와 성전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함으로써 영적인 보호와 힘을 얻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마친다. 영의 속삭임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학생들에게 권유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37:1~3; 38:31~33; 39:15; 45:62~67; 95:8; 110:9; 115:5~6.
- 러셀 엠 넬슨, “흠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9~82쪽.

제9과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름

소개

교회가 조직된 날에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전을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21:4~6 참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들이 속지 않게 하려고 오직 선지자만이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도록 임명되었다는 추가적인 계시를 주셨다.(교리와 성약 28:1~7 참조) 또한 선지자는 경전을 해석할 권세가 있다. 이런 진리들을 이해함으로써 이 후기에 영적으로 더욱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읽기 자료

- 러셀 엠 넬슨, “선지자를 지지하며”,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74~77쪽.
- Ezra Taft Benson, “Fourteen Fundamentals in Following the Prophet”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Feb. 26, 1980], speeches.byu.edu; 또한 *성도의 벗*, 1981년 6월호, 1~8쪽 참조)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21:1~6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

학생들에게 우리가 때때로 교회 회장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 무엇인지 묻는다.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쓴다. 그런 다음,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21편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게 한다. 칠판에 추가적인 호칭을 나열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이 구절에 나오는 각 호칭은 교회 회장이 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교리와 성약 21편에 기록된 이 계시는 교회가 조직된 날에 주어졌다고 설명하여 학생들이 이 편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 학생들이 성구의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때, 자신이 읽은 내용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초기 교회 회원들이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이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이 맡은 역할과 확연히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21편 4~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선지자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때로는 인내와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의 다음 말씀을 나눌 것을 고려해 본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계명에 유의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 여러분은 교회의 권세를 가진 이에게서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생활의 일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친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인내와 신앙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면, 그 약속은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은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흠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교리와 성약 21:6) 임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84~85쪽)

영의 속삭임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설명해 주어도 좋다.

1. 후기 성도인 우리는 선지자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님께서 선지자들이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공식선언-1, “성명서에 관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세 가지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 참조)
2. 우리는 끊임없는 계시를 믿으며 그 안에서 기뻐한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한 선지자가 이전 선지자의 예언적인 권고를 명확히 설명하거나, 널리 받아들여진 가르침 또는 관행에 대해 훗날 변화가 필요함을 밝힌 경우들이 있었다. 예컨대, 교회 초창기에 회원들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또는 미주리 주 잭슨 군과 같은 한 중심지에 모이도록 권고받았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로 모이도록 권고받는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21편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부분을 표시해 두라고 해도 좋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가 드러나야 한다.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대적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진동하게 하다(shake)**의 의미 중 한 가지는 어떤 물건을 지지대나 용기에서 흔들어서 빠져나가게 하거나 쏟아져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6절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하늘이 “[우리의] 유익[을] ... 위하여” 진동할 때, 계시와 축복이 “쏟아져” 나와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이다.)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선지자의 권고에서 안전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만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저 현명한 사람이 좋은 충고를 하는 정도로 생각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

그러나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더욱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장차 영감 어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25쪽)

- 선지자의 권고를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더욱 위험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예가 이 말씀이 참됨을 보여 주는가?
-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적은 언제인가?
- 선지자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원리를 어떻게 우리 시대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질문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21편 6절에 약속된 축복을 요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에 진지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현재뿐 아니라 영원토록 커다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 준다. 선지자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분들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해 준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지도자를 따르고,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분들이 지닌 거룩한 임무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간증,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얻어야 하는 보다 큰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45쪽)

교리와 성약 28:2, 6~7; 43:1~7

주님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시를 주신다

교회가 조직되고 난 직후에 교회 회원 중 일부가 그릇된 것을 선지자의 인도라고 믿게 하려는 대적의 노력에 속게 되었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28편 머리말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라고 한다.(또한 Jeffrey G. Cannon, “All Things Must Be Done in Order: D&C 28, 43,” Revelations in Context series, Apr. 4, 2013, history.lds.org 참조)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교회 회원들이 하이럼 페이지가 계시라고 여겼던 것을 계속 믿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는가?

학생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고 교리와 성약 28편 2, 6~7절을 공부하도록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어떻게 교회 회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는가? (학생들은 다음 교리를 이해해야 한다. **교회 회장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을 열쇠를 지니고 있다.**)

학생들이 이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43편에 관련된 다음 역사적 배경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1831년 2월에 허블 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에게 왔다. 그녀는 자신이 여선지자이고,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았으며, 물문경이 참됨을 알고 있고, 자신이 교회에서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일부 성도들을 속일 수 있었다. 조셉 스미스와 그 외 사람들은 그녀의 영향력과 성도들 사이에 퍼진 다른 거짓 계시들에 대해 염려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여쭙기로 하였으며 현재 교리와 성약 43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vol. 1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3], 257 참조)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43편 1~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당시에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교리를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부분을 표시해 두라고 해도 좋다. 또한 이 구절들을 교리와 성약 28편 2절과 상호 참조하게 해도 좋다. 28편에 기록된 계시는 뉴욕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43편에 기록된 계시는 커틀랜드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짚어 준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교리와 성약 43편에 기록된 계시가 주어졌을 당시, 누가 교회 전체를 위한 계명과 계시를 받도록 지명받았는가?
- 이 성구들에서 어떤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드러내야 한다. **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만이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도록 지명된다. 교회 회장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 엘 톰 페리 장로의 다음 말씀을 들려줄 것을 고려해 본다.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인류에게 계시하는 방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간구하여 우리의 청지기 직분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영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감독은 지명받은 회중을 위해, 제일회장단은 교회 전체를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회원이나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97쪽]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6쪽)

-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인된 신권 경로를 통해서 계시를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속지 않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지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주는가?
- 어떻게 주님의 방식인 계시에 의해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는가?

교리와 성약 90:1~6

주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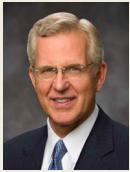
교회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교회의 신권과 회원 기록을 체계화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설명한다.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거나 요약한다.

“교회 회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지자는 계속해서 신권 직분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회장으로 하고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를 보좌로 하는 제일회장단을 조직했다. 그는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도 조직했다. 그는 감독과 감독 보좌, 대제사, 축복사, 고등평의회, 칠십인 및 장로를 부르고 성임했다. 그는 교회의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했다.”(*우리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사*[1996], 26쪽)

제일회장단은 교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해 준다. 학생들이 교리와 성약 90편 1~6절을 공부하면서 제일회장단의 구체적인 임무를 찾아보라고 한다. (제일회장단은 “왕국의 열쇠를 지니며”[2절] 교회에 “말씀이 ... 주어지[는]”[4절] 통로가 된다.) 학생들이 대답하면 “말씀[oracles]”이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계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줄 수도 있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교회에서 교리가 확립되는 두 가지 방식을 주의 깊게 들어 보라고 한다.



“1954년, 당시 제일회장단 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은 교회에서 교리가 선포되는 과정과 교회 회장의 주요 역할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구성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관리 역원 중 몇몇 분들에게는 특별한 부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으며,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받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습니다. 이 총관리 역원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 회장의 권능과 권세에 속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선포할 권리와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

교회 회장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기초하여 교리를 발표하거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교리적 해석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합동 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식 선언-2 참조) (“그리스도의 교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6~88쪽)

- 누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세상에 선포할 권세를 지녔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살아 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마친다. 학생들에게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어 왔는지 간증을 나눠 달라고 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21:1~6; 28:2, 6~7; 43:1~7; 90:1~6, 16.
- 러셀 엠 넬슨, “선지자를 지지하며”,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74~77쪽.

제10과

진리를 추구함

소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는 권고를 받는다. 이 방식을 따를 때, 사람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성신의 도움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된다. 오늘날 인터넷과 그 밖의 자료들이 교회의 교리, 역사, 사회적 쟁점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진실하지만 일부는 그릇되며 또 일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우리가 성신의 도움에 의지하여 사실과 오류를 분별하는 것은 특히 더 중요한 문제이다. 올바른 정보가 담긴 자료를 찾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읽기 자료

-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진리는 무엇인가?”,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3년 1월 13일), lds.org/broadcasts.
- “Gospel Learning,” Gospel Topics, lds.org/topics.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88:118, 121~126편

학습 방식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열린 선지자 학교에 관한 다음 설명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1833년, 선지자와 커틀랜드 성도들로 구성된 그룹은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해 1월, 주님의 명에 따라(교리와 성약 88:127~141 참조) 선지자는 성역을 베푸는 일을 위해 신권 소유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갖추도록 선지자 학교를 조직했다. 학교는 선지자가 기거하고 있던 휘트니 상점 2층에서 열렸다. 약 25명이 참석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네 평(3.25x4.27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방에서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훗날 사도, 칠십인 및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되었다. 선지자와 그 밖의 형제들은 종종 언어도 공부했지만 주로 복음 교리에 몰두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부에 전념했다. 이 학교는 4개월간 운영되었고, 이와 비슷한 형태의 학교가 이후 커틀랜드와 미주리에서도 운영되었을 때에는 수백 명이 참석하였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261쪽)

교리와 성약 88편에는 주님께서 선지자 학교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신 지시 사항이 담겨 있다고 설명해 준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88편 118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주님께서 규정하신 학습 방식을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 이 방식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학생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겠지만,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신앙을 발휘할 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둔다.)

몇몇 학생에게 주님께서 선지자 학교에 주신 더 많은 지시 사항이 기록된 교리와 성약 88편 121~12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신앙으로 배우는 법을 이해하게 해 주는 원리를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부분을 표시해 두라고 해도 좋다.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이 원리들을 칠판에 나열해 보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또한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의 이 구절들 옆 여백에 “신앙으로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원리들”이라고 적게 해도 좋다. (주: 학생들은 경전 여백에 요약 문구를 적음으로써 중요한 원리들을 더 쉽게 찾고 기억할 수 있다.) 시간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엘마서 32장 28, 41~43절과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그 밖의 추가 원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 이 성구들에서 가르치는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는 동안, 이 원리들을 따르면 영의 도움을 얻을 자격을 더 잘 갖추게 된다고 강조해도 좋다.)
- 우리가 주님의 영과 함께할 자격을 갖추는 때, 그 영은 우리의 진리 추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91:1~6

진리와 오류를 분별함

제일회장단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이 내용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세계 역사상 어느 시대도 오늘날 우리처럼 많은 정보에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정보 가운데 일부는 참되고, 일부는 그릇되며, 대다수의 많은 정보는 부분적으로만 참됩니다.

따라서, 세계 역사상 어느 시대도 지금까지처럼 정확하게 사실과 오류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3년 1월 13일], lds.org/broadcasts)

-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

진리와 오류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성서외경을 읽고 있던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91편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 어떤 것이 참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91편 머리말을 소리 내어 읽도록 하고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게 한다. 그런 후에 모든 반원에게 교리와 성약 91편을 공부하면서 칠판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성서외경은 유대인의 성스러운 책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이 책들은 히브리어 성경(구약전서)에는 원래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 시대 직전에 그리스어 번역본 성경에 포함되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수세기 후에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을 때 이 외경을 부록으로 포함시켰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외경을 경전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기독교인들은 외경을 영감받은 기록으로 믿지 않는다. 조셉 스미스가 영감역을 만들 때 사용한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셉은 영감역 성경에 외경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여쭙었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91편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조셉 스미스는 성서외경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가필(interpolation)이란 원문에 추가로 써 넣은 내용을 말하며 이것은 때로 원문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설명해 줘야 할 수도 있다.)

다른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91편 4~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4~6절의 권고는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고 우리가 읽은 것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학생들이 다양하게 답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분명히 찾아내도록 한다. **성신은 우리가 읽은 것이 참된지 알도록 도울 수 있다.**)

인터넷에는 방대한 정보가 범람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진리와 오류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교리와 성약 46편 23절 참조)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해 준다. (우리 삶에서 분별의 영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말씀 “보고 깨닫는 것이 빠름”,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15~20쪽 참조)



칠십인 정원회의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의 사본을 각 학생에게 나눠 준다. 첫 두 문단을 읽으면서, 교회 역사나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자료를 접할 때 그 안에 담긴 정보를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스노우 장로가 어떤 권고를 하는지 눈여겨보라고 한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 역사 바라보기



칠십인 정원회의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인터넷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교회 역사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좋거나 나쁜 것, 진실이거나 거짓인 온갖 정보가 넘쳐납니다. 교회 역사에 관해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읽고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일부 정보는 전체 맥락이 없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당혹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정보는 대개 매우 주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역사를 더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자료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부 웹사이트는 매우 악의적이며,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제시합니다. 저명하고 존경받는 역사가들의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반몰론 자료에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에 대처할 만큼 자신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 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영적인 면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갑자기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에 충실할 때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반몰론 기사를 비롯해 온갖 시련에 맞설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 역사 바라보기”, *리아호나*, 2013년 6월호, 45~46쪽)

- 우리는 교회 역사나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자료들의 신뢰성을 주의 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교회에 관하여 읽은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스노우 장로의 가르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스노우 장로의 말씀에서 세 번째 문단을 조용히 읽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정보를 접할 때 스노우 장로의 권고가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의문이 들 때에도 충실히 남음

교회 회원들은 교회 교리, 역사, 또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입장에 대해 때때로 의문을 느끼거나 심지어 의심이 들 수도 있다고 설명해 준다. 학생들에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의문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직한 질문이라는 작은 도토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이해라는 커다란 참나무가 됩니다. 교회 회원 중에 중대하거나 민감한 문제로 한 번쯤 고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신앙의 씨앗을 키우고 재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확실이라는 모래가 섞인 흙 속에서도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각 학생에게 의문이나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가 담긴 유인물 “진리와 오류를 분별함”을 한 부씩 나눠 준다. 학생들에게 유인물에 있는 말씀들을 조용히 읽으면서,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의문이나 의심에 접근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유인물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교회 교리, 역사, 또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교회의 입장에 의문이나 의심을 품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설명해 달라고 한다.

공과를 마치면서, 비록 우리 생애 동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계명을 지키고, 특히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이 올바른 정보가 담긴 자료를 공부하며,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신앙을 행사할 때, 중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한 진리와 답을 찾는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를 느낀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유인물의 말씀을 복습하고, 이 과에서 배운 대로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는 권고를 따르라고 독려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88:118~126; 91:1~6.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진리는 무엇인가?”,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3년 1월 13일), lds.org/broadcasts.

진리와 오류를 분별함

모든 복음 경륜의 시대에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후기에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울]”(교리와 성약 65:2) 것이다. 하지만, 교회 회원 각자는 속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항상 깨어 기도”(제3니파이 18:18)할 필요가 있다.



“복음의 충만함이 회복되어 빛이 주어진 이 시기에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미지의 바다를 향해하거나 표지판 없는 도로를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로를 구상해 놓으셨고 순종이라는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 89쪽)



“사랑하는 ... 친구 여러분, 부디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의 포로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사랑과 평안, 값진 은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사탄은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 12:10]이며, 모든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44]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속이려 [교리와 성약 50:3] 합니다. ...

이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일차 전략은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전에 배웠던 것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를 발견할 때 실족함에 이르도록 많은 교회 회원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순간을 겪게 된다면, 이 정보의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 대해서든지 의심을 조성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물로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에 나온다고 해서, 자주 언급된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그룹이 추종한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이 참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제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주장이나 정보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보이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

지금은 모순되게 보이는 것도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구하고 얻는다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진리는 무엇인가?”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3년 1월 13일], lds.org/broadcasts)



“현대의 관행과 제안을 우리가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전제에 비교하여 평가한다면, ... 우리는 이 방법을 따를 때 영원토록 안전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함께하는 저녁 모임, 2013년 2월 8일], lds.org/broadcasts)



“두려움이나 의심, 고난의 시기가 오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그 신앙이 비록 작고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우리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는 ‘진실’ 여과기가 없다는 점을 그 진지한 탐구자에게 환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도 있습니다.”(닐 엘 앤더슨, “조셉 스미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9쪽)



“영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즉 신앙으로 구하고, 받을 것으로 믿으며,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Paul V. Johnson, “A Pattern for Learning Spiritual Things” [Church Educational System address to religious educators, Aug. 7, 2012], si.lds.org)



“변절한 사람의 눈을 통해 교회를 알아보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알려고 유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Neal A. Maxwell, “All Hell Is Move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8, 1977], 3, speeches.byu.edu)

제11과

교리와 성약에 담긴 주님의 음성

소개

교리와 성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신다는 증거가 된다. 교리와 성약에 담긴 계시들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교리와 성약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라도 그 가르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읽기 자료

- 에즈라 테프트 벤슨,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8~12쪽.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소개

교리와 성약에 담긴 주님의 음성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준다. 한 학생에게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라고 한다.



“물몬경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옵니다. 교리와 성약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온 땅 위에 있는]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로 데려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몬경은 우리 종교의 ‘중석’이며, 교리와 성약은 계속되는 후기의 계시가 있는 관석입니다. 주님은 중석과 관석 모두에 그분의 승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물몬경과 교리와 성약”,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10쪽)

- 교리와 성약을 읽으면서 이 책이 교회와 회원 개개인에게 중요한 책이라는 점을 깨우쳐 주는 내용을 찾은 적이 있는가?

반원들에게 자신의 경전을 펴고 교리와 성약 첫 부분에 있는 교리와 성약 소개 편을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첫 문단과 셋째 문단을 돌아가며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게 한다.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이 다른 경전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찾아보라고 하고, 소개 편에서 강조되어 있는 내용, 즉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내용에 주목하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교리와 성약이 다른 표준 경전들과 어떻게 다른가?
- 소개 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깨닫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의 음성(voice of the Lord)”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교리와 성약에 40번 이상 나오며[그 예로, 교리와 성약 1:2; 18:35~36; 76:30 참조]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thus saith the Lord)”라는 문구는 교리와 성약에 60번

이상 나온다.[그 예로, 교리와 성약 36:1; 56:14 참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교리와 성약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준다. 한 학생에게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게 한다.



“어느 경전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기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이 처음에는 신약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신약은 메시아의 업적과 많은 교리가 수록되어 있는 훌륭한 경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의 말씀뿐 아니라 음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주님의 음성”, *성도의 빛*, 1980년 1월호, 4쪽)

-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몇 분 동안 교리와 성약 소개 편의 여덟 번째 문단을 공부할 시간을 준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에 어떤 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질문한다.

- 무엇 때문에 교리와 성약은 “온 지상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인가?

교리와 성약에서 찾을 수 있는 계시에 관해 칠십인 정원회의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가 말씀한 다음 내용을 나누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영감을 주며 교화해 주는 이 계시들을 통해 교리와 성약은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거듭 강조합니다. ... 존 에이 윌소(1872~1952) 장로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개략적이거나 암시적인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교리 중에 이 책에서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언급되지 않은 것은 없다.’ 윌소 장로님은 교리와 성약이 필수불가결하며, ‘우리가 가진 다른 어떤 성스러운 책도 교회의 모든 교리를 것처럼 온전히 개관해 주지는 못하기’[*The Message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1969), 117] 때문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Treasuring the Doctrine and Covenants*,” *Ensign*, Jan. 2009, 52)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을 공부함으로써 삶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발표해 달라고 한다.

교리와 성약 1:1~17; 5:10

교리와 성약의 배경

교리와 성약 1편에 기록된 계시는 원래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들을 편찬한 첫 번째 책인 계명의 책 서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계시 모음집은 조셉 스미스가 받은 더 많은 계시와 *Lectures on Faith*[신앙강좌]를 포함시켜서 나중에 교리와 성약으로 출판되었다. 1편은 우리 시대에 이 경전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편 머리말을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 편 머리말을 분석해 볼 수 있도록 다음 질문들을 던져 준다.

- 장로들의 특별 대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가? (조셉 스미스가 그때까지 받은 계시들을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이 책이 원래는 계명의 책으로 불렸지만 나중에는 교리와 성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음을 상기시켜 준다.)

학생 몇 명에게 교리와 성약 1편 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 질문한다.

- 이 구절에서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 여러분은 이 성구들의 중심 메시지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겠다고 하셨는가? (학생들은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전하신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편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비하기를 바라시는가?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편 14~16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주님께서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의 발표를 들은 후에, 그들에게 17절을 읽고 주님께서 14~16절에 묘사된 문제점을 다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5편 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우리는 이 성구에서 조셉 스미스의 고유한 부름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를 부르셨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가] ... 이론 다른 모든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성한 계시라는 확고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것은 증거나 결과 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계시가 아니며, 모든 선한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잔잔한 영감의 일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친구요 충실한 후기 성도 학자가 간명하게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근원이 합리주의 계몽 운동의 힘에 의해 공격받던 시대에 조셉 스미스는 계시를 통해 [단독으로 분명하게] 현대 그리스도교를 그 근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Richard L. Bushman, “A Joseph Smit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elieving History* (2004), 274]”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쪽)

- 여러분은 이 과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교리와 성약의 목적과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가?
- 교리와 성약은 어떻게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신성한 부름을 받았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해 주었는가?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교리와 원리와 진리에 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싶은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소개; 교리와 성약 1:1~39; 5:10.
- 에즈라 테프트 벤슨,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8~12쪽.

제12과

우리 시대의 추가 경전들

소개

주님은 끊임없이 성신을 통해 당신의 종들에게 그분의 말씀과 뜻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신성한 가르침을 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현대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경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추가된 경전으로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과 아브라함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책들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확인해 주고 명확히 해 주며 확장해 준다.

읽기 자료

- 제프리 알 홀런드, “나의 말도 ... 결코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1~94쪽.
- “아브라함서의 번역 및 역사적 진실”, 복음 주제, lds.org/topics
- Elizabeth Maki, “Joseph Smith’s Bible Translation: D&C 45, 76, 77, 86, 91,” Revelations in Context series, Mar. 20, 2013, history.lds.org.

교수 제언

후기 성도의 경전들

학생들에게 한 친구가 “왜 물론들은 성경 이외의 경전을 더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성경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실려 있다고 생각해.”라고 진지하게 묻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이런 질문을 받아 본 학생들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한다. 몇 명의 학생에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경전에 대해 간증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칠판에 정경이라는 단어를 쓴다.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다음 말씀들을 보여 주고, 두 명의 학생에게 그 말씀들을 돌아가며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정경[*canon*]이란 단어가 이 말씀들의 문맥에서 어떤 의미인지 주의 깊게 들어 보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성경 외에 공인된 경전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해 왔습니다. 계시[가 담긴 정경이] 종결되었음을 표명하는 다른 종교의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제프리 알 홀런드, “나의 말도 ... 결코 그치지아니함이니라”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1쪽)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경전으로 사용하는 거룩한 책들의 권위 있는 모음집인 정경 편찬을 끝내셨으며, 그 후로 그에 견줄 만한 계시는 없었다고 믿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정경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 주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195쪽 참조] ...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정경에 새 기록을 더하심으로써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몰몬경은 그와 같이 추가된 기록입니다.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에 나오는 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델린 에이치 옥스, “우리 신앙의 기초”, *리아호나*, 2011년 1월호, 33쪽)

- “정경”이란 말은 어떤 뜻인가? (이는 “인정되고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스러운 책들의 모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정경은 ... 표준 경전을 일컫는다.”[경전 안내서, “정경”, scriptures.lds.org])
- 후기 성도들이 정경이 열려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생들이 다양하게 답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분명히 찾아내도록 한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오직 성경에만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다.**[신앙개조 제9조 참조])
- 주님께서 계속해서 후기의 선지자에게 경전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교리와 성약 42:56; 45:60~62; 76:15~19; 93:53; 94:10

조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께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인해 주고 분명히 하며 확장해 주는 추가 경전을 계시하셨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35편 머리말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이 편에 담긴 계시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가?

성경의 조셉 스미스 역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학생에게 다음 두 문단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1830년 여름 무렵,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하셨다. 조셉 스미스는 성경을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에게 성경 원본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조셉은 흥정역 성경을 읽고 그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성신이 주는 영감대로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다. 따라서 이 번역은 전통적인 형태의 번역이라기보다는 영감에 따른 개정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조셉 스미스 역은 흥정역 성경 3,000절 이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바뀐 부분들에는 내용 추가(의미 또는 문맥을 명확히 하거나 모세서와 같은 선지자의 기록을

회복하는 것), 삭제, 구절 재배열, 그리고 특정 장들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Bible Dictionary 또는 경전 안내서에서 “조셉 스미스 역(조성)”을 참조한다.

다음 도표를 칠판에 그린다.

교리와 성약 45:60~62 교리와 성약 42:56, 각주 7 교리와 성약 76:15~19 교리와 성약 93:53	교리와 성약 35편; 76편; 77편; 86편; 91편 머리말 교리와 성약 94:10, 각주 7
---	---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두 칸 가운데 하나씩 선택하여 그 칸에 적힌 내용을 공부하면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라고 한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번역 작업이 조셉 스미스의 영적 교육과 복음 진리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조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 작업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의 연대순”(교리와 성약 첫 부분에 있음)을 보게 하고, 선지자는 주로 1830년 6월과 1833년 7월 사이에 번역 작업을 했다고 설명해 준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1830년 6월부터 1833년 7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리와 성약의 편들이 주어졌는가? (이 기간에 선지자는 교리와 성약에 수록된 74개의 계시를 받았다.)
- 이 기간에 이렇게 많은 계시들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복음의 회복에서 ‘조셉 스미스 역(Joseph Smith Translation)’이 한 역할에 관하여 어떤 점을 알 수 있는가?
- 이 기간에 주어진 교리와 성약의 편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이 기간에는 어떤 중요한 교리들이 밝혀졌는가? (이 기간에 계시된 중요한 교리들은 29편, 42편, 45편, 76편, 88편, 93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값진 진주에 실려 있는 모세서와 조셉 스미스—마태도 조셉 스미스의 성경 번역 작업의 일부이며, 이 기간에 주어졌다고 믿어 줄 수도 있다. 모세서는 창세기의 첫 여덟 장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번역이다. 조셉 스미스는 에녹에 관한 구절을 번역하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사라졌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흠정역 성경에는 에녹에 관한 단어가 109개가 나오는 반면, 모세서에는 에녹에 관한 단어가 5,240개나 등장한다.

“선지자의 성경 번역은 그 자신의 영적 교육과 복음 진리의 회복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신약전서 및 구약전서를 개정하면서 그는 종종 성경 구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확대해 주는 계시들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지자는 현재 교리와 성약 74편, 76편, 77편, 86편 및

91편에서 볼 수 있는 내용과 교리와 성약의 다른 여러 편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많은 교리들을 주님께에서 받았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208쪽*)

교리와 성약에 수록된 중요한 일부 계시들은 조셉 스미스가 성경 번역 작업을 하면서 얻게 된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간증한다.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일부가 1979년 후기 성도 판 흠정역 성경에 추가되어, 이 중요한 계시들이 교회 회원들의 삶을 축복하는 데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다.

아브라함서

학생들에게 아브라함서 각 장의 머리말을 훑어보라고 한다. 반원들과 함께 아브라함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토론한다. 그런 후에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1835년 여름, 마이클 찬들러라는 한 남성이 네 구의 이집트 미라와 고대 이집트 기록이 담긴 다수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들고 오하이오 주 키틀랜드에 왔다. 교회 회원들은 그 미라와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사들였다. 정확한 번역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집트 파피루스를 습득한 후 몇 달 동안 일부 기록을 번역했다. 1842년 3월 초에 아브라함서의 일부가 *Times and Seasons*(타임스 앤드 시즌스)라는 교회 신문에 게재되었다. 아브라함서는 나중에 값진 진주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다.

학생들에게 아브라함서의 출현 배경이 요약된 다음 글을 읽어 준다. 학생들에게 번역 과정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 보라고 한다.

아브라함서의 정확성에 대해 반대하는 일반적인 의견은 그 원고(파피루스)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기록했을 만큼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셉 스미스는 아브라함이 직접 그 파피루스에 기록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다. “고대 기록들은 많은 경우 사본이나 사본의 사본으로 전파된다. 몰몬경의 선지자이자 역사가였던 몰몬과 모로나이가 이전 사람들의 기록을 수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기록은 후세의 기록자가 편집[했을] ... 수 있다.”(“아브라함서의 번역 및 역사적 진실”, 복음 주제, lds.org/topics)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파피루스 조각들을 가지고 번역 작업을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소실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셉의 소유였던 파피루스의 한 조각만이 남아 있는 지금, 조셉의 파피루스 번역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듯하다.”(“아브라함서의 번역 및 역사적 진실”) 또한 조셉 스미스가 그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예전에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 모세의 생애에 관한 계시를 받았듯이, ...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과 가르침에 관한 계시로 인도되었을지도 모른다.”(“아브라함서의 번역 및 역사적 진실”)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아브라함서를 번역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얻은 추가 경전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중요한 아브라함서를 공부할 때 성신이 그 중요성과 정확성을 증거해 줄 것이라는 간증을 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리와 성약 1:38; 68:3~5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되는 계시

두 학생을 지명하여, 한 명은 교리와 성약 1편 38절을, 다른 한 명은 교리와 성약 68편 4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반원들에게 이 구절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주님의 종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 그 말은 주님의 뜻을 전해 준다.**

-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계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경험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교회에서는 후기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특정 계시가 만장일치의 법(교리와 성약 26:1~2 참조)에 따라 정경으로 편입되기도 한다고(경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해 준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계시를 경전으로 추가할 때, 교회 회원들은 그것을 지지하도록 요청받는다. 예컨대, 197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원들은 모든 합당한 남성에게 신권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공식선언-2를 경전으로 추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을 지지했다.

경전이 단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추가로 경전을 받을 수 없다고 믿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지 옆에 앉은 반원과 짧게 토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고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간증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1:38; 42:56; 45:60~62; 68:3~5; 76:15~19; 93:53; 94:10.
- 제프리 알 홀런드, “나의 말도 ... 결코 그치지아니함이니라”,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1~94쪽.

제13과

“시현”

소개

현재 교리와 성약 76편에 수록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시현은 영광의 등급을 포함하여 사망 이후의 삶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다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읽기 자료

- 엘 톰 페리, “구원의 계획”,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9~72쪽.
- Matthew McBride, “‘The Vision’: D&C 76,” *Revelations in Context series*, Mar. 11, 2013, history.lds.org.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76편

사망 이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830년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 “전통적” 관점과 “보편적” 관점으로 묘사하곤 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믿음 중 한 가지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해 준다. “전통적” 관점은 단순하게 의로운 사람은 천국으로, 불순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보편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히 벌하지는 않으실 것이기에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다. 이 당시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의 인식은 여느 기독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1832년 2월,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한 시현을 경험한 후에 후기 성도의 이해도는 크게 달라졌다.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이 시현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 그리고 심판의 관계가 드러났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수년 동안 초기 교회 회원들은 이 시현을 단순하게 “시현”이라 지칭했다. (Matthew McBride, “‘The Vision’: D&C 76,” *Revelations in Context series*, Mar. 11, 2013, history.lds.org 참조)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한다. 윌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저는 교리와 성약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하고 존엄한 선언문의 규범이 수록되어 있는 우리의 성약이라고 생각합니다. [76편에 있는] 시현 하나만 보아도, 그것은 우리가 읽은 어떤 책에 있는 계시보다도 더 많은 진리와 더 많은 원리를 전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분명하게 해 줍니다. 누구라도 그 계시를 통해 그의 운명과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년], 120쪽)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머리말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또 다른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15~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조셉과 시드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이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일의 가치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경전에 관해 명상하는 것과 계시를 받는 것 사이에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학생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주: 경전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성신이 우리에게 더 자주 진리를 드러내도록 해 주는 값진 경전 공부 방법임을 강조한다.

교리와 성약 76:1~10

충실한 이들에게 주는 약속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단어와 어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부분을 표시해 두라고 해도 좋다. 이 성구에서 묘사하는 구주의 속성들은 경전 공부 방법 중의 하나인 열거를 보여 주는 한 예가 된다. 열거[scripture list]란 “연관된 느낌, 생각, 또는 가르침들의 연속적인 나열을 말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경전에서 이런 열거된 개념들을 찾아볼 때 그들은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복음을 가르치고 배우 [2012년], 23쪽) 교리와 성약 76편에는 많은 열거가 나온다고 짚어 준다.

- 1~4절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5~10절을 조용히 읽으며 충실한 이들을 위한 주님의 약속을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6~10절에 열거된 약속들을 눈여겨보라고 한다. 주님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 열거된 약속들을 표시해 두라고 할 수도 있다.

- 5절에 따르면 구주의 자비와 은혜와 존귀하게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이 성구를 공부하면서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의롭게 봉사할 때, 그분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 문장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다음 질문을 한다.

- 5~10절에 나오는 약속 가운데 여러분은 특히 어떤 것을 받고 싶은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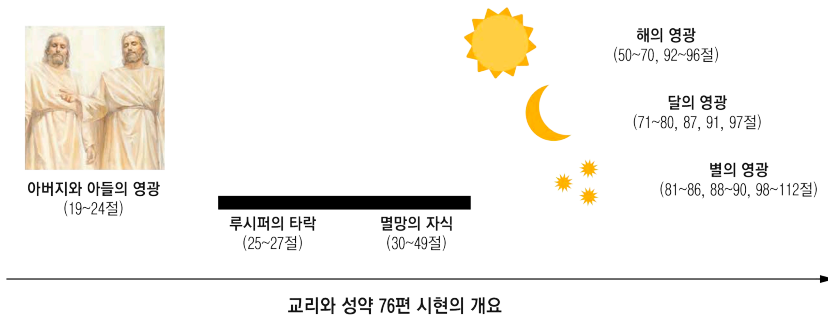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어, 이러한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의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76편 11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에는 “영광에 있어서 ...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의 왕국의 여러 비밀”(114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짚어 준다. 내세에 대해 밝혀 주고,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려 주는 이 계시 덕분에, 우리는 영원의 기이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76:19~24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시현

교리와 성약 76편은 일련의 시현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해 준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이 시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학생들이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수록된 그림을 보여 주거나 각자에게 한 부씩 나눠 준다. 그림의 각 항목은 한 개의 시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해 준다.



그날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열린 시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현이었다고 믿어 준다. 다음 질문들을 보여 주거나 칠판에 적는다.

이 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 진리 가운데 어떤 것을 간증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들이 참됨을 어떻게 아는가?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19~24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칠판에 적힌 질문들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에 학생들에게 그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답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다양한 답이 나오겠지만,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영화롭게 된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의 창조주이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다.**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도 좋다.

교리와 성약 76:25~113

구원의 계획

76편 25~113절은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놀라운 진리를 가르친다고 설명해 준다. 학생들에게 그림에 나열된 여러 묶음의 성구 중 하나를 골라 빠르게 읽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을 짓게 해서, 자신이 읽은 성구에서 찾거나 배운 내용 중에 영감을 주는 부분을 토론하게 한다. 반원들과 함께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우리는 교리와 성약 76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각기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교리와 성약 76편을 통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다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시킨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현은 해의 왕국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50~53절을 읽으면서,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이 나열된 부분을 찾아보라고 한다. 각자 경전에서 이 요건들을 표시하거나 번호를 매겨 보라고 해도 좋다. 학생들이 찾은 내용을 들어 본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를 구속하는 구주의 사명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
- “신앙으로써 승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유혹과 죄를 극복하고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는 것)
-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약속의 성령이기도 한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복음의 구원 의식을 올바르게 받았으며 우리가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증언한다.)

교리와 성약 76편 54~70절에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할 이들이 받게 될 많은 축복이 나열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 부분을 요약해 준다. 학생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고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약속된 축복이나 조건 중에서 자신에게 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

- 충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 중에 여러분에게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 69절은 해의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의 삶에서 구주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 각자는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해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구주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
-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진리를 알 때, 어떻게 우리는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가?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복음 계획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범법은 당연하고 무죄한 것으로 여겨져서 정당화되기까지 할 것입니다. 복음 계획, 곧 진리에 대한 지식만큼 우리를 적으로부터 훌륭히 보호하는 방패는 없습니다!” (*Our Father's Plan* [1994], 27)

- 교리와 성약 76편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
-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보호와 축복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었는가?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76편 114~1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에 주어진 약속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시현에 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의 다음 말씀을 보여 준다.



“만약 제게 허락되었다면, 그리고 백성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시현에서 제게 나타난 여러 왕국의 영광을 지금까지 제가 해 온 것보다 백 배 이상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5:402)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빈칸이 있는 문장들을 칠판에 게시하거나 적는다.

교리와 성약 76편을 다 공부했으니, 이제 나는

_____을/를 안다.

_____을/를 하고 싶다.

_____을/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 문장들을 완성하여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택한 선택들을 떠올려 보고, 계속 그런 선택들을 하면 자신이 교리와 성약 76편에 나오는 해의 왕국에 거하고 그 밖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오늘 수업에서 토론한 진리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76편.
- 엘 톰 페리, “구원의 계획”,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9~72쪽.

제14과

커틀랜드 성전과 신권 열쇠들

소개

1836년 3월 27일, 거의 3년에 걸친 고난과 재정적인 희생 끝에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었다. 헌납식에 뒤이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으며 일주일 후에 하늘의 사자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신권 열쇠들을

회복해 주었다. 신권 열쇠들은 이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교회로 집합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열쇠들을 통해 축복을 받았다.

읽기 자료

- 제프리 알 홀런드,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43~45쪽.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7~100쪽.
- “커틀랜드에서의 영광스러웠던 시절, 1834~1836”,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 (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 제13장, 153~168쪽.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109:1~28

커틀랜드 성전 건축을 위해 희생한 성도들

학생들에게 커틀랜드 성전 사진을 보여 준다.(복음 그림책 [2009년], 117번 참조, 또한 LDS.org 참조) 성도들은 커틀랜드 성전을 짓기 위해 거의 3년 동안 일하며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설명해 준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 집을 지을 능력”(교리와 성약 95:11)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1836년 3월 27일에 성전이 헌납되었다. 조셉 스미스가 계시로 받은 헌납 기도문은 교리와 성약 109편에 기록되어 있다.

학생 몇 명에게 교리와 성약 109편 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전을 지으며 성도들이 치른 희생을 묘사하는 문구에 특히 주목하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들을 한다.

- 성도들의 희생을 묘사하고자 조셉 스미스가 사용한 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이 성도들이 치른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요약문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1833년 6월부터 1836년 3월 사이에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일하며 주님의 집을 건설하여 완공했다. 일부가 돌을 캐내면 다른 이들이 그 돌을 옮겼으며, 다른 사람들은 실을 자아 뜨개질로 일꾼들이 입을 옷을 지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집에서 사용할 커튼을 만들기도 했다. 그들은 “인자께서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곳을 가지시게 하려”(교리와 성약 109:5)고 이 모든 일을 행했다. 존 태너를 비롯한 일부 후기 성도들은 성전 건립을 위해 많은 재산을 바쳤다. 성전 건립 비용은 모두 합해서 4만 달러 정도가 예상되었는데, 당시에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금액이었다. 비용과 희생을 무릅쓰고

성도들은 주님의 이 명령(교리와 성약 95:11 참조)에 순종하려고 각자 자기 일에 충실히 임했다. 커틀랜드 성전은 그렇게 사랑과 순종, 희생, 신앙을 행사한 결과물인 것이다.

- 오늘날 성전 축복을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주님의 일을 행하려고 희생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이 찾아오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본부 청년 회장단 캐롤 비 토마스 자매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 Busath.com

“희생은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시간과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그것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예배 형태 중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키워 줄 수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더 가까이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을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희생: 영원을 위한 투자”,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9쪽)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09편 12~13절과 20~21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이 기도에서 성전의 신성한 본질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에서 자신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나눠 달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는 헌납 기도에서 주님께 구체적인 축복들을 간청했다고 학생들에게 짚어 준다. 학생 몇 명에게 교리와 성약 109편 12~15, 22~28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합당하게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축복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자신에게 와 닿는 중요한 단어들과 문구에 표시하라고 해도 좋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찾아낸 축복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 이 성구들에서 어떤 교리와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분명히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성전에서 충실하게 예배드릴 때, 세상의 사악함에 맞설 더 큰 힘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것을 권고합니다.

“대적이 날뛰는 현재의 상황과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거룩한 성전에서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보호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 [교리와 성약 109편 24~28절의] 이 성구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약의 축복은 모든 세대와 영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이 성구들이 의미하는 바를 반복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해 볼

우리는 성전 예배와 사업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려 하는 사탄의 노력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주님의 집의 청결함과 권능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성전 의식과 성약을 통해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는 보호는 루시퍼의 사악한 계획에 큰 방해가 됩니다.”(“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9~100쪽)

- 성전 예배의 결과로 영적인 권능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 왔는가?

학생들에게 성전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더 많이 받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마음과 정신이 주님에게서 오는 영감에 더 민감해진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교리와 성약 110편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 일라이어스가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서는 커틀랜드 성전을 짓기 위해 성도들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헌납식을 즈음한 며칠 동안 영적인 나타내심을 쏟아 부어 주셨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 (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 제13장(“커틀랜드에서의 영광스러웠던 시절, 1834~1836”), 특히 “오순절” 편(164~167쪽)에 있는 몇 개의 이야기를 짧게 나눈다. 학생들에게 성전 헌납식 일주일 후인 1836년 4월 3일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말해 준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10편 머리말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게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들을 한다.

- 이 시현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 시현을 받기 전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교리와 성약 110편의 첫 열 개 절에는 구주께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 나타나셔서 커틀랜드 성전을 받아들이신다고 선언하신 영광스러운 시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구절들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와 성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찾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이 성구에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 6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나의 모든 백성은 마음으로 기뻐할지이다”라고 선언하셨다. 그 당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구주에 대한 시현에 뒤이어 일련의 시현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이 시현에서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차례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 나타나셨다.

칠판에 다음 내용을 적는다.

모세: 교리와 성약 110:11
 일라이어스: 교리와 성약 110:12
 엘리야: 교리와 성약 110:13~15

반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 칠판에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씩을 배정해 준다. 학생들에게 관련 성구를 찾아보고 회복된 각각의 신권 열쇠에 관해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라고 한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음에 나오는 해설을 통해 자신이 읽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성구를 토론한 후에 한 학생에게 각 해설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모세: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열쇠는 땅의 사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도하는 권세를 부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속의 땅으로 맨 처음 인도한 모세가 회복된 교회에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를 맡기는 사람이 된 것은 적절한 것이다.”(러셀 엠 넬슨, “흠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2쪽 주 28)

일라이어스: “그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일라이어스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1836년 4월 3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성전에서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맡겼다.”(Bible Dictionary, “Elias”)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의 복음’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충실한 자는 영원히 증식하게 된다는 약속을 받게 된다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성약으로, 그 약속은 해의 왕국의 결혼을 통해 그들의 영원한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나 하늘의 수 없이 많은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브루스 알 맥콩키, “왕국의 열쇠”, *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32쪽)

엘리아: “엘리아에게 부여된 인봉 권능은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현세뿐 아니라 영원히 묶어 주는 권능입니다. 이 인봉 권능은 모든 복음 의식에 존재합니다. ... 구원에 속한 모든 의식은 이 권능을 통해 묶이거나 인봉되며, 엘리아의 사명은 와서 그 권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Joseph Fielding Smith, *Elijah the Prophet and His Mission* [1957], 5)

교리와 성약 110편 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 당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맡겨진 것(“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들을 한다.

- 16절을 보면, 이 열쇠들이 회복된 이유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재림이 가까워졌다.)
- 16절을 염두에 둘 때, 그 열쇠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아를 통해 회복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신권 열쇠의 회복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다음 원리를 언급하여 이 열쇠들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요약해 준다. **선교 사업, 영원한 가족, 성전 사업의 열쇠들은 우리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하나님의 신권은 그 열쇠, 의식, 신성한 기원,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그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특유한 것이며, 그만큼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43쪽)

이 신권 열쇠들의 회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신권의 열쇠는 이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지상의 다른 모든 교회와 구별 짓는 요소라고 간증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109:1~28; 110:1~16.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7~100쪽.

제15과

역경을 견디는 힘

소개

1837년부터 1838년까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와 미주리 주 북부의 일부 교회 지도자 및 회원들 사이에 결점 찾기와 논쟁, 배도를 일삼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일부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반대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초기 성도들이 겪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반대에 부딪힐 때에도 의롭게 생활하고 주님의 종을 지지한다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읽기 자료

- “배도의 쓴 열매를 조심하십시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제27장, 315~326쪽.
- 제프리 알 홀런드, “리버티 감옥에서 배운 교훈”(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08년 9월 7일), lds.org/broadcasts.
- 닐 엘 앤더슨, “신앙의 시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39~42쪽.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112:10~15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일어난 배도

다음 낱말들을 칠판에 쓴다. 분노, 기분이 상함, 시기심 학생들에게 이런 감정들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다음 일화를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토머스 비 마쉬가 어떤 일을 통해 칠판에 적힌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는지 찾으라고 한다.

1835년에 사도로 부름받은 토머스 비 마쉬는 곧바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명받았다. 1837년 봄, 마쉬 회장은 사도 중 한 명인 팔리 피 프랫이 자신의 지시 없이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주리에 있던 마쉬 회장은 프랫 장로를 비롯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1837년 7월 24일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만나 다같이 단합하여 선교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자고 청했다. 그러나 그 모임을 한 달 앞두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두 일원인 히버 시 킴블과 올슨 하이드 장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서 선교사 부름을 받고서 영국으로 떠나 버렸다. 마쉬 회장은 자신의 개입 없이 십이사도들이 계속해서 영국으로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것에 마음이 상했음이 분명하다.

- 이 상황에서 마쉬 회장은 칠판에 적힌 감정들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 그런 감정들이 우리 생각과 행위를 지배하도록 두면 어떤 위험이 뒤따르는가? (학생들에게 이런 감정들은 성신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짚어 준다.)

읽던 학생에게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읽어 달라고 한다.

마쉬 회장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고민을 털어 놓고 조언을 구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112편에 기록된 계시를 주셨다.

주님께 이 계시를 받은 1837년 7월 당시, 교회에는 분열과 논쟁, 배도가 일어나고 있었다. 일부 교회 회원들은 교만과 탐욕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공공연히 비난했고 그의 권세를 의심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몇몇 일원을 비롯한 일부 교회 회원들은 조셉 스미스를 교회 회장에서 축출하려고까지 했다.

- 일부 교회 회원들은 어떤 감정들 때문에 진리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공개적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반대하기에 이르렀는가?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12편 10~12, 15절을 읽고, 교회 회원들이 지도자들에게 비판적이 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쉬 회장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주신 권고를 찾으라고 한다.

찾은 것을 발표하게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이 성구에 담긴 권고는 교회 회원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비판적이 되는 것을 피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후, 그들이 다음 원리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감리할 열쇠를 지닌 지도자들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신다.** 학생들에게 15절을 교리와 성약 84편 35~38절과 상호 참조하라고 알려 줄 수 있다. 또한 십이사도들을 훈계하라는 조언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에게 주어졌지만, 이는 교회 회원 개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어 줄 수 있다.)



각 학생에게 이 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유인물 사본을 나눠 준다. 반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커틀랜드에서 일어난 배도: 교회 지도자들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 필요성” 부분을 함께 읽으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그룹별로 그 부분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들을 토론하라고 한다.

제일회장단의 히버 시 김볼(1801~1868)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그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이 과의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다.



“저는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 형제가 자주 언급했던 한 열쇠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배도의 첫 단계는 이 교회와 왕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시작되며, 언젠가 여러분이 그러한 영을 인지할 때, 그러한 영을 지닌 사람은 배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18쪽)

선지자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을 당시 했던 다음 경험을 읽는다.



“커틀랜드에 있을 때 브리검 영 회장은 바로 성전 벽 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일단의 배도자들과 우연히 마주쳤다. 당시의 상황을 영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일어서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은 선지자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소. 당신들이 마음대로 그를 욕하고 중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의 지위는 변함이 없소. 당신들은 스스로 당신들의 권세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 당신 자신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뿐이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79쪽)

교리와 성약 121:1~10, 16~17; 122:1~9

미주리 주 북부에서 불거진 반대

학생들의 그룹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그룹별로 유인물의 두 번째 부분인 “미주리 주 북부에서 불거진 갈등: 반대를 잘 견디는 법을 배우”을 읽으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성도들을 미주리 주 북부에서 쫓겨나게 하고 선지자를 리버티 감옥에 갇히게 한 몇 가지 행위들이 묘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그룹별로 이 부분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들을 토론하라고 한다.

학생들이 유인물을 읽고 나면, 교리와 성약 121~123편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이 거의 끝나 가던 무렵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21편 1~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선지자가 주님에게 드렸던 질문들을 찾으라고 한다.

- 어떤 질문들을 찾았는가?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21편 7~10, 16~17절, 122편 7~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조셉 스미스의 호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어떻게 조셉을 강화하여 적들의 끊임없는 반대에 맞설 수 있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읽은 성구들에서 배운 교리와 원리들을 말해 달라고 한다. (대답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가 필멸의 시간 동안 반대를 잘 견뎌 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의 종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이다. 구주의 속죄에 의지하고 충실하게 인내하신 그분의 모범을 기억한다면 시련 속에서 우리는 강화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엘 앤더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시련이란 본래 어려운 것입니다. 고뇌와 혼란, 잠 못 이루는 밤과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련이 영적 치명타로 직결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련으로 우리가 맺은 성약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의 권속으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

강렬한 불이 쇠를 강철로 바꾸듯이, 극심한 신앙의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함을 유지하면 영적으로 정화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신앙의 시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1~42쪽)

학생들에게 신앙의 시련이나 반대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또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관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눌 시간을 준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112:10~15; 121:1~10, 16~17; 122:1~9.
- 닐 엘 앤더슨, “신앙의 시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39~42쪽.

반대가 몰아치는 시기에 굳건하게 남음

커틀랜드에서 일어난 배도: 교회 지도자들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 필요성

1837년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의 성도들은 재정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좀 더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은행과 유사한 회사를 세우고 그것을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Kirtland Safety Society]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 널리 퍼진 경제 공황의 여파로 전국의 많은 은행들이 파산했다.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도 1837년 가을에 파산했다. 은행에 투자했던 이백여 명은 거의 전 재산을 잃었고, 조셉 스미스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손해가 막심했다.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교회 자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일부 성도들은 그것을 교회 은행 또는 선지자의 은행이라고 여겼으며 그들에게 닥친 재정 문제에 대해 조셉 스미스를 비난했다. 일부 성도들은 심지어 그를 타락한 선지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성도들은 은행의 파산으로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남아 선지자에 대한 신의를 지켰다.

많은 성도들 사이에 결점 찾기와 배도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다. 1838년 6월까지 대략 200 내지 300명이 배도하여 교회를 떠났는데, 여기에는 사도 세 명, 물몬경의 세 목격자,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브리검 영이 그랬듯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이 시험을 받던 그 시기를 잘 헤쳐 나갔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강화해 주셨고, 성도들은 자신의 간증을 충실하게 지켰다. 이 배도의 시기에 교회를 떠난 사람 중 몇몇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교회에 재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록 존슨,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있다.

커틀랜드에서 이런 고투를 벌이는 중에 배도자 몇 명이 조셉 스미스의 암살을 도모했다. 영의 경고를 받아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1838년 1월 12일 밤에 커틀랜드를 떠났다. 암살자들이 여러 날 동안 뒤를 쫓았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1838년 3월 14일, 그들은 가족과 함께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도착했다.

그룹별로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반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반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 다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듣게 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충실하게 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이 선지자를 따랐을 때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았는가?

미주리 주 북부에서 불거진 갈등: 반대를 잘 견디는 법을 배움

1837년과 1838년에, 파웨스트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교회에 반감을 품고 파문된 교회 회원들이 교회와 지도자들을 상대로 고소하고,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1838년 6월에 시드니 리그돈은 “소금 설교[Salt Sermon]”라고 알려진 격렬한 연설을 했는데, 그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성도들 사이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인용하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버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7월 4일, 또 한 번 연설에 나선 시드니 리그돈은 그것이 “전멸시키는 싸움”이 될지라도 성도들은 자신들을 지켜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평화를 탄원하라”(교리와 성약 105:38)는 주님의 지시와는 모순되는 듯했음에도 이 두 연설의 원고가 모두 발행되었으며, 그것은 후기 성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불안을 야기했다.

이 시기에 샘슨 아바드라는 개종자는 대나이트[Danites]라는 습격 조직을 결성하여,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비밀 서약을 하게 했다. 아바드는 그들에게 미주리 주민들을 약탈하라고 지시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바드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제일회장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이후에

진실이 밝혀지고, 아바드는 파문당했다. 아바드의 행동은 교회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지자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는 데에도 일조하게 된다.

1838년 10월에 일부 교회 회원들과 미주리 주 민병대 사이의 전투로 양쪽 진영에서는 몇 명의 전사자가 생겼다. 그 전투에 대한 과장된 보고서가 미주리 주 주지사인 릴번 더블유 보그스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보그스 주지사는 근절령으로 알려지게 된 법령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몬을 적으로 간주하여 근절시키거나 주에서 추방해야 한다."(*History of the Church*, 3:175에 인용됨) 곧, 파웨스트 시는 성도들의 병력보다 다섯 배가 훨씬 넘는 민병대에 포위되었다. 그때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겨우내 그곳에 갇혀 지냈다. 성도들은 미주리 주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그룹별로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우리가 반대를 더 잘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원리들을 이 사건들에서 배울 수 있는가?
- 위기나 역경의 시기에 우리 각자가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왜 중요한가? 미주리 주 북부에서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언행 덕분에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 어떤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제16과

죽은 자의 구속

소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만물을 회복하는 것의 일환으로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회복하셨다. 이 교리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회복되었다.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다.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의 중요성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75쪽)

읽기 자료

- 리차드 지 스코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3~95쪽.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죽은 자의 구속과 예수님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0~13쪽.
-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됨”,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제41장, 469~478쪽.
- Matthew S. McBride, “Letters on Baptism for the Dead: D&C 127, 128,” *Revelations in Context* series, May 29, 2013; history.lds.org.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137편

해의 왕국에 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현

다음 역사적 배경을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1823년 11월, 루시 맥 스미스와 조셉 스미스 일세의 장남인 앨빈 스미스가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앨빈은 25세였으며, 체력이 강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로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모친은 그를 ‘선한 성품을 지닌 훌륭한 청년’이라고 묘사했으며, 그의 ‘숭고함과 너그러움’은 ‘그가 살아 있는 때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했다. ...

자신이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안 앨빈은 형제자매들을 불러모으고 그들 각자에게 말했다. 당시 거의 18세가 다 되고 아직 금판을 받기 전이었던 조셉에게 앨빈은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청년이 되고 판을 받기 위해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거라. 너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을 받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거라. ...’

앨빈이 죽었을 때, 가족은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는 장로교 목사에게 장례식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앨빈은 그 목사의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므로, 목사는 설교에서 앨빈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셉 스미스의 동생인 윌리엄 스미스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 목사는] ... 앨빈이 교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선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버지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01쪽)

- 앨빈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교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 조셉의 가족은 앨빈의 구원에 대해 어떤 우려를 했겠는가?

학생들에게 이 과는 주님께서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점차적으로,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드러내 보이셨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37편 머리말을 눈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이 계시는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기 바로 몇 달 전에 주어졌다고 설명한다. (2013년 판 교리와 성약 137편 머리말에 몇 가지 수정이 있었다고 짚어 줄 수 있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7편 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 보라고 한다. 다음 내용을 토론한다.

- 조셉 스미스는 해의 왕국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이 시현이 주어진 것이 조셉 스미스의 부모가 생존해 있던 시절임을 학생들이 알면 흥미로워 할 것이다. 사실, 조셉의 부친은 계시를 받았던 그 방에 조셉과 함께 있었다.)
- 6절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가 형 앨빈이 해의 왕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이 계시는 조셉 스미스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교리에 대해 배우기 몇 년 전에 받은 것이라고 일깨워 줄 수 있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7편 7~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후기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한 가지 교리를 찾아보라고 한다.

- 하나님의 계획에는 앨빈 스미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침례 의식을 받을 기회 없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할 때, 그들이 다음 교리를 알아내도록 도와준다.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죽었지만 복음을 들었다면 이 지식을 받아들였을 모든 사람은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 이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여러분은 언제 이 교리에서 위안을 느껴 보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이 교리를 이해하여 위안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선교 사업을 다녀왔다면 여러분이 가르쳤던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교리와 성약 124:30~34; 127:5~8; 128:1~18; 138:28~37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이 일리노이 주 나부에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 1840년 8월 15일에 세이모어 브런슨의 장례식에서 죽은 자의 침례에 관한 교리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교회 회원들은 새롭게 밝혀진 이 교리를 배우고서 놀라움과 큰 기쁨을 느꼈다. 그 발표가 있고 몇 달 동안, 성도들은 근처 미시시피 강에서 이 세상을 떠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베풀었다. (가르침: 조셉 스미스, 403쪽;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 [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 251쪽 참조)

- 이 설교는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데 어떻게 이바지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구원 의식 침례는 필멸의 시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집행될 수 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경륜의 시대에 죽은 자의 침례에 대한 교리를 처음으로 밝히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1841년 10월, 일리노이 나부에서 열린 교회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집(나부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수행할 수 있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그 의식 수행을 더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선언했음을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124:29~34 참조) 1841년 11월 8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브리검 영 회장이

미완성된 성전 지하에서 침례반을 헌납하자 교회 회원들은 그곳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27편 머리말을 읽어 보라고 한다. 그 머리말에는 127편이 조셉 스미스가 성도들에게 죽은 자를 위해 집행한 침례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편지라는 점이 설명되어 있다. 약 일주일 후, 조셉은 죽은 자의 침례를 주제로 한 또 다른 편지를 썼으며, 그것은 교리와 성약 128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참조 성구를 칠판에 적는다. (괄호 안의 내용은 적지 않는다. 그것은 교사를 위해 제공된 것이다.)

교리와 성약 127:5~7; 128:8 (의식이 신권 권세로 집행되고 적절하게 기록된다면, 그 의식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교리와 성약 128:6~7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펼쳐지는 책들 가운데에는 대리 의식 기록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128:15, 17~18 (돌아가신 조상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힌 각각의 성구를 읽어 보도록 배정해 준다. 그들에게 우리가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리를 찾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각 성경 구절에서 가르치는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요약해 보라고 한다. 학생 몇 명에게 칠판에 적힌 성구 옆에 그 교리를 적으라고 한다. 교리와 성약 127편과 128편에 기록된 계시는 복음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형, 즉 주님께서는 진리를 한 번에 계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말씀을 주시는 방식으로 밝히신다는 공통점이 설명되어 있음을 짚어 준다.

이 계시를 받은 후 여러 해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죽은 자를 구속하는 그분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고 설명한다. 1918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받았다. 그 시현은 스미스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다 그 해 초에 세상을 떠난 아들, 하이럼 엠 스미스를 잃은 것을 슬퍼하고 있을 때 주어졌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38편 28~37절을 읽으면서 죽은 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에게 밝혀진 진리들을 찾으라고 한다.

- 이 성구들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가? (학생들이 자신이 찾은 진리를 나눌 때, 다음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의로운 사자들은 영육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 이 추가 진리들은 엘빈 스미스처럼 복음 의식을 받지 않고 사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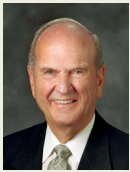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회원인 우리는 조상을 찾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의식을 제공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으며,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히브리서 11:40;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75쪽* 참조) 또한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128:15)“(“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5쪽*)

-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을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의 돌아가신 일가친척들을 위한 구원 의식을 받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모두 완전하게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휘장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가족들이 승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사랑으로 연결된 세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3쪽*)

-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원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스러운 침례 의식에 관한 숭고한 교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빛은 다른 기독교 교회들이 영혼의 운명은 사망 시점의 영적 상태로 결정되며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가르치던 시절에 왔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으면 끝없는 기쁨으로 보상받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구속에 대한 희망 없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

이 영화로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성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사망을 이겼으며, 그분은 합당한 죽은 자들이 대리로 모든 구원 의식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3쪽*)

-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는가?
-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간증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몇몇 학생에게 간증을 나눠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가족 역사 탐구든, 성전 대리 의식이든, 자신이 죽은 자를 구속하는 위대한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오늘날 성전에서 행해진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124:30~41; 127:1~9; 128:1~18; 137:1~10; 138:28~37.
- 리차드 지 스코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3~95쪽.

제17과

나부에서 복음을 가르침

소개

성도들이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보낸 초기 몇 년은 평안과 번영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조셉 스미스는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고유한 몇 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명백하게 설명했다. 이런 교리에는 성전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신성한 잠재력,

그리고 신앙개조에서 가르치는 몇몇 교리들이 포함된다. 이 과는 학생들이 우리가 가진 신성한 잠재력과 더불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읽기 자료

-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제2장, 37~44쪽.
- “나부에서 이룩한 교리적 발전”,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년] 제20장, 251~262쪽.
- “하나님과 같이 됨”, 복음 주제, lds.org/topics.

교수 제언

신앙개조

복음 교리에 관한 중요한 성명서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는 물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시카고 데모크랫* 신문의 편집자, 존 웨스트위스에게 보낼 서한을 작성했다고 설명한다. 선지자는 그 편지에 후기 성도들의 역사적 일화와 간략하게 목록화한 교리적 믿음을 적었는데, 이 목록은 이후에 신앙개조로 알려지게 된다. (이 편지 전문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38~445쪽에 실려 있다.)

학생들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엘 톰 페리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신앙개조]는 교회에서 교리를 언급하는 가장 간략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개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는 방향을 잡는다면, 회복된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핵심을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심오한 방식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개조에 담긴 교리와 원리”,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8쪽)

- 페리 장로가 가르친 내용을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이 자신이 요약한 서술문을 나눌 때, 그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신앙개조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 더 잘 준비될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앙개조를 사용했던 적은 언제인가?

반원들에게 신앙개조를 펴고 눈으로 읽으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여러분은 어떤 신앙개조를 특별히 감사하게 여기는가? 왜 그런가?
- 신앙개조에 담긴 교리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해 주는가?

교리와 성약 124:25~28, 37~42

성전 의식의 회복

성도들이 일리노이 주 나부에 정착한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전을 지으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처럼, 이 일에도 후기 성도들에게 커다란 희생이 요구되었다.

몇몇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24편 25~28, 37~4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도들에게 왜 성전이 필요했는지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찾아보라고 한다. 이 구절들을 분석하기 전에, 이 구절들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모세의 백성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 구주께서 돌아가신 후에 영의 세계에서 그 사업을 조직하실 때까지는 죽은 자를 위한 어떤 것도 행해진 일이 없다. 그런 후에 질문한다.

- 이 구절들에 담긴 구주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부의 성도들에게는 왜 성전이 필요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이 교리를 강조한다. **어떤 구원 의식은 성전 안에서 행해졌을 때에만 주님께 받아들여진다.**)

학생들에게 커틀랜드 성전 건립의 “주요 목적은 권세의 열쇠를 회복하는 데 있었[다.]”(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쿱키 편[1954~1956], 2권 214쪽)고 설명한다. 나부 성전에서 이러한 신권 열쇠들은 산 자를 위한 구원 의식과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행하는 데 사용되었다. 생애 마지막 두 해 동안, 조셉 스미스는 충실했던 몇몇 회원들에게 성전 엔다우먼트를 소개했고, 남편과 아내를 영원히 함께 인봉하는 의식을 알려 주었다.

- 교리와 성약 124편 39절에는 어떤 성전 의식이 언급되어 있는가?

한 학생에게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성전 의식이 왜 중요한지를 잘 들어 보라고 한다.

“[나부에 성전을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와 성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선지자는 공사하는 데 여러 해가 걸리며, 성도들에게는 성전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1842년 5월 4일, 비록 성전이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조셉 스미스는 몇몇 충실한 형제들을 위해 엔다우먼트를 집행했다.

그들은 선지자의 붉은 벽돌 상점 위층의 큰 방에 모였[다]. ...

선지자의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상점 이층에서 ... 스프링필드의 제임스 아담스 장군,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 뉴얼 케이 휘트니와 조지 밀러 감독, 그리고 브리검 영 회장과 히버 시 김볼 및 윌라드 리처즈 장로와 함께 모임을 갖고 그들에게 신권의 원리와 반차를 가르치고, 씻음과 기름 부음과 엔다우먼트에 참여했으며, 아론 신권에 속하는 열쇠에 대해, 그리고 계속해서 멜기세덱 신권의 가장 높은 반차에 속하는 열쇠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예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반차와, 누구든지 장자의 교회를 위해 마련된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계획과 원리,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엘로힘의 면전으로 나아가 그곳에 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루를 보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413~414쪽)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성전 의식의 회복은 왜 필요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그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십이사도 정원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성전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데 필요한 의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을 받으면서 우리는 구주께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전해 주는 축복을 받습니다.”(“성전의 축복”, *리아호나*, 2009년 10월호, 14쪽)

- 성전 의식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학생들에게 앞으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집에서 경배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더 우선시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시편 82:6; 마태복음 5:48; 요한복음 10:32~34; 로마서 8:16~17; 베드로후서 1:3~4; 요한일서 3:2~3; 교리와 성약 93:11~20; 132:20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

성경에는 우리의 잠재력에 관해 기록한 고대 선지자들의 말씀이 적혀 있다고 설명한다. 칠판에 다음 참조 성구를 적고, 학생들에게 그중 몇 개를 읽고 우리의 영원한 잠재력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을 찾으라고 한다. 시편 82:6; 마태복음 5:48; 요한복음 10:32~34; 로마서 8:16~17; 베드로후서 1:3~4; 요한일서 3:2~3.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상호참조하거나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공부해 보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질문한다.

-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이 교리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이 성구들에는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설명하는 어떤 어구들이 나오는가?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에 대한 가르침은 현대의 경전에도 나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93편 11~13, 19~20절, 132편 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 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구주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은혜에 은혜를 받아 성장할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장 의미 있는 설교 중 하나는 184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해졌다고 설명한다. 이 설교에서 선지자는 당시 최근에 사망한 킹 폴렛 형제에게 현사를 바쳤다. 이 말씀은 킹 폴렛 설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모든 학생에게 유인물 “킹 폴렛 설교 발췌문” 복사본을 나눠 준다. 그들에게 발췌문을 읽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나 어구에 밑줄을 그으라고 한다.

킹 폴레트 설교의 발췌문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가르쳤다.



“만약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도 짐승만큼만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유일하게 참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영하시어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비밀입니다. 지금 휘장이 걷힌다면, 그리하여 이 세상이 그 궤도 안에서 운행되도록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형상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며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으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고 대화하듯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0쪽)

“그렇다면 영생이란, 유일하게 현명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영원한 권능으로 둘러싸인 자들처럼 영광 중에 앉게 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왕과 제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단계들에서 시작하여 그 위 단계로 올라가고, 작은 소임에서 큰 소임을 얻으며, 은혜에 은혜를, 승영에 승영을 더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221쪽)

학생들이 이 가르침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의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관해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과정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그들의 신성한 잠재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준다. 한 학생에게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건전한 복음의 목적은 더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 높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가능성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께서 킹 폴레트 설교에서 선언했으며[*History of the Church*, 6:302~317 참조],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강조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지금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장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ed. Clyde J. Williams (1984), 1 참조]

우리의 적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를 비난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개념이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을 주고자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주이며 지배자이십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하시며 항상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상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딸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처럼 위대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옆에 영광스럽게 설수 있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48쪽)

요약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한다.

-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에 관한 이 중요한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
- 오늘 토론했던 내용(신앙개조, 성전 의식,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 주는가?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및 여러분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시간을 준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학생들에게 자신이 기록한 생각 몇 가지를 나누거나 그에 대해 간증해 달라고 권한다. 이 과에서 가르친 교리와 위대한 계시자였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면서 마친다.

학생 읽기 과제

- 시편 82:6; 마태복음 5:48; 요한복음 10:32~34; 로마서 8:16~17; 베드로후서 1:3~4; 요한일서 3:2~3; 교리와 성약 93:11~22; 124:25~28, 37~42; 132:20~24.
-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제2장, 37~44쪽.

제18과

상호부조회와 교회

소개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신앙과 개인의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들을 돕도록 도움을 주어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킨다.” (“상호부조회의 목적”, lds.org/callings/relief-society/

purposes?lang=kor) 이 과를 통해 학생들은 상호부조회의 설립과 그 목적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서 여성들이 받는 독특하고 위대한 기회와 책임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읽기 자료

- 델린 에이치 옥스,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9~52쪽.
- 엠 러셀 블라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4년 9월호, 32~37쪽.
- 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 신앙, 가족, 구제”,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3~85쪽.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25편

에머 스미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시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주요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 교회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과 명료함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여성들이 좋은 면에서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달라 보이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222~223쪽)

-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 의로운 삶을 살면서 행복의 모범이 되는 여성을 알고 있는가? 그런 여성은 그녀를 아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과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상호부조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을 축복하는 방법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25편을 펴고, 주님께서 이 계시에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머리말에서 찾아 보라고 한다. 그런 후 3절을 소리 내어 읽는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에머 스미스는 “택함을 받은 여인”이었다고 설명한다.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첫 번째 모임에서 조셉 스미스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선출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에머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는 “에머 자매가 [상호부조회] 회장에 선출됨으로써 성취되었다.” (*History of the Church*, 4:552~553)고 말했다. 반을 둘로 나눠 절반의 반원들에게는 교리와 성약 25편 4~9절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교리와 성약 25편 10~15절을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에머

스미스에게 주신 일 또는 부름을 찾으라고 한다. 그들은 이 책임을 목록으로 적거나 경전에 표시할 수 있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 이런 책임을 성취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 주님께서는 에머 스미스에게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25편 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이 계시는 에머 스미스에게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에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 (이 계시에서 가르치는 순종 및 다른 복음 교리에 관한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주: 경전을 자신의 경험에 비유해 보는 것은 경전 속 인물들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볼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경전 공부 요령이다.])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 그들이 다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충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한다면,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교사도 이 진리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

상호부조회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교회의 조직을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드러내 주셨음을 설명한다. 이 과정의 일부로, 주님께서는 에머 스미스에게 매우 중요한 부름을 주셨다. 한 학생에게 상호부조회 조직에 관한 다음 요약의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상호부조회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비전이 어떻게 여성들이 초반에 지녔던 비전을 확장시켰는지 잘 들어 보라고 한다.

나부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은 교회에서 자신들만의 조직을 꾸리는 축복을 받았다. 그 조직은 사라 그랜저 김볼을 필두로 몇몇 여성이 성전에서 일하는 남성들에게 줄 셔츠를 만들기 위해 모이면서 시작되었다. 그 여성들은 정식으로 조직을 갖추기로 정하고, 엘리자 알 스노우에게 그 그룹을 위한 규약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그 규약을 보여 주었고, 그는 그 조례가 아주 훌륭하며, 이제 여성들을 더 훌륭한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했다. 1842년 3월 17일, 선지자는 존 테일러 장로와 윌라드 리차드 장로와 함께 붉은 벽돌 상점의 위층 방에서 여성 20명과 함께 모였고, 그곳에서 선지자는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를 조직했다. 에머 스미스가 그 조직의 회장으로 선택되었으며, 이로써 그녀를 “택함을 받은 여인”(교리와 성약 25:3)이라 했던 계시가 성취되었다. 나중에 선지자는 그 조직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영혼을 구하는 것”(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53쪽)이라고 밝혔다.

1842년 4월 28일에 선지자는 그 자매들을 다시 만났다. 그는 그들이 신권의 반차에 따라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후 이렇게 선포했다. “이제 저는 그 열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 넘깁니다. 이 조직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 시점으로부터 지식과 예지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451쪽)

초기 상호부조회 모임 회의록을 josephsmithpapers.org/paperSummary/Nauvoo-relief-society-minute-book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알려 줄 수 있다.

- 상호부조회의 가능성에 대한 선지자의 비전은 어떻게 사라 김볼이 제안했던 원래의 비전을 확장했는가?
- “이제 저는 그 열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 넘깁니다.”라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상호부조회는 신권 열쇠를 지닌 이들이 신권의 지시하에 조직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에 대한 지나 디 에이치 영(1821~1901) 자매와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의 말씀들을 보여 주고, 세 명의 학생들에게 그것을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상호부조회의 목적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상호부조회는 ... 성스러운 신권의 방식을 따라 신권의 관리 아래,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세적인 축복을 베풀고,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잘못을 하는 이들을 제지하고, 더 발전하고, 여성의 동정심과 자애를 보임으로써 여성들이 영적인 힘과 인류 가족의 구축 사업에서 더 큰 선을 성취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거의 반 세기 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처음으로 조직하였습니다.”(Zina D. H. Young, “First General Conference of the Relief Society,” *Woman’s Exponent*, Apr. 15, 1889, 172)



Busath.com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규정했고 ... 자매들에게도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상호부조회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가 이끄는 조직입니다.”(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 성스러운 사업”,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10~111쪽)

“주님의 선지자들은 장로와 대제사에게 그들의 목적과 의무를 꾸준히 가르쳐 왔듯이, 상호부조회 자매들에 관한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권고를 보면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찾고 돕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 가족, 구제*라는 이 짧은 세 낱말은 교회 자매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을 나타내 왔습니다.”(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 신앙, 가족, 구제”,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3쪽)

-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어떻게 전체 교회를 축복하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들을 찾고 도움으로써 구조를 제공하는 곳이다.** 여성들이 이 목적들을 완수할 때 교회 전체에 축복이 돌아온다.)
- 상호부조회가 그 목적을 완수하는 것을 어떻게 접해 보았는가?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여성들이 이렇게 조직되고 나서야 교회는 비로소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451쪽] ...

조셉 스미스뿐 아니라 그 이후 선지자들도 상호부조회 조직이 회복의 일부로서 영감에 따라 마련되었다고 간증했으며, 여성들은 이 조직을 통해 교회 직책에 부름을 받아 서로 봉사하고 온 교회에 축복을 가져다주었다. ...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 조직은 여성과 남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조직하셨고, 신성하게 승인하셨으며, 신성하게 설립되고, 신성하게 제정되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184쪽]라고 말했다.”(*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7쪽)

- 이 말씀은 상호부조회가 복음의 회복에서 맡은 역할에 관해 무엇을 알려 주는가? (각기 다른 표현의 대답들이 나올지 모르나 학생들이 이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상호부조회는 하늘의 영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복의 한 부분이다. 이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 상호부조회 조직이 회복의 한 부분임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 여성들이 교회 부름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여성과 신권

학생들에게 여성들이 신권 직분에 성임되지 않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여성이 신권 직분에 성임되지 않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성들이 교회 부름과 그들의 가정에서 신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다음 말씀 사본을 나눠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여성들이 신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라고 한다.

여성과 신권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을 때 상호부조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 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즉 신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께서 자매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과 같이 구속력 있고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그 권세로 주님께 성스럽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주는 축복과 똑같이 완전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59, 4]

이 의미 있는 설교에서 스미스 회장님은 여성에게도 권세가 주어졌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말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상호부조회는 ‘수많은 일을 행할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시다.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은 신성한 권세로 행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남성 혹은 여성이 성전이나 와드, 지부에서 하는 교회 일은 신권 열쇠를 지닌 이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에 전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 와드 감독의 지시 아래 ...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유익과 현세적인 유익을 돌보며 봉사할 권세를 지니는 이 위대한 조직을 주셨습니다.’ [‘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4~5] ...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여성이 신권 권세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신권 권세가 아니라면 어떤 권세이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이 전임 선교사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별되었다면, 그것은 여성이 신권의 한 기능을 수행할 신권 권세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신권 열쇠를 가진 이의 지시에 따라 교회 조직에서 직책을 맡거나 교사로 성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권

열쇠를 지닌 이로부터 직분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면서 신권 권세를 행사합니다.”(“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0~51쪽)

- 옥스 장로의 말씀에서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의견을 나눌 때, 그들이 이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성별된 여성은 자신의 책임을 수행할 신권 권세를 받는다.**)

이 수업에서 토론한 진리를 학생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들을 둘씩 짝 지어 주고, 다음 질문을 토론해 보라고 한다.

- 교회에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의 기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발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여성의 영향력과 주님의 왕국에서 그들이 제자로서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삶에서 상호부조회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수업 시간에 느낀 것을 실천해 보라고 격려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25편.
- 줄리 비 벅, “상호부조회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 신앙, 가족, 구제”,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3~85쪽.

제19과

영원한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교리

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족을 제정하셨다는 교리를 강조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결혼한 부부는 부활 이후에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주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르면, 승영을 얻는 데에는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교리와 성약

131:2)이 필요하다. 이 과를 통해 학생들은 결혼이 영원히 지속되려면 부부가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을 통해 인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읽기 자료

- 러셀 엠 넬슨, “해의 왕국의 결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92~95쪽.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50~55쪽.
- 조슈아 제이 퍼키, “왜 성전 결혼입니까?” *리아호나*, 2013년 8월호, 56~58쪽.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49:15~17; 131:1~4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주: 이 과를 가르치면서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결혼 및 자녀를 갖는 것과 관련하여 슬픔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음을 유의한다.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다.

학생들에게 1831년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교회에 가입한 레먼 코플리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면서 몸을 흔드는 예배 방식 때문에 흔히 셰이커교로 불리는, 그리스도 재림신자연합회의 회원이었다. 레먼 코플리는 복음을 믿었지만 몇 가지 셰이커교의 가르침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 그는 조셉 스미스를 찾아갔는데, 그 방문의 결과로 1831년 5월 7일에 조셉에게 현재 교리와 성약 49편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이전 판의 머리말에는 이 날짜를 1831년 3월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에 역사가들은 1831년 5월 7일이 더 정확한 날짜임을 확인했다.)

셰이커교도들은 결혼을 거부했으며 완전한 독신생활(성적 관계를 금함)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주님께서 계시에서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정정하시고, 또한 레먼 코플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셰이커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

학생들에게 각자 교리와 성약 49편 15~17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결혼 및 가족의 중요성에 관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질문한다.

- 이 구절들에 따르면, 주님께서 결혼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학생들은 다음 교리를 찾아야 한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의 대답에 다음 진리들이 포함될 수 있다. **남편과**

아내는 자녀를 가지라는 명을 받는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으로서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 이 성구들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결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수년 후에 성도들은 영원한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교리의 중요성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1843년 5월 16일에 조셉 스미스는 일리노이 주 라무스를 방문했다. 선지자는 벤저민과 멜리사 존슨의 집에 머물며 그들에게 영원한 결혼에 관해 가르쳤다. 라무스에서 주어진 선지자의 가르침 중 일부가 교리와 성약 131편에 기록되어 있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1편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 우리는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에 들어가야 한다.** 이 문맥에서 **새롭다**는 단어는 이 성약이 우리 경륜의 시대에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뜻이며, **영원하다**는 용어는 이 성약이 항상 존재해 왔으며 영원을 통해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경전 여백에 이 정의들을 적으라고 해도 좋다.)
- 우리 시대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들어가는가?

남자와 여자는 오직 성전 안에서만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성전 밖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결혼한다”는 말로 서약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결혼이 다 하나님께 영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영원한 결혼이 중요한 이유를 넬슨 장로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찾아 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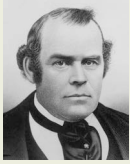
“결혼이라는 주제는 결혼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에 걸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목적은 주님의 사도로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신성한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성전 결혼의 미덕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높고 가장 지속적인 형태의 결혼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

영생을 위한 자격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고 영속적인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32:19 참조] 이것은 성전 결혼이 단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마태복음 19:6 참조]”(“해의 왕국의 결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92, 93쪽)

-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입니다.”라는 문장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 영원한 결혼에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가 포함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오직 결혼 의식에서만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성약을 맺는다. 다른 모든 복음 성약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맺어진다.)
- 영원한 결혼 및 가족에 관련된 회복된 교리는, 사랑이 깃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에 대한 각 개인의 소망을 어떻게 고양할 수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1807~1857) 장로는 이 회복된 교리를 얹으므로 자신이 받은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 학생에게 다음 글을 읽어 달라고 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현세에서 영원까지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 우리가 이러한 애정을 계발할 수 있고, 영원토록 그 애정 안에서 발전하고 증식할 수 있으며, 그 영원한 결혼의 결과로,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도 바로 그에게서였습니다 ... 저는 전에도 사랑했었지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순수하게 ... 한없는 숭고함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 297-98)

이 과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다음을 간단히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부 교회 회원들은 결혼하고 싶어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독신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로마서 8:28)라는 것을 확신한다. 합당하게 남아 있을 경우, 여러분은 이생이든 다음 생이든 언젠가는 영원한 가족 관계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18쪽)

교리와 성약 132:1~21

해의 왕국의 결혼은 승영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131편에 기록된 지침을 주고 나서 약 두 달 후에 교리와 성약 132편이라고 알려진 계시를 구술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2편 머리말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복수 결혼 시행 사안은 다음 과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2편 3~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단어나 문구를 찾아 보라고 한다.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이 성구에는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을 명확히 해 주는 어떤 단어와 문구들이 나오는가?
- 이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보를 멈춘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주: 학생들이 교리와 성약 132편 3~6절에서 방금 전에 해 본 중요한 경전 공부 기술인 핵심 단어와 문구를 찾아내는 기술을 몇 분을 할애하여 짚어 준다. 경전을 공부할 때, 단어와 문구를 찾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3~6절에서는, 다음 문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받으며 순종할”, “순종해야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이러한 몇몇 문구는 성구들에 나오는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는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은 개념들 사이의 관계나 관련성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3절은 준비하고, 받고, 순종한다는 개념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 준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32편 7~8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이생 이후에도 결혼한 부부로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주님 율법의 조건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 이 성구들에 따르면, 결혼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합당한 신권 권세를 통해 성약이 맺어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면, 그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성령에 관한 다음 정의를 학생들에게 소개해 준다. “성신은 약속의 성령이다.(행 2:33) 사람의 의로운 행동, 의식, 성약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것으로 확인하신다. 약속의 성령은 구원 의식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과 연관된 성약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아버지께 증언하신다.”(경전 안내서, “약속의 성령”, scriptures.lds.org)

학생들이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보여 줄 수 있다.



“인봉한다는 것은 인정, 정당화 또는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속의 성령에 의해서 인봉되는 행위는 성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주님께 의해서 승인되는 것이며,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자기가 한 행위로 성령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인정되어 승인받는 인봉은 계약을 맺은 자가 하나님의 승인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의롭게 생활하여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실제로 임하게 된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361~362)

교리와 성약 132편 19~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원한 결혼에 필요한 조건과 그 축복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셨다. 학생들을 두 명씩 짝지어 주고 이 성구들을 공부하라고 한다. 각 조에게 두 가지 목록을 작성하라고 한다. (1) 결혼이 영원하게 되기 위한 조건, (2)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받게 될 축복 완성된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결혼이 영원하게 되기 위한 조건

- 영원한 결혼은 주님의 율법과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 그 결혼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어야 한다.
- 그 결혼은 신권의 열쇠를 지닌 자가 집행해야 한다.
- 영원한 결혼을 한 부부는 하나님의 성약에 거해야 한다.

받게 될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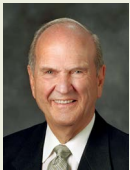
- 영원한 결혼을 한 부부는 첫째 부활에 나아올 것이다.
- 그 부부는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을 상속받을 것이다.
- 그 결혼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완전한 효력이 있을 것이다.
- 그 부부는 천사들의 곁을 지나갈 것이다.
- 그 부부는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명과 영광에 이를 것이다.
- 그 부부는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 계속되는 것이[다.]”(그들의 가족과 후손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증가할 것이다.)
- 그 부부는 신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 부부는 만물 위에 있을 것이며, 모든 권능을 가지고,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학생들이 영원한 결혼에 필요한 조건과 그에 약속된 축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질문들을 토론한다.

- 결혼 성약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중 하나는 남아 있거나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성약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 왜 성전에서 인봉되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결혼을 이룰 수 없는가?
-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보여 준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영생을 위한 준비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세에 의해 결혼할 것과, 그 신성한 성약에 충실히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의 왕국의 결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94쪽)

- 교회 회원이 아닌 누군가에게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세에 의해” 결혼하는 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영원한 결혼과 가족에 관한 교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여러분은 영원한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굳건한 사이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성전 인봉을 더 잘 준비하거나 그 인봉과 연결된 성약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생활에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영원한 결혼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49:15~17; 131:1~4; 132:1~24.
- 러셀 엠 넬슨, “해의 왕국의 결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92~95쪽.

제20과

복수결혼

소개

주님께서 다른 명을 주시지 않는 한,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율법이다.(야곱서 2:27~30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복수결혼의 시행을 회복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월포드 우드럽 회장이 주님으로부터 그 실행을 중단하라는

영감을 받을 때까지 약 반 세기 이상 교회 안에서 시행되었다. 복수결혼은 조셉 스미스와 그것을 시행했던 대부분의 사람에게 크나큰 신앙의 시험이었다.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학생들은 후기에 복수결혼을 시행한 것이 만물을 회복하는 일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읽기 자료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
-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
- “초기 유타에서의 복수결혼과 가족”, 복음 주제, lds.org/topics.
- “성명서와 복수결혼의 종료”, 복음 주제, lds.org/topics.

주: 이 복음 주제에 관련된 자료들은 할당된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분량이 훨씬 더 많다.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칠 때, 이를 염두에 둔다.

교수 제언

야곱서 2:27~30; 교리와 성약 132:1~2, 34~48, 54, 63

주님께서 복수결혼 시행을 계시하시다

1831년에 조셉 스미스가 조셉 스미스 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구약전서 영감역을 작업하고 있을 때, 그는 몇 명의 고대 선지자들이 복수결혼(일부다처제라고도 불림)을 시행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런 선지자에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이 있다. 조셉 스미스는 이 선지자들이 이런 시행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알기 위해 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했다.(교리와 성약 132:1~2 참조) 이에 주님께서서는 현재 교리와 성약 132편으로 알려진 계시로써 그의 질문에 답하셨다. 이 계시가 주어진 날짜는 1843년 7월 12일이지만, 조셉 스미스는 이 편에 기록된 원리에 관한 계시를 1831년부터 받았을 공산이 크다.

학생 몇 명에게 교리와 성약 132편 34~3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수결혼을 시행한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

- 34절에 따르면, 사라는 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내를 주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복수결혼 시행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복수결혼은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을 때에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한 학생에게 야곱서 2장 27, 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다음 원리를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다른 명을 주시지 않는 한,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이다.** 이 성구들에는 또한 주님께서 설명하신 복수결혼 시행의 이유, 즉 충실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주님]을 위하여 자손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는 이유가 나온다고 짚어 준다.(또한 교리와 성약 132:63 참조)

교리와 성약 132편 37~43절에 기록되었듯이, 주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명에 따라서 복수결혼을 시행할 때에는 그것을 간음으로 여기지 않으심을 밝혀 주셨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에서 계명을 받지 않은 채 복수결혼을 시행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 사람은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41절과 54절에 나오는 **멸망당하다(멸망시키다)**라는 단어는, 결혼 성약을 포함하여 자신이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약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라는 의미임을 짚어 준다.(또한 사도행전 3:22~23; 니파이전서 22:20 참조)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32편 40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복수결혼 시행의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

- 40절에 따르면, 주님께서서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만물을 회복하는 것”)

“만물”이라는 단어는 이전 경륜의 시대에 밝혀진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후기에 복수결혼의 율법에 따라 살라는 계명은 만물을 회복하는 것의 일부였다.**(또한 사도행전 3:20~21 참조)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2편 45, 4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조셉 스미스가 무엇 때문에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알아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복수결혼은 교회 회장에 부여된 신권 열쇠를 통해서만 승인될 수 있다.



각 학생에게 이 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유인물 복사본을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복수결혼”의 첫 번째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복수결혼 시행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면, 교회 초기에 그것이 실행된 일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복수결혼 실행은 신앙의 시험이었다

반원 절반에게 유인물에서 “어려운 계명” 부분을 눈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신앙에 대한 시험” 부분을 눈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들을 토론한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이 복수결혼 관례 시행을 주저했던 몇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 조셉 스미스와 루시 워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수결혼의 율법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험 덕분이었는가?

학생 몇 명에게 유인물에서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부분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초기 교회의 복수결혼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인봉**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1840년대에 그 용어에 대해 이해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같지는 않다. 그 당시 인봉을 시행하는 것은 여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며, 사람들은 그것의 어떤 부분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인봉**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떠올리지만, 조셉 스미스와 초기 성도들에게는 인봉이 온전한 의미로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사는 결혼만을 항상 뜻한 것은 아니었다. 복수결혼 실행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사항은 기밀로 유지되었으며, 간단한 역사적 기록으로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

학생들에게 복수결혼 실행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이 과의 마지막에 있는 읽기 과제를 공부해 보라고 한다.

원한다면, 학생들에게 복수결혼을 공부하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복음을 연구하며 따랐던 방식을 기억해야 한다고 상기시킬 수도 있다. 그는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다. 학생들은 또한 인터넷이나 수많은 인쇄 자료 중에는 복수결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교회와 그 역사에 대한 글을 쓰는 일부 작가들은 정황을 무시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진리만을 다루기도 한다. 그런 일부 글들은 신앙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다.

공식 선언—1

주님께서 후기 성도들이 복수결혼의 시행을 멈추어야 한다고 밝히시다

복수결혼의 시행은 성도들이 유타 지역에 도착한 이후 확대되었으나 이후에 이 계시에 따라 중단되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유인물에서 “복수결혼에 대한 반대”와 “두 번째 성명서” 부분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복수결혼을 시행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 초기 성도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학생 몇 명에게 교리와 성약에서 공식 선언—1의 마지막 두 단락과 공식 선언—1에 이어지는 “성명서에 관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세 가지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 중 첫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단락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우드럽 회장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가 가르친 몇 가지 원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주님께서는 교회 회장들이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교회 회장에게 계시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여러분은 다음 인용문을 통해 복수결혼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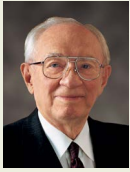


“조지 큐 캐넌 회장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명서가 나오게 된 계시적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교회의 회장단도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도 여러분이 진보하듯이 진보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시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캐넌은 제일회장단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이전에 받은 모든 느낌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성명서와 복수결혼의 종료”, 복음 주제, lds.org/topics)

학생들에게 질문하며 공과를 끝낸다.

- 누군가 여러분에게 후기 성도들이 복수결혼을 시행했었느냐고 묻는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개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 교회 회원이 일부다처제를 행한다면 그들은 이 교회의 가장 큰 징계인 파문을 당할 것입니다. ... 나아가, 한 세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일부다처제를 금하도록 선지자를 통해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일부다처제는 주님의 법에도 어긋납니다. 민법이나 종교법이 [일부다처제를] 허락하는 나라에서조차, 교회는 결혼이 일부일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수결혼을 실시하는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1~72쪽)

여러분이 교회의 현재 관례를 토론할 때 다음 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회 회원들은 이제 복수결혼을 시행하지 않는다. 교회는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에 따라 아내와 사별한 남자가 재혼하는 경우, 다른 여성에게 인봉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회원들에게는 지상에서 한 번 이상 결혼한 죽은 남녀를 대신하여 이들을 합법적으로 결혼할 모든 배우자에게 인봉하는 의식 집행이 허용된다. 다음 생에서 이런 관계에 관한 정확한 성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러 가족 관계는 다가올 생에서 조정될 것이다. 후기 성도들은 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그들의 성장과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

이 과를 마치기 전에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배도한 사람 중에는 오늘날에도 복수결혼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설득하려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밝혀 주신 것에 반대되는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복수결혼의 시행을 금하라고 밝혀셨다. 오늘날 복수결혼의 시행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주님의 종이 아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그는 고대의 선지자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에 순종했다고 간증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2:37 참조)

학생 읽기 과제

- 야곱서 2:27~30; 교리와 성약 132:1~3, 34~48, 54, 63; 공식 선언—1.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

복수결혼을 이해함

복수결혼

“후기 성도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이 주님께서 결혼에 관해 정하신 율법임을 믿는다. 성경 시대에 주님은 몇몇 사람에게 명하여 한 남성과 여러 여성의 결혼, 즉 복수결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1840년대 초반, 주님께서 계시로써 조셉 스미스에게 명하여, 교회 회원들에게 복수결혼을 도입하라고 명하셨다. 복수결혼은

50여 년 동안 교회 회장의 지시하에 일부 교회 회원들이 시행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

어려운 계명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엘리자 알 스노우(1804~1887)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되었었다. 그녀는 선지자 조셉이 자신의 동생 로렌조 스노우에게 복수결혼의 원리에 대해 가르친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선지자 조셉은 복수결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자연적인 결과로 느끼게 된 반감을 극복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정신적 괴로움을 [로렌조 스노우에게] 설명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알았고, 그에게 주어진 전능자의 계명은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해의 왕국의 복수결혼을 시행했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 외에 그를 바라보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편견 및 선입관을 극복하고 싸워 나가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그분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 복수결혼을 전진시켜 실시하지 않는다면, 신권을 빼앗기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할 때까지 그 일을 주저하고 미루었다. 그는 이 간증, 즉 부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간증을 나의 남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었다.”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69~70)

신앙의 시험

복수결혼이라는 원리로 힘들어하던 많은 사람은 그 원리의 참됨을 확인해 주는 영적 증거를 축복으로 받았다.

“헬렌 마르 김볼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는 ‘이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해야 했던 일 중 가장 힘든 시련이었다’고 언급했다 한다. 헬렌은 그것이 비록 그녀의 인생에서 ‘극심한’ 시련 중의 하나이기도 했으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기도 했다고 간증했다. ...

루시 워커는 조셉 스미스가 아내가 되어 달라고 했을 때 겪었던 마음의 혼란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영혼의 모든 감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밤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한 후, 방안이 ‘밝은 햇빛 같은 거룩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고평하고 감미로운 안도감이 내 영혼을 채우고 최고의 행복감이 온몸을 감쌌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많은 여성이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되었지만, 그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후기 성도들은 복수결혼이 시행되던 시대에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과 영원만을 위한 인봉을 구분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에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비롯한 이생 동안의 약속과 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영원만을 위한 인봉은 다음 생에서의 관계만을 가리켰다.

...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된 일부 여성은 후에 그 결혼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반면, 다른 여성들은 그들의 관계가 영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된 여성의 대부분은 인봉될 당시의 나이가 20세에서 40세 사이였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패니 영은 56세였다. 가장 나이가 어렸던 헬렌 마르 킴볼은 ... 15세 생일을 맞기 몇 개월 전에 조셉에게 인봉되었다. 오늘날의 표준으로는 그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이지만, 그 시대에는 합법적이었으며 일부 여성은 10대 중반에 결혼하기도 했다. 헬렌 마르 킴볼은 조셉에게 인봉된 것이 ‘영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 관계에 성적인 관계가 관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조셉 스미스는 ... 이미 결혼한 여러 여성에게 인봉되었다. 이 인봉에 관해서는 몇몇 여성이 자신들의 인봉은 영원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을 뿐, 이 여성들이나 조셉이 설명한 내용은 거의 없다. 다른 여성들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아 그들의 인봉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영원만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행위에 관해서는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다. 이런 인봉은 교회 내 조셉의 가족과 다른 가족 사이에 영원한 유대 또는 연결 고리를 만드는 길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런 결속 관계는 부모로부터 자녀로 수직적으로, 한 가족으로부터 다른 가족으로 수평적으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이런 영원한 유대는 개인의 성전 결혼을 통해 성취되며, 이들은 자신의 친가족에게도 인봉된다.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

선지자의 죽음 이후, 이 세상에서는 그와 관계가 없었던 많은 여성이 그에게 인봉되었다.

복수결혼에 대한 반대

미합중국의 많은 종교 지도자 및 정치 지도자들은 복수결혼을 비도덕적이며 미개한 것으로 생각하며 반대했다. 후기 성도들은 대중 연설, 서적, 잡지, 신문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미합중국 의회는 회원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 총액을 제한하여 교회에 재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관리들은 한 명 이상의 처를 둔 남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에게서 투표권과 가정에서의 사생활 보장권 및 기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다.”(*우리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약사* 1996, 97쪽) 1890년까지, 수백 명의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체포와 수감 생활을 피하려고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가정이 압박감과 슬픔, 가난,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았다.

복수결혼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세상은 그들을 조롱했지만, 수많은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그 관례를 옹호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밝히신 것임을 안다고 간증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며 성도들이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문제에 관한 주님의 인도를 구했다. 1889년에 우드럽 회장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수결혼의 원리를 가르치는 일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1890년까지 소수의 복수결혼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우드럽 회장의 권고에 반하는 것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여전히 복수결혼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런 보고서는 교회에 대한 더 심한 반대를 불러왔다. 1890년 9월에 우드럽 회장은 교리와 성약에 공식 선언—1로 알려진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성명서

“그 성명서[공식선언—1]에는 미국의 법을 따르겠다는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의향이 표명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국가들의 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정착지가 설립된 이래로 교회 지도자들은 그 나라들에서 복수결혼을 시행했으며, 1890년 10월 이후에도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복수결혼이 조용히 시행되었다. ... 이례적인 상황으로, 1890년과 1904년 사이에 미국에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새로 복수결혼을 행했는데, 미국 내에서 그런 결혼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성명서와 복수결혼의 종료”, 복음 주제, lds.org/topics)

“190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두 번째 선언으로 알려진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추후에 복수결혼을 시행하면 파문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었다.”(“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

제21과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소개

조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 조셉 스미스가 살해당할 당시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 장로는 (아마도 한 명 이상의 성도들과 함께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선지자를 칭송했다.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35:3) 이 과는 학생들이 선지자의 사역이 어떻게 고대 예언들을 성취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에서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구원에 기여한 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읽기 자료

- 닐 엘 앤더슨, “조셉 스미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8~31쪽.
- 테드 알 콜리스터, “조셉 스미스—회복의 선지자”,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35~37쪽
- “교리와 성약 135:3. 조셉 스미스는 예수를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했음”,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1), 349쪽)

교수 제언

니파이후서 3:1~21

조셉 스미스의 예임된 사명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한다. 학생 몇 명에게 언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지 간단히 말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선지자 니파이는 리하이가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몇 가지 권고를 기록했다고 말한다. 이 권고는 니파이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애굽의 요셉이 리하이의 가족과 후기에 관해 예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리하이는 낫쇠판을 읽고 이 예언들에 대해 알게 된 것 같다. 니파이후서 3장에서 우리는 애굽의 요셉이 후기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해 예언했음을 배우게 된다. 한 학생에게 니파이후서 3장 6~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애굽의 요셉이 조셉 스미스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애굽의 요셉이 조셉 스미스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 혹은 어구는 무엇인가? (대답에는 반드시 “뛰어난 선견자”, “높이 여김을 받으리라”, “내 눈에 크게 하리니”, “모세와 같이 크게 되리니”가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전에서 이 용어들에 표시하라고 해도 좋다. 또한 6~9절 옆 여백에 조셉 스미스라고 적어 넣을 수도 있다.)
- 조셉 스미스는 어떤 면에서 모세와 애굽의 요셉과 같았는가?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창세기 50:24~35[경전 안내서에 있음] 참조)

- 7~8절에 따르면, 애굽의 요셉은 조셉 스미스의 사역에 관해 어떻게 예언했는가? (이 진리를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이해시킨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일으키시어 그분의 성약과 그분의 사업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게 하실 것이다.**)

학생들을 들씩 짝을 지어 니파이후서 3장 7, 11~15, 18~21절을 공부하게 한다. 그 성구들에서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사업이 성취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라 나오는지 짝과 함께 목록을 작성해 보라고 한다. 성구에서 찾은 중요한 문구들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목록을 만들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몇몇 조에게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대답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이다[7절], 물문경을 출현시킬 것이다[13, 18~21절], 사람들에게 성령의 참됨을 확신시킬 것이다[11절], 강하게 될 것이다[13절],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15절])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오래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하나님 아들의 총만한 신권의 권세와 열쇠를 받을 자는 조셉 스미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 주님께서서는 조셉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부를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 아담의 시대까지의 그들의 조상을 살펴보셨습니다. 아담부터 조셉 스미스 출생까지의 가계와 혈통을 꼭 살펴보셨습니다. 결국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이끌어 갈 자로 전세에서 예임되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343쪽)

학생들이 예임되었던 조셉 스미스의 사명의 참됨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을 토론한다.

- 여러분이 조셉 스미스가 전세에서 회복의 선지자가 되도록 예임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교리와 성약 135:3

조셉 스미스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학생들에게 몇 개의 문장만으로 조셉 스미스에 대해 말하거나 간증해야 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간증할 것인지 말해 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의 죽음 이후 조셉 스미스에게 바치는 헌사가 쓰였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를 위해 교리와 성약의 일부로 보존되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5편 3절의 첫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질문한다.

- 이 문장에서 조셉 스미스에 관한 어떤 진리가 선포되었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야 한다.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업적과 공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들에게 교리와 성약을 훑어보고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토론했던 공과들을 되짚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축복과 교리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 작성한 목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지를 그룹 구성원들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의 대답을 요약하기 위해,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한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준다. 한 학생에게 그것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라고 한다.



“구원과 승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능과 열쇠, 가르침과 의식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책이나 성지순례 등이 아무리 지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명시하셨듯이 구원은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조셉 스미스—회복의 선지자”,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37쪽)

학생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어 조셉 스미스의 사역이 어떻게 그들의 구원에 기여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역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

교리와 성약 122:1~2; 조셉 스미스—역사 1:33

조셉 스미스의 이름이 “모든 나라 ...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리라]”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가 성취한 모든 선에도 불구하고, 그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특히 그의 생애 말년에는 더욱더 그러했다고 말해 준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또한 조셉의 삶의 이런 측면을 예견했었다.(예를 들어, 제3니파이 21:10 참조) 한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33절에서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그를 반대할 사람들에 관해 말한 내용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다른 한 학생에게는 교리와 성약 122편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다음 질문을 한다.

- 사람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보일 반응과 관련하여 이 두 구절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이 요약한 내용을 발표할 때, 그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조셉 스미스를 조롱하겠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그의 사역이 가져온 축복을 구하고자 할 것이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사망한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토록 많은 비평가와 적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회복에 대한 간증은 전적으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선지자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끊임없이 조셉 스미스의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빌 엘 앤더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 중 다수는 하늘에서 온 존재가 지상의 인간과 대화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해 준 금판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불신 때문에 조셉의 간증을 즉각 거부하고, 소수는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생애를 깎아내리고 그의 성품을 모략하기까지 합니다.

한때는 조셉을 존경했다가 확신을 저버리고 선지자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더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변절한 사람의 눈을 통해 교회를 알아보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알려고 유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변절한 사람은 자신이 떠나온 곳에 대해서보다는 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All Hell Is Move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8, 1977), 3; speeches.byu.edu] ...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커질 것입니다. 반쪽짜리 진실과 교묘한 속임수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 진리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조셉 스미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9, 30쪽)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조셉 스미스가 사망한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교회의 적들은 여전히 그의 명성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되는 것일까?
-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닐 엘 앤더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진지한 탐구자들은 선지자 조셉을 통해 주님의 사업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회복된 복음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복음 7:18, 20]

이런 설명도 설득력이 있지만, 진지한 탐구자들은 전적으로 이것에만 의존해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저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과 성품에 대한 영적인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조셉 스미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9~30쪽)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간증할 기회를 준다.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어떤 면이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적 사명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는가?
-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에 보탬이 되었던 어떤 경험들을 해 보았는가?

제4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밋세바 더블유 스미스(1822~1910)와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면서 마무리한다. 스미스 자매와 영 회장은 모두 살아 있는 동안 조셉 스미스와 알고 지낸 사이였다. 한 학생에게 이 말씀들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저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몰몬경을 읽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책임을 알았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와 마주하여 서 있음을 알았고, 그의 권세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밋세바 더블유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34쪽에 인용됨)



“제가 조셉 스미스를 알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성임하셔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열쇠와 권능을 주신 선지자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5쪽에 인용됨)

학생들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자신의 간증을 살펴보고, 그 간증을 개인적으로, 혹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간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실행해 보라고 격려한다.

학생 읽기 과제

- 니파이후서 3:1~21; 교리와 성약 122:1~2; 135:3; 조셉 스미스—역사 1:33.
- 닐 엘 앤더슨, “조셉 스미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8~31쪽.

제22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

소개

교회 안팎의 반대자들은 결국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를 야기했다. 그들의 죽음은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강력하게 인봉하는 것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삶과 순교를 공부하면서, 후기에 주님의 복음을 회복한 조셉 스미스의 사역을 통해 자신들이 받게 된 주님의 수많은 축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읽기 자료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7~70쪽
-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년], 제22장 “순교”, 273~285쪽.
- “순교: 선지자가 자신의 피로 간증을 인봉함”,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제46장, 529~540쪽.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135:4~5; 136:36~39

적들이 조셉 스미스의 죽음을 피하다

카테지 감옥의 사진을 보여 준다. 학생들에게 1844년 6월 27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축복사였던 그의 형 하이럼은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 있는 이 감옥에서 순교했다고 설명한다. 사망할 당시 조셉 스미스는 38세, 하이럼은 44세였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6편 36~3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의 삶과 그가 수행한 업적을 어떻게 요약하셨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주님께서선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삶과 업적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학생들의 대답에는 다음 진리가 포함될 수 있다. **조셉 스미스는 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무죄하게 죽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했다.**)

학생들이 선지자의 죽음이 불러온 몇 가지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성도들은 일리노이 주에서 약 3년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지만, 1842년에 다시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말해 준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성도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두려워한 일리노이 주의 주민들이 있었다. 나부의 경제적 성장을 부러워하는 이들도 있었고, 나부 시 정부와 민병대의 힘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일부



독특한 몰몬 교리와 관례를 오해하기도 했다. 교회 안팎의 반대자들은 합심하여 선지자와 교회에 대항해 싸웠다.



각 학생에게 이 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유인물 복사본을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반대”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선지자의 사망 당시 유효했던 법률에 따르면, 인쇄 기기를 파괴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준다.



“시와 주 정부의 조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합중국 헌법에 추가된 수정안은 1868년에 채택되었고, 1931년까지는 연방 정부 법안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 우리는 전임자들이 취한 행동을 우리의 시대가 아닌 그들이 살던 시대의 법과 계명과 상황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조셉, 의로운 자이며 선지자”,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72~73쪽)

- 우리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해 고려할 때, 옥스 장로의 말씀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나부 시 의회 의원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었지만, 시 의회가 인쇄 기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그 의원들은 선출된 시민의 중으로서 자신들의 공식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는 점을 짚어 줄 수 있다.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인쇄 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시 의회가 “소란 피우는 행위를 ... 제재” [*History of the Church*, 6:432])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무고하게 기소된 조셉과 하이럼”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또 다른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5편 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조셉 스미스가 카테지로 가면서 남긴 예언을 찾아보라고 한다.

-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교리와 성약 135:4)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이럼 스미스는 카테지 감옥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이터서 12장 36~38절을 읽고, 그 면을 접어 놓았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이터서의 이 구절들이 직접 인용된 교리와 성약 135편 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왜 이 성경 구절이 하이럼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의미 있는 단어나 문구에 표시하라고 제안할 수도 좋다.

- 하이럼이 투옥되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터서의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나 문구가 그에게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나의 옷이 너희의 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음을 만인이 알게 되리로다”라는 문구는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이 문구의 의미를 알아내도록 5절을 야곱서 1장 19절 및 모사야서 2장 27절과 상호참조하라고 할 수 있다. 구절들을 서로 상호참조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경전 공부 요령이다.)

자신들이 모든 역량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과 의무를 성취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조셉과 하이럼이 어떻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모범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35:1~3, 6~7

카테지 감옥에서의 순교와 조셉 스미스에게 바치는 헌사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5편의 편 머리말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최근의 연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머리말은 1981년 판과 2013년 판 경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학생 몇 명에게 돌아가며 교리와 성약 135편 1~2절과 유인물 “카테지 감옥에서의 순교”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어 달라고 한다.

- “이 책과 물몬경의 증거를 인봉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생각을 나누면, 다음 정의를 칠판에 적어도 좋다. “인봉”한다는 것은 간증과 같은 어떤 것을 영원히 세운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 정의를 1절 옆에 적어 두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35편 3, 6~7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를 발표한 이 내용에서 어떤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에 대한 이 발표에서 어떤 진리를 배웠는가?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한 많은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다.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나온 것이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역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바치는 헌사” 부분에 나오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조셉 스미스의 가까운 동료들이 그를 선지자요 “고결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여겼음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이 과를 마무리한다.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며칠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에 대한 간증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라고 격려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135:1~7; 136:36~39.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7~70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반대

1844년 6월에 교회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다. 일리노이 주의 일부 주민들이 성도들을 주에서 몰아낼 논의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일부는 선지자를 죽일 음모를 짜고 있었다.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반대에 공모하는 자 중 일부는 교회에서 배도한 이전 회원들이었다. 1844년 6월 7일에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던 윌리엄 로와 다른 배도자들은 *나부 익스포지터*라는 신문의 창간호를 발행했다. 이들은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악화시키기 위해 이 신문을 이용하여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모략했다.

당시에 나부 시장이었던 조셉 스미스와 나부시 평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이 선동적인 신문이 시에 반대하는 폭도의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지했다. 그들은 그 신문을 사회적 방해물로 선포하고 *나부 익스포지터* 인쇄기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무고하게 기소된 조셉과 하이럼

“시장과 시의회가 취한 조치[*나부 익스포지터* 파기]의 결과로, 일리노이 주 관리들은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 그리고 다른 나부 시 관리들에 대해 근거 없는 반란죄를 뒤집어씌웠다. 일리노이 주 토머스 포드 주지사는 그들에게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 있는 법정에서 배심원들 앞에 서도록 명령했으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조셉은 카테지로 갈 경우, 자신의 목숨이 자신을 위협하는 폭도들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폭도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뿐이라고 믿고, 조셉과 하이럼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서부로 떠나기로 했다. 6월 23일, 그들은 미시시피 강을 건넜으나, 그날 늦게 나부에서 온 형제들이 조셉을 찾아 말하기를 만약 그가 카테지 관리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군대가 도시를 침공할 것이라고 했다. 선지자는 정부 관리들과 폭도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투항하기로 했다. 6월 24일,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부 시 관리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카테지로 간 후, 다음 날 카테지에 있는 군 관리들에게 자신 투항했다. 형제들이 첫 번째 고소와 관련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후, 그들은 일리노이 주에 대한 반역죄로 거짓 고소되어 다시 체포되었으며, 카테지 감옥에 투옥되어 심리를 기다렸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중 선교사로 떠나 있지 않았던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 장로는 자진해서 그들과 함께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29~530쪽)

카테지 감옥에서의 순교

1844년 6월 27일, 조셉에게는 한 방문자에게서 받은 권총 한 자루가 있었다. 폭도들이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쳐들어오려 했으며, 하이럼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다 총상을 입고 숨졌다. 문 쪽으로 달려가 문틀 근처에 선 조셉이 복도 쪽으로 권총을 발사했다. 그는 총알 여섯 개 중 세 발만을 발사했으며, 이에 몇몇 폭도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자 폭도들은 반쯤 닫힌 문으로 총구를 밀어넣었고, 존 테일러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들의 총을 밀어내려 했다.

문 입구에서 물리적 충돌이 심해지자 존 테일러는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입구에서 날아온 총탄이 그의 허벅지에 날아와 박혔고, 밖에서 누군가가 발사한 총탄도 그를 명중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창문 옆 침대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세 발을 더 맞아 부상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한편, 총구가 문을 밀고 들어오자 윌라드 리차즈는 지팡이로 총을 쳐내기 시작했다.

그때 조셉 스미스는 존 테일러가 뛰어내리려던 그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다. 윌라드 리차즈가 문에서 폭도들을 막고 있는 동안, 선지자는 열린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그 순간, 감옥 안팎에서 날아든 총알이 선지자를 명중시켰다. 그는 창 밖으로 떨어지며 “오 주 나의 하나님!”이라 외쳤고, 이내 땅으로 고꾸라졌다. 감옥 안에 있던 폭도들은 조셉이 죽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누군가 “물문들이 물려온다!” 하고 소리치자 폭도들은 모조리 도망쳤는데, 사실 카테지 감옥으로 오고 있는 교회 회원은 아무도 없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바치는 헌사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조셉을 잘 알고 교회 지도자로서 그와 가까이 있어 본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고 선지자로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형 하이럼은 그의 곁에서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살해되었을 때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앞에서 증거합니다. 조셉은 선하고, 존경할 만하고, 고결한 사람이며, ... 그의 사적, 공적인 인물됨은 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죽었습니다.’(*The Gospel Kingdom* [1987], 355; 또한 교리와 성약 135:3 참조)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조셉 스미스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지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히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살았던 또는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459) (“조셉, 의로운 자이며 선지자”,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73쪽)

제23과

회장단의 승계

소개

조셉 스미스는 생애 마지막이 가까워져 오자 이 경륜의 시대의 신권 열쇠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부여했다. 선지자가 순교한 후, 1844년 8월 8일에 열린 모임에서 많은 성도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던 브리검 영이 교회를 이끌 것임을 확인하는 영적 현시를 받았다.

학생들이 교회의 회장단의 승계와 관련된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이 될 각 사람을 직접 선택하시고 준비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읽기 자료

-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 학생 교재(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10), 제7장, “제일회장단 계승”, 32~36쪽.
-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년] 제23장 “하나님의 왕국을 짊어진 십이사도”, 286~296쪽.
- Brent L. Top and Lawrence R. Flake, “‘The Kingdom of God Will Roll On’: Succession in the Presidency,” *Ensign*, Aug. 1996, 22–35.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107:33; 112:30~32

사도들이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을 지닌다

다음 질문을 한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다른 조직에서 지도자를 뽑는 방법과 어떻게 다른가?

학생들에게 이 과에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교회 지도력의 이동에 관해 살펴볼 것이라고 알려 준다. 선지자는 죽음을 몇 년 앞둔 시점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관련된 계시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07편 33절과 112편 30~32절을 공부하면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지닌 신권 권세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찾아 보라고 한다.

- 주님께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권세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학생들에게 다음 원리를 확실히 이해시킨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이 경륜의 시대의 신권 열쇠를 지니고 있으며, 십이사도는 제일회장단의 지시하에 직분을 수행한다.**)



각 학생에게 이 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유인물 복사본을 나눠 준다. 조셉 스미스는 생애 마지막의 몇 달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자주 만나서 그들이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지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1844년 3월, 십이사도들과의 모임”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최한 사도 및 교회의 여타 지도자들과의 모임에 관한 간단한 일화로서, 당시 사도였던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회고라고 설명해 준다.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열쇠가 부여된 사건은 그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는 시기를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신권 열쇠를 받았다.)
-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신권 열쇠들을 사도들에게 부여하는 일은 왜 조셉 스미스에게 중요했는가? (당시, 조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의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닌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 열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천사들이 다시 지상에 와야 했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124:127~128

브리검 영이 조셉 스미스의 뒤를 이어 교회 회장이 되다

십이사도 정원회가 처음으로 조직된 1835년 당시에는 나이에 따라 선임 순서가 결정되었다. 당시에는 토마스 비 마쉬가 가장 나이가 많다고 여겨져서, 그를 선임 사도로 생각했었다. (실제로는 데이비드 더블유 패튼이 사도 중 가장 연장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24편 127~12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1838년 10월에 마쉬 회장은 배도하여 교회를 떠났고, 데이비드 더블유 패튼은 사망했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이 성구에 설명된 대로, 브리검 영이 선임 사도가 되었다. 처음 사도를 선택했던 이후로,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연공서열은 성임 날짜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1844년 6월 27일에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가 순교했을 때,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를 제외한 십이사도는 미합중국 동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3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사도들은 모두 비보를 접하고서 서둘러 나부로 돌아왔다. 도착 후, 사도들은 누가 교회를 인도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교회 회원들 사이에 혼란이 있음을 알게 됐다. 교회 회원 중 상당수는 지도력이 마땅히 십이사도 정원회의 몫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후로 몇 달에 걸쳐 교회를 인도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 주장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두 명의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시드니 리그돈의 주장”, 그리고 “제임스 스트랭의 주장”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내용을 잘 들어 보면서, 당시 나부에 있었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사람들에게 의해 제기된 주장들이 정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시드니 리그돈이 제일회장단 일원이었지만, 조셉은 그에게 신권 열쇠들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짚어 주어야 할 수도 있다.)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1844년 8월 7일”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과 함께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사도 직분의 열쇠에 대한 브리검 영의 간증은 왜 중요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본 후, 다음 교리를 칠판에 적는다. **사도들은 교회 전체를 감리하는 데 필요한 신권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1844년 8월 8일 오전 10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주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도록 당신이 직접 지명하신 사람을 성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축복을 내려 주셨는가?

-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본 후,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우리는 성신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
- 언제 여러분은 현재의 교회 회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영의 증거를 느껴 보았는가?

8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 모임에서는 브리검 영과 다른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1844년 8월 8일 오후 2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가 사망했을 때, 선임 사도였던 브리검 영은 즉시 모든 신권의 열쇠들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선지자가 순교한 이후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가 브리검 영의 인도 아래 교회 전체를 감리했다. 그런 후 1847년 12월 5일에 브리검 영이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었으며, 제일회장단이 재조직되었다.

시드니 리그돈은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로 가서 사도, 선지자, 제사 및 왕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였다. 그 교회는 1847년에 몰락했다. 회장단에 관한 제임스 스트랭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에도, 기존의 십이사도 중 세 명인 윌리엄 이 매클렐른, 존 이 페이지, 윌리엄 스미스가 그를 지지했다. 스트랭은 반감을 품은 자신의 추종자에게 1856년에 살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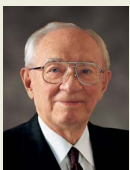
학생들이 오늘날 교회 회장단의 승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사망한 후 일어났던 일을 묘사한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준다. 한 학생에게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곳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당혹감도,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임 사도가 교회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모임에서, 토마스 스펜서 몬슨은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되었습니다. ... 이제, 경전에 나와 있듯이, 그분은 이 지상에서 모든 열쇠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도들 모두 그 열쇠를 지니고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한 분은 부름 받고 성임되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이 됩니다.” (“십이사도”,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83쪽)

- 교회 회장의 사망 이후에, 항상 누가 교회의 다음 회장이 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단의 회장인 선임 사도)

어떤 학생들은 교회 회장이 교회를 감리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언제 받는 것인지 궁금하게 여길 수도 있다. 모든 사도는 처음 사도로 성임될 때 모든 열쇠를 받는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러나 그 열쇠를 행사할 권세는 교회 회장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권세를 선임 사도가 행사하게 되며,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와 동료들에 의하여 선지자와 회장으로 지명받고 성별받고 성임됩니다.” (“와서 참여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51쪽)

-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이 교회 회장의 사망 이후에도 큰 문제 없이 전진해 나가리라는 것을 알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오늘날 교회의 회장과 제일회장단 보좌들,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조셉 스미스가 브리검 영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에게 부여했던 것과 똑같은 신권 열쇠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간증하면서 이 과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았다는 간증을 어떻게 얻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오늘 토론했던 진리에 관한 간증을 얻거나 강화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라고 권유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107:33; 112:30~32; 124:127~128.
- 보이드 케이 팩커, “십이사도”,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83~87쪽.

교회 회장단의 승계

십이사도와의 모임, 1844년 3월

월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 그는 세 시간가량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은 타 버릴 듯한 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호박(보석의 일종)같이 맑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의 충만함을 설명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생명과 구원에 대한 모든 열쇠, 모든 권능, 모든 원리를 제 머리 위에 인봉하셨습니다. 이 여러 원리들과 신권과 권능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 지상에 세우신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십이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머리 위에 인봉하신 모든 열쇠, 모든 권능, 모든 원리를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인봉했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왕국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임을 맡아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32쪽에 인용됨)

시드니 리그돈의 주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은 1844년 8월 3일에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나부에 도착했다. 8월 6일 화요일에 그는 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수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 모임을 열 것을 요청했다. 시드니 리그돈은 미합중국 동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모든 열두 사도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임을 열어, 교회 회원들이 그의 지위를 교회의 수호자로서 인준하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윌라드 리처즈 장로와 팔리 피 프렛 장로의 노력 덕분에 모임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나부로 돌아온 뒤인 1844년 8월 8일 목요일로 옮겨졌다.

시드니 리그돈은 자신이 이전에 조셉 스미스를 위한 대변자로서 부름 받고 성임받았기 때문에(교리와 성약 100:9 참조), “교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감리하는 것”(History of the Church, 7:229)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스트랭의 주장

조셉 스미스가 사망한 후, 1844년 2월에 침례 받았던 제임스 스트랭은 자신을 계승자로 임명했다고 언명하는 조셉 스미스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편지는 위조된 것이었지만, 조셉 스미스의 서명이 포함된 것처럼 보였고, 스트랭이 그것을 보여 주자 몇몇 회원들이 속아 넘어갔다. 또한 스트랭은 자신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그 천사가 열쇠를 주었다고 말했다.

1844년 8월 7일

시드니 리그돈이 나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존 테일러, 윌라드 리차즈, 팔리 피프렛,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가 도착해 있었다. 브리검 영을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도들은 1844년 8월 6일 저녁에 나부로 돌아왔다. 다음 날인 8월 7일에 사도들은 존 테일러의 자택에서 평의회를 열었다. 그날 오후 늦게, 십이사도들과 고등평의회, 대제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 회장은 시드니 리그돈에게 성도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시드니 리그돈은 대담하게 자신이 시현을 보았으며 어느 누구도 교회 회장으로서는 조셉 스미스를 승계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을 교회 회원들의 수호자로서 임명할 것을 제의했다.

시드니 리그돈이 연설을 끝낸 후, 브리검 영(1801~1877)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했다.



“저는 누가 교회를 인도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께 이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점만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게는 열쇠와 그 주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얻을 방법이 있습니다. ...

선지자 조셉은 사망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사도 직분에 속한 모든 열쇠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집단도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조셉과 십이사도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조셉은 십이사도에게 ‘내가 기초를 놓았으니 여러분이 왕국을 세우십시오. 왕국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History of the Church*, 7:230)

1844년 8월 8일 오전 10시

1844년 8월 8일 오전 10시에 나부의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시드니 리그돈의 주장을 들으러 함께 모였다. 그는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성도에게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며 왜 자신이 교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몇몇 사람들은 시드니 리그돈의 말씀이 따분했다고 묘사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보다는 선지자를 애도하기 위해 나부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날 오후 2시에 지도자와 회원들의 모임이 열릴 것이라고 공지했다. 나중에 몇몇 교회 회원들은 브리검 영이 말씀할 때 그 모습과 목소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모습과 목소리로 변한 것을 보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에밀리 스미스 호이트는 이렇게 회상했다. “설명하는 방식, 얼굴 표정, 목소리가 내 영혼을 전율하게 했다. ... 나는 조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자주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사람이 조셉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조셉이 아닌, 브리검 영이었다.”(Lynne Watkins Jorgensen, “The Mantle of the Prophet Joseph Passes to Brother Brigham: A Collective Spiritual Witness,” *BYU Studies*, vol. 36, no. 4 [1996–97], 142에 인용됨)

월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적었다. “제가 그를 제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조셉 스미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를 설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7:236)

1844년 8월 8일 오후 2시

이 자리가 중요한 모임이 될 것을 알았기에, 오후 2시가 되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브리검 영은 시드니 리그돈이 제안한 수호자 직분과 그가 이전 2년 동안 조셉 스미스와 소원했던 일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리그돈 회장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건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습니다.

십이사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브리검의 무릎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입술이 떨렸던 적이 있습니까? 여기 히버 [시 킴볼]과 나머지 십이사도들이 있습니다. 십이사도는 신권 열쇠, 즉 온 세계에 퍼질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진 독자적인 조직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조셉 옆에 서 있으며, 그들이 바로 교회의 제일회장단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7:233)

많은 성도들은 그날 오후에 말씀을 전한 브리검 영에게서 조셉 스미스의 모습과 목소리를 보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기적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브리검 영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이끌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성신의 증거를 느꼈다. 이 모임을 끝내고 나부의 성도들은 만장일치로 브리검 영을 지도자로 하여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이끄는 것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이 사도들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시드니 리그돈과 제임스 스트랭과 같이 자신만의 교회를 설립한 다른 사람들을 따랐다.

제24과

나부를 떠나 서부로 이동하다

소개

브리검 영의 영감 어린 지도력 아래 나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성도들은 로키산맥의 새로운 터전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다. 그들은 여정 중에 고난이 닥칠 때 이 성전 성약을 통해 힘을 얻고 고양될 수 있었다. 이런 충실한 성도들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그들의 모범에서 배움을 얻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읽기 자료

- 고든 비 힝클리, “참된 신앙”,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65~67쪽.
- 엠 러셀 벨라드, “여러분이 여행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55~57쪽.
-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년], 302~314쪽, 329~336쪽.

교수 제언

나부 성전 완공





본래의 나무 성전 사진을 보여 주거나, 새로운 일리노이 나무 성전(복음 그림책[2009], 118번) 그림을 사용한다. 학생들에게 후기 성도들이 나무를 떠난 후 그들이 지었던 성전은 1848년에 화재로 내부가 훼손되었고, 1850년에는 토네이도로 거의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약 150년이 흐른 후, 외관상 본래 건물과 매우 유사한 새로운 성전이 건립되었으며, 그 성전은 2002년 6월에 헌납되었다.

조셉 스미스가 순교하자 성도들은 나무 성전을 가능한 한 빨리 완공하기 위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고 설명한다. 다음 말씀들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성도들이 나무 성전을 짓기 위해 희생한 것에 주목해 보라고 말한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열흘에 하루씩 일하였다. 어린 소녀였던 루이자 데커는 어머니가 성전을 짓는 데에 보태려고 도자기 접시와 좋은 침대 덮개를 파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른 후기 성도들도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 말과 마차와 소와 돼지와 곡물을 바쳤다. 나부의 여인들은 성전 기금으로 그들의 푼돈을 기부하도록 요청받았다.”(우리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사[1996], 59쪽)

엘리자베스 테리 커비 헤워드스는 그녀가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남편의 시계였다. “나는 남편의 시계와 내가 모을 수 있었던 다른 모든 것과 수중에 남아 있던 마지막 몇 달러를 나부 성전을 위해 내놓았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50달러 정도가 되었다.”(Carol Cornwall Madsen, *Their Own Words: Women and the Story of Nauvoo* [1994], 180에 인용됨)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교회 적들의 위협이 극심해지자 1845년 9월 2일에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봄에는 나부를 떠나라는 발표를 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나부를 떠나라는 결정이 성전을 완공하려는 성도들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일리노이 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성도들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성전을 완공하고자 더 큰 수고를 기울여 일했다고 설명한다. 성전의 방들이 완성되면, 가능한 빨리 의식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방들을 헌납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죽기 전에 소규모의 남성과 여성에게 성전 엔다우먼트 의식을 집행했다. 1845년 12월 10일에 이 남성과 여성들은 헌납된 성전 의식실에서 다른 회원들에게 성전 의식을 집행했다. 한 학생에게 다음 두 단락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이 부분에는 나부를 떠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

1844년부터 1846년까지, 브리검 영 회장과 십이사도들은 나부 성전 완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 건축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엔다우먼트와 인봉이 집행되었다. 브리검 영(1801~1877)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것은 [성전 의식을] 받으려는 성도들의 열망과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의식을 집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표출된 것이었다. 나는 밤낮으로 성전에서 주님의 사업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쳤으며, 하루 평균 네 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 가지 못했다.”(*History of the Church*, 7:567)

대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의식을 집행해 주기 위해, 성전에서 일하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서른여섯 명의 여성들도 나부 성전의 의식 봉사자가 되어서 1845년부터 1846년 사이의 겨울 동안 주야로 계속해서 일했다. 그 서른여섯 명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성전이 닫힐 때까지 그곳에서 매일 쉬지 않고 일했다. 나는 그 사명에 나 자신과 나의 시간과 마음을 바쳤다.’ 수십 명의 다른 여성들은 옷을 세탁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경이로운 사업에 힘을 보탰다.”(Carol Cornwall Madsen, “Faith and Community: Women of Nauvoo,” *Joseph Smith: The Prophet, The Man*, ed. Susan Easton Black and Charles D. Tate Jr. [1993], 233~234)

성도들이 서부로 이주를 시작한 1845년 12월 10일부터 1846년 2월 7일 사이에 약 5,615명의 성도가 나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았으며, 수많은 가족이 인봉되었다.

- 곧 나부를 떠날 것을 아는 상태에서도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성도들이 희생한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성전 의식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로운 노력과 희생을 들일 가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칠판에 적어도 좋다.)

- 나부를 떠나 미합중국 서부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수천 кило미터가 넘는 여행을 시작하는 성도들은 성전 의식을 통해 어떻게 준비되었겠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사라 리치 자매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부 성전에서 주님의 영의 영향력과 도움으로 배운 지식과 신앙이 아니었다면 그 여행은 그저 무모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사라 리치,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30쪽에 인용됨)



“우리의 개척자 조상들은 나부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습니다. 나부 성전에서 주님과 맺은 성약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그렇듯, 그들이 서부로 여행하는 동안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

이 초기 성도들에게 성전 의식 참여는 그들이 고난을 겪고, 분노한 폭도들이 집에 들이닥쳐, 나부의 편안한 집에서 쫓겨나고, 앞에 놓인 기나긴 고된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간증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그들에게 권능이 부여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봉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중에 가족을 잃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영원히 인봉되었습니다.”(로버트 디 헤일즈, “성전 축복”, *리아호나*, 2014년 2월호,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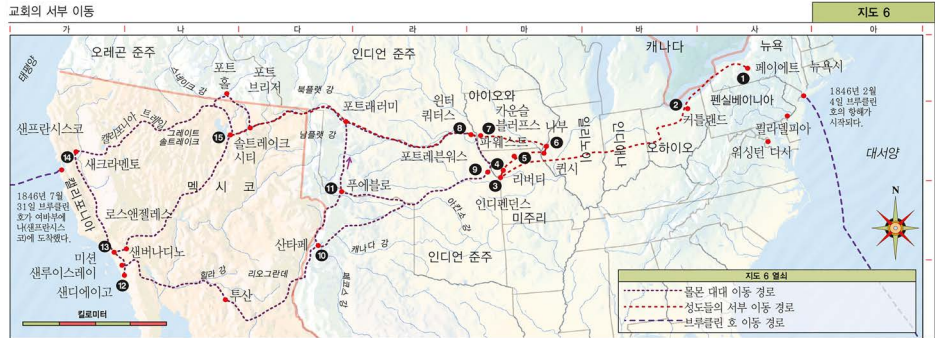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서부로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초기 후기 성도들에게 성전 의식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학생들이 답을 하면, 다음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성전 의식은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
- 성전 예배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때 어떻게 보호와 힘이 되었는가?

학생들에게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경배를 통해 더 큰 영적 보호와 힘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교리와 성약 136편

주님께서 서부로 이동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지시



학생들에게 교회 역사 지도 6번, “교회의 서부 이동”을 펴서, 나부와 윈터쿼터스를 찾아보라고 한다. 1846년 2월에 나부를 떠난 성도들은 부족한 물자와 과도한 강우량 때문에 482킬로미터의 아이오와 주를 횡단하는 데에만 넉 달이 걸렸다고 설명한다. 이 시기에 500명 이상의 후기 성도 남성들이 브리검 영 회장의 요청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에 참전하고자 미합중국 군대에 입대했고, 이 부대는 물론 대대로 알려졌다. 일부 남성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갔다. 그들의 군 복무로, 가난한 교회 회원들의 서부 이동을 지원할 자금이 마련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가족이 서부로 이동하는 일부 기간을 남편과 아버지 없이 지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지도자들은 1847년 봄이 될 때까지 로키산맥을 향해 서진하는 일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성도들은 윈터쿼터스라 불리는 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브리검 영은 그곳에서 교리와 성약 136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

학생 몇 명에게 교리와 성약 136편 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서쪽으로 여행을 계속할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진영은 어떻게 조직해야 했는가? 여행하는 성도들에게 이 조직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이 조직은 오늘날 교회가 조직되는 방식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본 후,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을 수 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성도들을 그룹으로 조직하신다.**)
- 4절에서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완수하려 노력할 때 힘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암시되어 있는가?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36편 6~11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서로의 필요 사항을 돌보고 궁핍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기 위해 성도들이 조직해야 했던 것들을 찾아 보라고 한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다.

- 6~11절에는 성도들이 서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나 문구가 나오는가? (6, 7, 9절에 나오는 “준비하다”라는 단어를 강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반복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배우는 경전 학습 기술에 주목하게 할 것이다.)
- 11절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본 후,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길을 준비할 때,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준 사람에는 누가 있는가?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길을 마련하고자 어떤 일을 했는가?

개척자라는 단어는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거나 길을 열어 놓기 위해 앞서 가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식으로 보면 우리 역시 개척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해도 좋다.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복음을 받아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돕기를 바라신다고 간증한다.

성도들은 서로 돕고 그들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한 길을 예비함으로써 주님의 명에 순종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개척자 무리가 1847년 4월 5일에 윈터쿼터스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1,600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해서 1847년 7월 말에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했다. 1847년 7월 24일에 밸리에 도착한 브리검 영 회장은 성도들의 새로운 거처를 찾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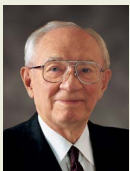
칠십인인 윌리엄 알 워커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며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여러분이 개척자의 후손이든 아니든, 몰몬 개척자들의 신앙과 희생의 유산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고귀한 유산입니다.” (“신앙에 충실한 삶”,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7쪽)

- 자신의 조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교회 회원들 각자가 “몰몬 개척자들의 신앙과 희생의 유산”이 자신의 유산임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몰몬 개척자의 여행에 관해 배우는 것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을 돕는 오늘날의 교회 회원에게 어떤 식으로 영감을 줄 수 있는가?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현재 우리는 [개척자들의] 큰 노고의 수혜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희생과 고통과 죽음과 시현과 신앙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및 그분의 아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간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가 진리의 대업을 위해 봉사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참으로 존중합니다.” (“참된 신앙”,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66~67쪽)

교회의 모든 회원은 그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준 다른 누군가 덕분에 축복을 받는 것임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준다. 또한 그들의 후손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생활하고 그분들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학생들을 격려한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136편
- 고든 비 힝클리, “참된 신앙”,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65~67쪽.

제25과

유타 전쟁과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

소개

1850년대에 후기 성도와 미합중국 관리 사이에 조성된 긴장감과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1857년부터 1858년 사이에 유타 전쟁이 일어났다. 1857년 9월에 유타 남부 준주의 일부 후기 성도들과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던 마차

행렬 이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으며, 후기 성도들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약 120명의 이주자를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 현재 이 잔혹 행위는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이라 불리고 있다.

읽기 자료

- Richard E. Turley Jr., “The Mountain Meadows Massacre,” *Ensign*, Sept. 2007, 17-21.
- “19세기 후기 성도들이 경험한 평화와 폭력”, 복음 주제, lds.org/topics.
- Henry B. Eyring, “150th Anniversary of Mountain Meadows Massacre,” Sept. 11, 2007, mormonnewsroom.org/article/150th-anniversary-of-mountain-meadows-massacre.

교수 제언

초기 후기 성도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긴장감이 조성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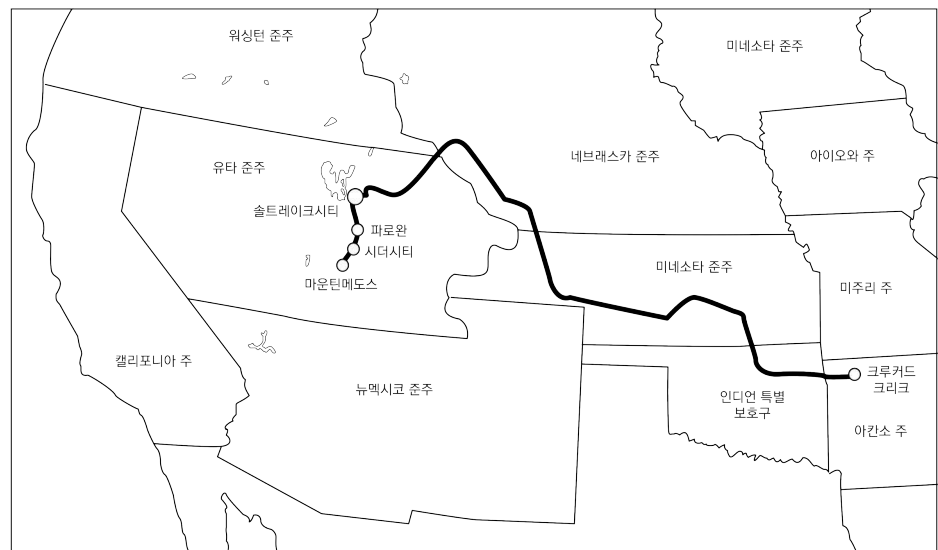


각 학생에게 이 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유인물 복사본을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유타 전쟁을 야기한 긴장감 고조”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여러분이 1857년에 후기 성도였고 대규모의 군대가 여러분의 도시로 진군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걱정이 들었겠는가? (학생들은 성도들이 오하이오 주와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쫓겨났으며, 많은 성도가 소중한 재산과 토지를 잃었고, 일부는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가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은 일부 성도들이 유타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준주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일부 후기 성도와 마차 행렬 이주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여기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지도를 보여 주거나 칠판에 그린다.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마차 행렬 이주자와의 갈등”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이나 한 무리의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제3니파이 12장 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긴장 상태를 경험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지 찾아 보라고 한다.

- “대적과 ... 급히 ... 화해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이 문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학생에게 칠십인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구주는 ‘대적과 ... 급히 ... 화해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불화를 조기에 해결하여 순간의 걱정이 육체적 감정적 잔학 행위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노여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 원한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1쪽)

- 여러분은 제3니파이 12장 25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본 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우리는 언쟁의 해로운 영향력을 피할 수 있다.**)
- 마차 행렬 이주자들에게 해를 끼칠 계획을 세운 그 사람들은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을까?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극단으로 치달은 대립”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 시더 시티의 교회 지도자들은 윌리엄 데임이 그들에게 민병대를 출동시키지 말라고 권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했는가? 권고를 거절한 것은 그들은 어떤 행동으로 이끌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본 후,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옳은 것을 행하라는 권고를 무시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나 심지어는 사악한 선택에 더 쉽게 휘둘리게 된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인 평의회 제도에는 위대한 지혜가 있다고 짚어 줄 수도 있다.)

학생 몇 명에게 유인물에서 “이주자들을 향한 공격” 부분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시더 시티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고를 무시한 이후 어떻게 사악한 선택을 계속해 나갔는지를 찾아 보라고 한다.

- 민병대 사령관인 윌리엄 데임의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한 시더 시티 지도자들의 결정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 이 시점에서, 공격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고백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들의 범죄와 죄악을 숨기려 할 수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속임수로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가?

일부 후기 성도들이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주자들을 공격하는 데 가담했던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는 편을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유인물에서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과 “비극적인 결과” 부분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반원들에게는 이 결정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들어보라고 한다.

일부 후기 성도 지도자들과 남부 유타 준주의 정착민들이 내린 선택은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회와 솔트레이크시티의 준주 지도자들은 1858년에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합중국 정부와의 갈등을 해결했다. 이후에 유타 전쟁이라고 불리게 된 이 갈등의 시기 동안, 미합중국 군대와 유타 민병대 사이에 공격 행위는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전투가 벌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 여러분은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로 이끈 이 선택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 이 비극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죄를 숨기는 편을 선택하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 죄를 숨기겠다는 선택은 후회와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잘못과 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더라도, 주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함으로써 미래의 심적 고통과 후회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 준다.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대학살의 진상을 알게 된 교회 지도자들”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 지역 후기 성도 다수에게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의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 일부 교회 회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복음의 참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한 학생에게 유인물에서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 150주기에 부쳐” 부분에 있는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했던 교회 회원들의 일화를 배울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한 학생에게 힐라맨서 5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앞서 배운 사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증을 키우고 유지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 보라고 한다.

- 힐라맨서 5장 12절에 따르면, 우리의 간증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답을 들어 본 후, 여러분은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움으로써 강한 간증을 키울 수 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제임스 샌더스는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어린이 중 한 명의 ... 증손자였으며, [또한 그는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 샌더스 형제는 ... 그의 조상이 대학살 중에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자신의 신앙이 교회의 어떤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Richard E. Turley Jr., “The Mountain Meadows Massacre,” *Ensign*, Sept. 2007, 21)

- 구주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한 교회 회원들의 일화들에 대해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가?
- 여러분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구주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과 신앙을 주님과 그분의 복음 위에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신앙을 더 잘 세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라고 권유한다.

학생 읽기 과제

- “19세기 후기 성도들이 경험한 평화와 폭력”, 복음 주제, [lds.org/topics](https://www.lds.org/topics).

유타 전쟁과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

유타 전쟁을 야기한 긴장감 고조

첫 번째 후기 성도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고 3년이 지난 후, 미합중국 정부는 유타 준주를 조직하고 브리검 영을 준주를 감독하는 첫 주지사로 임명했다. 1857년 중반에 후기 성도 지도자들은 연방 정부가 유타 준주 주지사를 브리검 영에서 새로운 인물로 바꿀 것이며, 그 새로운 인물은 엄청난 규모의 연방 군대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다. 1857년 7월 24일에 브리검 영 회장이 성도들과 함께 솔트레이크 밸리 도착 10주년을 기념하고 있을 때, 솔트레이크시티로 군대가 진군해 오고 있다는, 기존 소문을 확증해 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에 후기 성도들은 미합중국 정부와 의견 충돌과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었다. 성도들은 그들이 직접 선택한 지도자가 관리하기를 원했고, 연방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거부했었는데, 그런 인사들은 후기 성도들의 가치관을 공유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 일부는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다. 몇몇 연방 정부 관리는 이런 성도들의 행동과 태도가 미합중국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제임스 뷰캐넌 미합중국 대통령은 약 2,500명의 군대를 솔트레이크시티로 파병하여, 신임 주지사가 유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동행하고, 대통령이 반역이라 판단한 것들을 진압하게 했다. 이것은 유타 현지 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내려진 결정이었다.(*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 368~371쪽 참조)

준주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

브리검 영 회장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하면서 적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그 군대가 전에 오하이오, 미주리, 일리노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을 유타에서 내쫓을까 봐 두려웠다. 영 회장은 몇 년 동안 성도들에게 곡식을 비축하라고 요청했는데, 군대를 피해 도망칠 때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그 지침을 강조했다. 유타 준주의 주지사로서 그는 또한 준주의 민병대에게 준주를 방어할 태세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마차 행렬 이주자와의 갈등

진군해 오는 미합중국 군대에 대항하여 준주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알칸소에서 캘리포니아를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던 마차 행렬 이주자들이 유타로 진입했다. 성도들은 이미 곡식을 비축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기에, 마차 행렬의 일부 대원들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곡식을 성도들에게서 구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불만을 품었다. 또한 그들은 마차 행렬의 대규모 말 떼와 소 떼가 성도들의 가축을 먹일 목초와 물을 소비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성도들과도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런 긴장감은 결국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유타의 마지막 정착지인, 시더 시티에서 폭발해 버렸다. 일부 마차 행렬 이주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마차 행렬 이주자 몇몇은 진군하는 정부 군대에 합류해서 성도들에게 맞서겠다고 협박했다. 마차 행렬의 지도자가 그런 위협을 한 동료들을 꾸짖었음에도, 이로써 일부 시더 시티 지도자와 정착민들은 이주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마차 부대는 도착한 지 겨우 한 시간여 만에 도시를 떠났지만, 정착민 몇몇은 자신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쫓아가서 벌을 주고 싶어 했다.

극단으로 치달은 대립

그 성도들이 이주자들과의 갈등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시더 시티의 시장이자 민병대장이며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아이작 헤이트는 근처 파로원 정착지에 살고 있던 민병대 사령관에게 마차 행렬의 공격자들에 맞설 민병대를 소집할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회 회원이었던 민병대 사령관 윌리엄 데임은 아이작 헤이트에게 이주자들의 위협을 무시해 버리라고 권고했다. 아이작 헤이트와 시더 시티의 다른 지도자들은 이 권고에 따르는 대신, 이주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근의 인디언들을 설득해 마차 행렬을 공격하고 소 떼를 훔치기로 했다. 아이작 헤이트는 교회 회원이면서 그 지역 토박이인 민병대장인 존 디 리에게 이 공격을 이끌게 했으며, 이들은 그 행위를 인디언들의 탓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주자들을 향한 공격

아이작 헤이트는 마차 행렬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교회와 지역 사회, 민병대의 현지 지도자 평의회에서 발표했다. 일부 평의회 회원들은 그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며 헤이트에게 그 사안에 대해 브리검 영 회장의 조언을 구했는지 질의했다. 헤이트는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견을 구하는 편지를 제임스 하슬램 편에 보내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솔트레이크시티는 시더 시티에서 402킬로미터가량이나 떨어져 있었고, 이는 전령이 솔트레이크시티에 갔다가 브리검 영의 지시를 받아서 시더 시티로 돌아오려면 쉬지 않고 말을 달려도 일주일은 족히 걸릴 거리였다.

아이작 헤이트가 전령에게 편지를 보낸 직후, 존 디 리와 한 무리의 인디언들은 마운틴 메도스라 불리는 곳에 있던 이주자들의 진영을 공격했다. 리는 그 공격을 주도하면서도, 인디언들만 가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일부 이주자 중에 사상자가 나왔고, 남은 사람들은 리와 인디언들을 물리치기 위해 맞서 싸웠다. 이주민들은 신속하게 수레를 끌어당겨 둥글게 방어진을 치고 그 안에서 버텼다. 마차 행렬을 포위한 닷새 동안 두 번의 추가 공격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시더 시티 민병대는 수레 방어진 외부에 있는 두 명의 이주민 남성을 발견하게 된다. 민병대원들은 그들에게 발포했고, 한 명은 사망했다.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간 나머지 한 명은 공격자들 중에 백인 남성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을 마차 진영에 전달했다. 공격을 주동했던 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속임수에 발목이 잡히게 되었다. 이주자들이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도록 둔다면, 마차 행렬을 공격한 책임이 후기 성도들에게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갈 것이었다. 공모자들은 이 소문이 그들과 측근들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두려웠다.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

후기 성도가 마차 행렬 공격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작 헤이트와 존 디 리, 그리고 현재의 교회 및 민병대 지도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이주자 모두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라 존 디 리는 이주자들에게 접근하여, 민병대가 그들을 시더 시티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안내해 주고 또 다른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주자들이 시더 시티 방향으로 걸어나갈 때, 민병대원들은 그들에게로 돌아서서 총을 발사했다. 정착민들이 고용해 둔 인디언들 역시 숨어 있던 곳에서 튀어나와 공격에 가담했다. 그들은 마차 행렬의 140여 명 중 오직 17명의 어린아이들만을 살려두었다.

대학살이 있고 이들이 지난 후, 제임스 하슬렘이 마차 행렬을 그대로 지나가게 허락하도록 현지 지도자들에게 지시하는, 브리검 영의 답변을 들고 시더 시티에 도착했다. “영 회장의 지시를 읽은 헤이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버렸어.’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Richard E. Turley Jr., “The Mountain Meadows Massacre,” *Ensign*, Sept. 2007, 20)

비극적인 결과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은 120여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들과 희생자들의 친척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다. 몇몇 후기 성도들은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이주자의 자녀들을 가정으로 받아들여 돌보아 주기도 했다. 1859년에 연방 관리들은 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갔고, 아이들은 알칸소에 있는 친척들에게로 보내졌다. 파이아웃 인디언 또한 그 죄목에 대해 부당하게 비난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다.

대학살의 진상을 알게 된 교회 지도자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던 브리검 영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학살이 일어나고 곧바로 그 소식을 접하기는 했지만, 정착민들의 관여 정도와 그 범죄의 끔찍한 상세 내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859년에 그들은 학살에서 역할을 수행한, 시더 시티의 스테이크 회장 아이작 헤이트와 다른 고위 교회 지도자들을 부름에서 해임했다. 그리고 1870년에는 아이작 헤이트와 존 디 리를 교회에서 파문했다.

1874년에 준주의 대배심은 학살에서 역할을 담당한 아홉 명을 기소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결국 체포되었지만, 존 디 리만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에 처해졌다. 기소됐던 또 한 사람은 공범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으며[즉, 그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과 증거를 제공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법을 피해 도망 다녔다. 학살에 가담했던 다른 민병대원들은 지독한 죄책감과 자신들이 행하고 본 것들이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했다.”(Richard E. Turley Jr., “The Mountain Meadows Massacre,” *Ensign*, Sept. 2007, 20)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 150주기에 부쳐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의 책임은 시 당국과 민병대의 직위에 있었던 마운틴 메도스 근방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현지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시하에 행동했던 교회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

우리가 옹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들을 냉혹하게 죽이는 것을 혐오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평화와 용서를 지지합니다. 오래 전에 이곳[마운틴 메도스]에서 교회 회원들이 저지른 일은 기독교적 가르침과 행위에 어긋나는 끔찍하고도 용납할 수 없는 일탈이었습니다. ... 하늘의 심판이 그 대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딸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가 보여 준 순수한 사랑과 용서의 영을 서로에게 보여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50th Anniversary of Mountain Meadows Massacre,” Sept. 11, 2007, mormonnewsroom.org/article/150th-anniversary-of-mountain-meadows-massacre)

제26과

신권에 관한 계시

소개

20세기에 선교 사업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아프리카 혈통의 교회 회원들에게 신권 성임과 성전 의식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침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 명확한 계시가 1978년 6월 1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과 제일회장단의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주어졌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복음과 관련한 질문에 충실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고, 이 명확한 계시를 둘러싼 배경과 진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읽기 자료

- Gordon B. Hinckley, "Priesthood Restoration," *Ensign*, Oct. 1988, 69–72.
- "인종과 신권", 복음 주제, lds.org/topics.
- Ahmad Corbitt, "A Personal Essay on Race and the Priesthood," parts 1–4, Perspectives on Church History series, history.lds.org/section/perspectives-on-church-history.

교수 제언

공식선언—2 소개

복음 관련 질문에 충실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다음 각본을 반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최근에 교회 교리에 몇 가지 의문을 느끼던 교회 회원 한 명이 스코트에게 다가왔다. 스코트는 그 친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느꼈지만, 잠시 후에 문득, 만약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회원이 그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학생들에게 교회 또는 교회의 교리에 관해 진지한 질문을 품고서 그들을 찾아온 교회 회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다.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읽는다.



“연구는 간증의 근원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 하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전조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보라고 명하셨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모로나이서 10:4]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에 관한 진리가 ‘성신의 권능으로 [모로나이서 10:5]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호기심을 가지지만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신앙과 빛을 항상 굳게 잡으십시오.” (“물에 비친 그림자”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2009년 11월 1일], 7쪽, ldschurchnewsarchiv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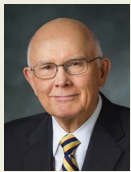
-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교회에 관한 교리적, 역사적, 혹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의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는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진심 어린 질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서 오는 응답을 불러올 수 있다.**)

교회 회원들이 의문을 품었던 역사적 쟁점 중 하나는 1800년대 중반부터 1978년까지 시행한, 아프리카 혈통의 흑인 남성들에게 신권 성임을 제한하는 교회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당시에는 흑인 남성과 여성은 성전 엔다우먼트나 인봉 의식도 받을 수 없었다. 한 학생에게 공식선언-2(2013년판 교리와 성약에서 찾을 수 있음)의 소개 부분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이 역사적 쟁점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물론경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니파이후서 26:33)라는 가르침이 나온다. 교회 역사 내내 모든 인종 및 민족이 수많은 나라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서 생활해 왔다. 조셉 스미스가 생존해 있을 당시, 교회 회원이었던 소수의 흑인 남성들은 신권에 성임된 바가 있다. 교회 초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아프리카 혈통의 흑인 남성들에게 신권을 부여하는 일을 중단했다. 교회의 기록에서는 이 관례의 근원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식견도 찾아볼 수 없다.(공식선언-2 소개, 2013년판 교리와 성약 참조)

- 이 성명서에는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한 어떤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교회의 기록에서는 이 관례의 근원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식견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명시한 부분을 짚어 준다. 일부 사람들이 아프리카 혈통의 남성들이 얼마 동안 신권에 성임되지 않았던 이유를 제시하려고 하지만, 그 이유는 정확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마음속으로 이 질문, 즉 ‘주님께서 왜 이렇게, 또는 저렇게 명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경전을 읽는다면, 수많은 명령 중 이유를 알려 주신 명령은 백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밝히시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계시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계명에 대해서도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인종과 신권]에 관한 계시에 대해 이유들을 댔지만, 그 이유들은 보란 듯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여기저기에서 계시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 애쓰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하지 마시다. 결국 그런 이유들은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 낸 것들로 판명됩니다.”(*Life's Lessons Learned* [2011], 68–69)

-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에게 1978년 이전에는 신권이 부여되지 않고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추측하지 않는 것은 왜 현명한 일일까? (사람은 제한된 관점에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

오늘날 교회는 검은 피부가 신의 혐오나 저주의 표시라든가, 전세에서의 의롭지 못한 행위를 반영한다는 것,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죄라거나, 흑인 또는 여타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든 열등하다는 것과 같은 과거에 널리 퍼졌던 이론들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형태이든 과거나 현재의 모든 인종 차별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인종과 신권”, 복음 주제, lds.org/topics 참조)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1978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신권 제한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공식선언 2

교회의 모든 충실한 회원은 신권과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1978년 이전에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수천 명의 사람이 여러 나라에서 회복된 복음의 충만함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지도자들은 나이지리아와 가나의 침례 받지 않은 개종자들로부터 아프리카로 선교사들을 보내달라 요청하는 수많은 편지를 받았다. 수년간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안을 고려했지만, 아직은 아프리카로 선교사들을 보낼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브라질의 충실한 흑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1975년에 발표된 상파울루 성전을 세우는 일을 도왔다.

학생들에게 공식선언—2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과 제일회장단의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중 열 명이 받은 계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 계시는 1978년 6월 1일에 주어졌다. 한 학생에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목격했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교회 지도자들은 지구 전역에서 무엇을 목격했는가?
- 주님의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목격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영감을 받게 되었는가?

한 학생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중에”로 시작하는 다음 단락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교회 지도자들이 영감으로 받은 소망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질문한다.

-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영감으로 받은 소망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는가?
- 이 단락의 첫 세 줄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은 신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언젠가는 합당한 형제 모두가 신권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임을 알았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1978년 이전에 여러 해 동안 신권 제한에 관해 토론하고 기도했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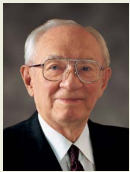
“저는 매일 참으로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성전의 위층 방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 영혼을 쏟아 부었으며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에 대해 말씀드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감동적인 계획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으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을 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는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238쪽)

- 김볼 회장의 이 말씀은 선지자가 계시를 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을 수 있다. **선지자들은 교회를 인도하는 일에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

한 학생에게 “주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로 시작하는 공식선언—2의 다음 두 단락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김볼 회장과 제일회장단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이 계시에서 받은 주님의 메시지를 강조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공식선언—2에 기록된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그 계시가 주어졌던 날에 그곳에 있었던 고든 비 힝클리(19910~2008) 회장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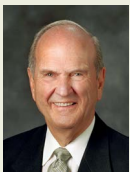


“그 방에는 신성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힘을 합하는 가운데 함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통로가 열려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성신의 권능이 그곳의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분이 간구한 내용은 옳고 그 시기가 도래했으며 혈통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있는 합당한 남성에게 놀라운 신권 축복이 전해져야 한다는 확신이 임했습니다. ...

우리는 모두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으며, 그 결정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해에는 완벽한 일치がありました.” (“Priesthood Restoration,” *Ensign*, Oct. 1988, 70)

신권 제한을 끝내라는 그 계시를 받은 직후,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파송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때 이후로 그 대륙에는 성전들이 세워지고, 백 개 이상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으며, 수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과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복음 의식을 받았다. (그 예로, “Mormons in Africa: A Bright Land of Hope”, mormonnewsroom.org; “Emerging with Faith in Africa,” 1~3, 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읽어 달라고 한다.



“은 세상의 대륙과 섬나라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사랑하는 구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바칠 때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 성별, 얼굴 생김새 등에 있어서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바울의 선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7~28]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깨달은 때만이 인간의 참된 형제애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불화의 벽을 허물고 협동의 다리를 놓게 됩니다.”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70~71쪽)

- 복음은 우리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단합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는가?

- 교회의 회원들이 서로 배경이 다름에도 함께 단합하고 협동하면서 하나가 되는 예를 본 적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왜 교회에서 얼마 동안 아프리카 혈통의 남성에게 신권을 성임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수업을 마친다. 우리는 신권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이유를 모른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며,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를 나누고 간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학생 읽기 과제

- 니파이후서 26:33; 공식선언—2
- “인종과 신권”, 복음 주제, [lds.org/topics](https://www.lds.org/topics).

제27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소개

구주께서는 언젠가 권능과 큰 영광 속에 지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위대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 그분이 오시는 징조를 배우고 거룩한 곳에 서서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교리와 성약 45:57) 준비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교회의 회원들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읽기 자료

- 닐 엘 앤더슨,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9~52쪽.
- 델린 에이치 옥스,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10쪽.
-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함”,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제44장, 389~397쪽.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45:15~46, 56~57

재림 전에 있을 징조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한다.

- 여러분은 곧 비가 내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비가 내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알 수 있는 지표, 즉 징조가 있다고 설명한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었듯이, 구주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시고자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해 준다. 교리와 성약 45편에 나와 있듯이 주님은 우리 시대에 그 가르침 중 일부를 조셉 스미스에게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교리와 성약 전반에 걸친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을 공부할 때 재림에 관한 가르침에 주목하고,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45편 15~17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무엇을 여쭙었는지와 그분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그분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재림에 앞서 일어날 징조들을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음 참조 성구를 칠판에 적는다.

교리와 성약 45:25~27

교리와 성약 45:28~31, 33

교리와 성약 45:40~43

학생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주고, 칠판에 적은 성구들을 각 조에 하나씩 배정한다. 짝과 함께 그 성구를 함께 읽으면서, 거기에 언급된 징조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일부 징조들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되고 있다고 짚어 준다. 30절과 연결하여 다음 정보를 나눌 수 있다. “복음을 받는 일에서 이방인들이 우선을 접하게 될 시기를 **이방인의 때**라고 부른다. 그 시기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먼저 얻게 된다. 유대인들은 그런 연후에야, 적어도 실제적 의미를 가질 만큼, 그 권리를 받게 된다.”(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721~722)

시간을 충분히 준 후, 조별로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전에서 징조들에 표시하라고 해도 좋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45편 3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게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한다.

- 재림이 오기 전에 있을 사건이나 징조들에 관해 읽거나 들을 때, 걱정했던 적이 있는가? 왜 그런가? 아니면, 왜 그렇지 않은가?
- 구주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배우면 삶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극복하는 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45편 35~38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구주께서 재림 이전에 있을 징조를 왜 알려 주셨는지 알아본다.

- 구주께서 오시는 것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때를 인식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45편 32, 39, 56~57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할 방법들을 찾으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을 토론한다.

- 이 구절들에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학생들이 생각을 발표할 때, 다음 원리를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운데, 거룩한 곳에 서서 성령을 우리 인도자로 삼는 것은 필수적이다.**)
- 성령을 우리 인도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거룩한 곳에는 성전, 예배당, 가정이 포함된다. 가정은 지속적인 개인 기도 및 가족 기도, 경전 공부, 봉사, 가정의 밤을 통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만일 우리가 성신을 계속해서 동반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45편 32절 옆 경전 여백에 이런 개념 중 일부를 적으라고 할 수 있다.)
- 여러분은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었는가?
- 여러분은 어떤 이유들 때문에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는가? 여러분은 왜 구주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가?

교리와 성약 29:7~9; 34:5~7; 39:19~23**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학생들에게 이 과정의 이름이 *회복의 기초*임을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복음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 혹은 관계가 있는가?

다음 참조 성구를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에게 성구들을 공부하면서 공통된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

교리와 성약 29:7~9

교리와 성약 34:5~7

교리와 성약 39:19~23

충분한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옆에 앉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학생 몇 명에게 이 성구들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눌 때, 다음 원리를 알아내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29편, 34편, 39편으로 돌아가 그 계시들이 주어진 날짜를 살펴보라고 한다. 질문한다.

- 주님께서는 방금 찾은 그 원리를 교회 조직 후 얼마나 빨리 가르치기 시작하셨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엘 앤더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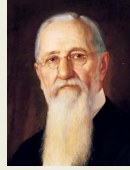
“형제들은 교회가 회복된 초기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837년, 교회가 조직된 지 겨우 7년밖에 되지 않았고 가난과 박해에 시달리던 그 시절에도 복음을 가르치도록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사이에 선교사들은 호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인도, 바베이도스, 칠레, 중국 등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하셨으며, 교회는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 세상 어디를 가든 구주를 증거하는 의로운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받은 선교사 오만이천 명이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모사이야서 3:17]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내뿜는 영적인 위력을 그려보십시오. ... 세상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이 일의 상당 부분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업에서 이론 결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51쪽)

다음 내용을 토론한다.

- 교회의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는가?
- 구주께서 지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이 회복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도록 가르치며, 그 원리를 행하는 만큼 화평과 의로움이 지상에 널리 퍼질 것이며, 죄와 분쟁, 유혈 및 온갖 종류의 부패가 그치고 땅이 정화되어 하늘에 사는 무리들이 거주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 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395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상을 통치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의 일부라고 여깁니다.”(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395쪽)

다음 질문을 한다.

- 이 과를 배우는 중에, 세상이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울 교회와 회원들의 책임에 관해 어떤 생각 또는 영감이 떠올랐는가?
- 다른 사람이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과를 마치기 위해, 학생들에게 우리 신앙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했던 일들을 나누어 달라고 권유할 수 있다.

학생 읽기 과제

- 교리와 성약 29:7~9; 34:5~7; 39:19~23; 45:15~46, 56~57; 88:81~87.
- 닐 엘 앤더슨,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9~52쪽.

제28과

구원 사업을 서두름

소개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실]”(교리와 성약 88:73) 것이라는 예언을 강조해 왔다. 이 구원 사업에는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이 포함된다. 이 과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읽기 자료

- 디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잠자고 있습니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8~62쪽.
-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30~33쪽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138:53~56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신다

학생들에게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타계하기 얼마 전에 영의 세계에 관한 시현을 보았으며, 현재 그것은 교리와 성약 138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 준다. 그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지도자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지상에서의 책임을 위해 전세에서 준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8편 53~5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전세에 이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책임을 찾아보라고 한다.

- 전세에 이 지도자들은 어떤 책임들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 여러분은 전세에서 어떤 책임을 받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되었겠는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때, 그들이 다음 원리를 알아내도록 돕는다. **우리는 때가 찬 시대에 지상에 나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일하도록 전세에서 준비되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회복된 교회가 100개의 스테이크를 두기까지 98년이란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후 30년도 채 안 되어서 교회는 100개의 스테이크를 더 조직했으며 그로부터 불과 8년 만에 교회의 스테이크 수는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2014년] 우리에게 3,000개 이상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더 잘 알려진 탓일까요? 멋진 예배당이 있어서일까요?

그런 점들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나,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리와 성약 88:73]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이 위대한 사업을 앞당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이 시기에 지상으로 보내졌습니다.“(“구원 사업을 서두르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6월호, 4쪽)

- 몬슨 회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지상으로 보내졌는가? (학생들이 답을 하는 동안, 이 원리를 알아내도록 돕는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두르시는 당신의 사업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서두르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목격했는가? (이 질문에 선교사 봉사 연령 변경, 선교사 수의 증가, 성전 수의 증가, 가족 역사 사업을 쉽게 만드는 수단들의 증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할 수 있다.)

이 대답들은 주님께서 회장 양쪽에서 당신의 사업을 서두르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믿어 준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구원 사업의 다섯 분야를 강조하고, 우리 각자에게 이 후기에 하나님의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이 분야에 참여하라고 요청해 왔다고 설명한다. 칠십인 회장단인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구원 사업의 다섯 분야를 알아보게 한다.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교리와 성약 138:56) 보내졌다. 이 구원 사업에는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이 포함된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5.0]”(“구원 사업: 그때도 지금도”, *리아호나*, 2014년 9월호, 23쪽)

학생들이 다섯 분야를 알아내면, 칠판에 다음 내용을 적는다.

회원 선교 사업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

교리와 성약 88:73

우리 각자는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88편 7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게 한다. 그런 후, 학생들에게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공과 마지막에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이 유인물이 그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유인물에서 하나 이상의 말씀을 선택하여 눈으로 읽고 유인물에 있는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읽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후, 한 학생에게 첫 번째 인용문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후 학생 몇 명에게 회원 선교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인물에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보라고 한다. 이 활동을 인용문 다섯 개를 모두 다룰 때까지 반복한다.

학생들이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의 참됨과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 질문을 한다.

-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 사업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 참여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분야 중 하나에 참여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제일회장단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말씀을 보여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필멸의 생을 마칠 때, 이 중요한 삶 동안 기여하고 주님의 일을 진척시키는 데 공헌한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일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체로 구경꾼 역할만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까요?”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잠자고 있습니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9쪽)

구원 사업에 더욱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계획하라고 권유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사업을 서둘러 행하는 모습을 보았는가?
- 여러분 자신은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까?
- 회복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간증은 어떻게 우리가 더욱 온전히 구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가?

학생 몇 명에게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복음의 회복에 관하여 배운 내용을 나누고 간증해 달라고 권유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복음의 참됨을 간증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한다.

학생 읽기 과제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잠자고 있습니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8~62쪽.

구원 사업을 서두름

구원 사업의 각 다섯 분야에 관련하여 다음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 하나님의 사업 중 이 분야에 들이는 여러분의 노력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가깝게 데리고 갈 수 있는가?
- 주님의 구원 사업의 이 분야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현재 가진 교회 부름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사업의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까?

회원 선교 사업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어 더 많은 선교사가 봉사하게 됨에 따라 그분은 또한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마음을 열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들을 알거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에도 삽니다. 길에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거나 학교에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거나 온라인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기적 가운데에서 여러분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투에 명찰을 단 전임 선교사가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명찰을 하나 새겨 넣을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린도후서 3:3] ...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적에 이바지할 것들이 있습니다.”(“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8쪽)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선언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되어 복음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여러분과 제게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그분과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 위성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전임 선교사와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감독과 모든 감독 보좌와 모든 와드 평의회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1쪽) 모든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회원들이 열쇠입니다”,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14쪽)

저활동 회원들의 활동 촉진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을 위로하며, 친구들에게 침례를 권하고, 이웃에 사는 연로한 분들의 뜰을 청소하는 일을 돕고, 저활동 회원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이웃이 자신의 가족 역사 사업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저활동 회원들과 타종교인들을 초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할 자연스럽고도 즐거운 방법이다. 사람들과 함께 우리 삶에서 즐거운 시간과 성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8:56)“(“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30쪽)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엘리야의 영을 체험하며, 자신의 조상을 찾고 또 그분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분명한 부름을 발표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사업을 서두르면서 어려운 일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뿌리와 가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6쪽)

복음을 가르침

“복음을 가르치는 책임은 교사로서 정식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은 부모,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교회의 지도자, 공과 교사,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직장 동료, 이웃, 또는 친구로서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된다. 때때로 여러분은 말씀과 간증을 통해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교사, 가장 위대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1999], 3~4쪽)

유인물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

“몰몬경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되는 종석입니다. 그것은 . . . 주님의 실재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 . . 구주에 대한 그 간증은 분명하며, 오염되지 않고,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 .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구주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비로운 탄생과 그분의 완전한 생과 영화로운 부활의 실재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그러한 모든 진리에 대하여 명백하고 틀림없는 말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또한 속죄의 교리를 가장 완전하게 해설해 줍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5쪽)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우리 교리의 종석”

“몰몬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총명한 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 구원과 승영의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는 많은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는, 다른 경전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많은 것이 것처럼 간결하고 진귀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5쪽)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간증의 종석”

“몰몬경은 간증에 대한 종석입니다. 종석을 떼어 내면, 아치가 무너지듯이, 교회의 모든 것은 몰몬경의 진실성과 더불어 서게 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 . . 몰몬경이 참되다면 . . . 인간은 회복과 그에 수반되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5쪽)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 역사 바라보기

칠십인 정원회의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인터넷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교회 역사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좋거나 나쁜 것, 진실이거나 거짓인 온갖 정보가 넘쳐납니다. 교회 역사에 관해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읽고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일부 정보는 전체 맥락이 없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당혹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정보는 대개 매우 주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역사를 더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자료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부 웹사이트는 매우 악의적이며,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제시합니다. 저명하고 존경받는 역사가들의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반몰론 자료에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에 대처할 만큼 자신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 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영적인 면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갑자기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에 충실할 때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반몰론 기사를 비롯해 온갖 시련에 맞설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 역사 바라보기”, *리아호나*, 2013년 6월호, 45~46쪽)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 역사 바라보기

칠십인 정원회의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인터넷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교회 역사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좋거나 나쁜 것, 진실이거나 거짓인 온갖 정보가 넘쳐납니다. 교회 역사에 관해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읽고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일부 정보는 전체 맥락이 없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당혹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정보는 대개 매우 주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역사를 더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자료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부 웹사이트는 매우 악의적이며,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제시합니다. 저명하고 존경받는 역사가들의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반몰론 자료에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에 대처할 만큼 자신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 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영적인 면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갑자기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에 충실할 때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반몰론 기사를 비롯해 온갖 시련에 맞설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 역사 바라보기”, *리아호나*, 2013년 6월호, 45~46쪽)



진리와 오류를 분별함

모든 복음 경륜의 시대에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후기에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울[을]”(교리와 성약 65:2) 것이다. 하지만, 교회 회원 각자는 속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항상 깨어 기도”(제3니파이 18:18)할 필요가 있다.



“복음의 충만함이 회복되어 빛이 주어진 이 시기에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미지의 바다를 향해하거나 표지판 없는 도로를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로를 구상해 놓으셨고 순종이라는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 89쪽)



“사랑하는 . . . 친구 여러분, 부디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의 포로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사랑과 평안, 값진 은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사탄은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형제들을 참조하는 자’[요한계시록 12:10]이며, 모든 거짓의 아비[요한복음 8:44]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속이려[교리와 성약 50:3] 합니다. . . .

이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일차 전략은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전에 배웠던 것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를 발견할 때 실족함에 이르도록 많은 교회 회원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순간을 겪게 된다면, 이 정보의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 대해서든지 의심을 조성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

인쇄물로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에 나온다고 해서, 자주 언급된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그룹이 추종한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이 참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제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주장이나 정보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보이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 . .

지금은 모순되게 보이는 것도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구하고 얻는다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진리는 무엇인가?”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3년 1월 13일], *lds.org/broadcasts*)



“현대의 관행과 제안을 우리가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전제에 비교하여 평가한다면, . . . 우리는 이 방법을 따를 때 영원토록 안전하리라는 것을 [압니다].”(달린 에이치 옥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함께하는 저녁 모임, 2013년 2월 8일], *lds.org/broadcasts*)



“두려움이나 의심, 고난의 시기가 오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그 신앙이 비록 작고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 . .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우리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는 ‘진실’ 여과기가 없다는 점을 그 진지한 탐구자에게 환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도 있습니다.”(닐 엘 앤더슨, “조셉 스미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9쪽)



“영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즉 신앙으로 구하고, 받을 것으로 믿으며,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Paul V. Johnson, “A Pattern for Learning Spiritual Things” [Church Educational System address to religious educators, Aug. 7, 2012], *si.lds.org*)



“변절한 사람의 눈을 통해 교회를 알아보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알려고 유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Neal A. Maxwell, “All Hell Is Move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8, 1977], 3, *speeches.byu.edu*)



반대가 몰아치는 시기에 굳건하게 남음

커틀랜드에서 일어난 배도: 교회 지도자들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 필요성

1837년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의 성도들은 재정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좀 더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은행과 유사한 회사를 세우고 그것을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Kirtland Safety Society]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 널리 퍼진 경제 공황의 여파로 전국의 많은 은행들이 파산했다.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도 1837년 가을에 파산했다. 은행에 투자했던 이백여 명은 거의 전 재산을 잃었고, 조셉 스미스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손해가 막심했다.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교회 자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일부 성도들은 그것을 교회 은행 또는 선지자의 은행이라고 여겼으며 그들에게 닥친 재정 문제에 대해 조셉 스미스를 비난했다. 일부 성도들은 심지어 그를 타락한 선지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성도들은 은행의 파산으로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남아 선지자에 대한 신의를 지켰다.

많은 성도들 사이에 결점 찾기와 배도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다. 1838년 6월까지 대략 200 내지 300명이 배도하여 교회를 떠났는데, 여기에는 사도 세 명, 물몬경의 세 목격자,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브리검 영이 그랬듯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이 시험을 받던 그 시기를 잘 헤쳐 나갔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강화해 주셨고, 성도들은 자신의 간증을 충실하게 지켰다. 이 배도의 시기에 교회를 떠난 사람 중 몇몇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교회에 재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룩 존슨,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있다.

커틀랜드에서 이런 고투를 벌이는 중에 배도자 몇 명이 조셉 스미스의 암살을 도모했다. 영의 경고를 받아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1838년 1월 12일 밤에 커틀랜드를 떠났다. 암살자들이 여러 날 동안 뒤를 쫓았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1838년 3월 14일, 그들은 가족과 함께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도착했다.

그룹별로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반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반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 다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듣게 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충실하게 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이 선지자를 따랐을 때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았는가?

미주리 주 북부에서 불거진 갈등: 반대를 잘 견디는 법을 배움

1837년과 1838년에, 파웨스트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교회에 반감을 품고 파문된 교회 회원들이 교회와 지도자들을 상대로 고소하고,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1838년 6월에 시드니 리그돈은 “소금 설교[Salt Sermon]”라고 알려진 격렬한 연설을 했는데, 그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성도들 사이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인용하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버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7월 4일, 또 한 번 연설에 나선 시드니 리그돈은 그것이 “전멸시키는 싸움”이 될지라도 성도들은 자신들을 지켜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평화를 탄원하라”(교리와 성약 105:38)는 주님의 지시와는 모순되는 듯했음에도 이 두 연설의 원고가 모두 발행되었으며, 그것은 후기 성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불안을 야기했다.

이 시기에 샘프슨 아바드라는 개종자는 대나이트츠[Danites]라는 습격 조직을 결성하여,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비밀 서약을 하게 했다. 아바드는 그들에게 미주리 주민들을 약탈하라고 지시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바드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제일회장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이후에 진실이 밝혀지고, 아바드는 파문당했다. 아바드의 행동은 교회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지자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는 데에도 일조하게 된다.

1838년 10월에 일부 교회 회원들과 미주리 주 민병대 사이의 전투로 양쪽 진영에서는 몇 명의 전사자가 생겼다. 그 전투에 대한 과장된 보고서가 미주리 주 주지사인 릴번 더블유 보그스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보그스 주지사는 근절령으로 알려지게 된 법령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몬을 적으로 간주하여 근절시키거나 주에서 추방해야 한다.”(History of the Church, 3:175에서 인용) 곧, 파웨스트 시는 성도들의 병력보다 다섯 배가 훨씬 넘는 민병대에 포위되었다. 그때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겨우내 그곳에 갇혀 지냈다. 성도들은 미주리 주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그룹별로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 우리가 반대를 더 잘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원리들을 이 사건들에서 배울 수 있는가?
- 위기나 역경의 시기에 우리 각자가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왜 중요한가? 미주리 주 북부에서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언행 덕분에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 어떤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킹 폴레트 설교의 발췌문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가르쳤다.



“만약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도 짐승만큼만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 . .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유일하게 참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 . .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영하시어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비밀입니다. 지금 휘장이 걷힌다면, 그리하여 이 세상이 그 궤도 안에서 운행되도록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형상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며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으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고 대화하듯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0쪽)

“그렇다면 영생이란, 유일하게 현명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영원한 권능으로 둘러싸인 자들처럼 영광 중에 앉게 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왕과 제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단계들에서 시작하여 그 위 단계로 올라가고, 작은 소임에서 큰 소임을 얻으며, 은혜에 은혜를, 승영에 승영을 더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221쪽)

킹 폴레트 설교의 발췌문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가르쳤다.



“만약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도 짐승만큼만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 . .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유일하게 참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 . .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영하시어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비밀입니다. 지금 휘장이 걷힌다면, 그리하여 이 세상이 그 궤도 안에서 운행되도록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형상을 가진 인간처럼 보이며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으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고 대화하듯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0쪽)

“그렇다면 영생이란, 유일하게 현명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영원한 권능으로 둘러싸인 자들처럼 영광 중에 앉게 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왕과 제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단계들에서 시작하여 그 위 단계로 올라가고, 작은 소임에서 큰 소임을 얻으며, 은혜에 은혜를, 승영에 승영을 더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221쪽)



여성과 신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을 때 상호부조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 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즉 신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께서 자매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 . .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과 같이 구속력 있고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그 권세로 주님께 성스럽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주는 축복과 똑같이 완전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59, 4]

이 의미 있는 설교에서 스미스 회장님은 여성에게도 권세가 주어졌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말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상호부조회는 ‘수많은 일을 행할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은 신성한 권세로 행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남성 혹은 여성이 성전이나 와드, 지부에서 하는 교회 일은 신권 열쇠를 지닌 이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에 전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와드 감독의 지시 아래 . . .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유익과 현세적인 유익을 돌보며 봉사할 권세를 지니는 이 위대한 조직을 주셨습니다.’ [‘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4~5] . . .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여성이 신권 권세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신권 권세가 아니라면 어떤 권세이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이 전임 선교사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별되었다면, 그것은 여성이 신권의 한 기능을 수행할 신권 권세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신권 열쇠를 가진 이의 지시에 따라 교회 조직에서 직책을 맡거나 교사로 성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권 열쇠를 지닌 이로부터 직분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면서 신권 권세를 행사합니다.”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0~51쪽)

여성과 신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을 때 상호부조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 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즉 신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께서 자매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 . .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과 같이 구속력 있고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그 권세로 주님께 성스럽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주는 축복과 똑같이 완전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59, 4]

이 의미 있는 설교에서 스미스 회장님은 여성에게도 권세가 주어졌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말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상호부조회는 ‘수많은 일을 행할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은 신성한 권세로 행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남성 혹은 여성이 성전이나 와드, 지부에서 하는 교회 일은 신권 열쇠를 지닌 이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에 전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와드 감독의 지시 아래 . . .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유익과 현세적인 유익을 돌보며 봉사할 권세를 지니는 이 위대한 조직을 주셨습니다.’ [‘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4~5] . . .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여성이 신권 권세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신권 권세가 아니라면 어떤 권세이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이 전임 선교사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별되었다면, 그것은 여성이 신권의 한 기능을 수행할 신권 권세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신권 열쇠를 가진 이의 지시에 따라 교회 조직에서 직책을 맡거나 교사로 성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권 열쇠를 지닌 이로부터 직분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면서 신권 권세를 행사합니다.”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0~51쪽)



복수결혼을 이해함

복수결혼

“후기 성도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이 주님께서 결혼에 관해 정하신 율법임을 믿는다. 성경 시대에 주님은 몇몇 사람에게 명하여 한 남성과 여러 여성의 결혼, 즉 복수결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1840년대 초반, 주님께서 계시로써 조셉 스미스에게 명하여, 교회 회원들에게 복수결혼을 도입하라고 명하셨다. 복수결혼은 50여 년 동안 교회 회장의 지시하에 일부 교회 회원들이 시행했다.”(“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https://www.lds.org/topics))

어려운 계명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엘리자 알 스노우(1804~1887)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되었다. 그녀는 선지자 조셉이 자신의 동생 로렌조 스노우에게 복수결혼의 원리에 대해 가르친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선지자 조셉은 복수결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자연적인 결과로 느끼게 된 반감을 극복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정신적 괴로움을 [로렌조 스노우에게] 설명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알았고, 그에게 주어진 전능자의 계명은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해의 왕국의 복수결혼을 시행했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 외에 그를 바라보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편견 및 선입관을 극복하고 싸워 나가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그분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 복수결혼을 전진시켜 실시하지 않는다면, 신권을 빼앗기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할 때까지 그 일을 주저하고 미루었다. 그는 이 간증, 즉 부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간증을 나의 남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었다.”(*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1884], 69~70)

신앙의 시험

복수결혼이라는 원리로 힘들어하던 많은 사람은 그 원리의 참됨을 확인해 주는 영적 증거를 축복으로 받았다.

“헬렌 마르 킴볼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는 ‘이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해야 했던 일 중 가장 힘든 시련이었다’고 언급했다 한다. 헬렌은 그것이 비록 그녀의 인생에서 ‘극심한’ 시련 중의 하나이기도 했으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기도 했다고 간증했다. . . .

루시 워커는 조셉 스미스가 아내가 되어 달라고 했을 때 겪었던 마음의 혼란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영혼의 모든 감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밤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한 후, 방안이 ‘밝은 햇빛 같은 거룩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고요하고 감미로운 안도감이 내 영혼을 채우고 최고의 행복감이 온몸을 감쌌다.’”(“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https://www.lds.org/topics))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많은 여성이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되었지만, 그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후기 성도들은 복수결혼이 시행되던 시대에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과 영원만을 위한 인봉을 구분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에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비롯한 이생 동안의 약속과 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영원만을 위한 인봉은 다음 생에서의 관계만을 가리켰다.

. . .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된 일부 여성은 후에 그 결혼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반면, 다른 여성들은 그들의 관계가 영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된 여성의 대부분은 인봉될 당시의 나이가 20세에서 40세 사이였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패니 영은 56세였다. 가장 나이가 어렸던 헬렌 마르 킴볼은 . . . 15세 생일을 맞기 몇 개월 전에 조셉에게 인봉되었다. 오늘날의 표준으로는 그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이지만, 그 시대에는 합법적이었으며 일부 여성은 10대 중반에 결혼하기도 했다. 헬렌 마르 킴볼은 조셉에게 인봉된 것이 ‘영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 관계에 성적인 관계가 관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 .

조셉 스미스는 . . . 이미 결혼한 여러 여성에게 인봉되었다. 이 인봉에 관해서는 몇몇 여성이 자신들의 인봉은 영원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을 뿐, 이 여성들이나 조셉이 설명한 내용은 거의 없다. 다른 여성들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아 그들의 인봉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영원만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행위에 관해서는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다. 이런 인봉은 교회 내 조셉의 가족과 다른 가족 사이에 영원한 유대 또는 연결 고리를 만드는 길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런 결속 관계는 부모로부터 자녀로 수직적으로, 한 가족으로부터 다른 가족으로 수평적으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이런 영원한 유대는 개인의 성전 결혼을 통해 성취되며, 이들은 자신의 친가족에게도 인봉된다.”(“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https://www.lds.org/topics))

선지자의 죽음 이후, 이 세상에서는 그와 관계가 없었던 많은 여성이 그에게 인봉되었다.

복수결혼에 대한 반대

미합중국의 많은 종교 지도자 및 정치 지도자들은 복수결혼을 비도덕적이며 미개한 것으로 생각하며 반대했다. 후기 성도들은 대중 연설, 서적, 잡지, 신문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미합중국 의회는 회원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 총액을 제한하여 교회에 재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관리들은 한 명 이상의 처를 둔 남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에게서 투표권과 가정에서의 사생활 보장권 및 기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다.”(*우리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사[1996], 97쪽) 1890년까지, 수백 명의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체포와 수감 생활을 피하려고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가정이 압박감과 슬픔, 가난,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았다.

복수결혼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세상은 그들을 조롱했지만, 수많은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그 관례를 옹호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밝히신 것임을 안다고 간증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월포드 우드럽 회장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며 성도들이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문제에 관한 주님의 인도를 구했다. 1889년에 우드럽 회장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수결혼의 원리를 가르치는 일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1890년까지 소수의 복수결혼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우드럽 회장의 권고에 반하는 것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여전히 복수결혼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런 보고서는 교회에 대한 더 심한 반대를 불러왔다. 1890년 9월에 우드럽 회장은 교리와 성약에 공식 선언—1로 알려진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성명서

“그 성명서[공식선언—1]에는 미국의 법을 따르겠다는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의향이 표명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국가들의 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정착지가 설립된 이래로 교회 지도자들은 그 나라들에서 복수결혼을 시행했으며, 1890년 10월 이후에도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복수결혼이 조용히 시행되었다. . . . 이례적인 상황으로, 1890년과 1904년 사이에 미국에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새로 복수결혼을 행했는데, 미국 내에서 그런 결혼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성명서와 복수결혼의 종료”, 복음 주제, [lds.org/topics](https://www.lds.org/topics))

“190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두 번째 선언으로 알려진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추후에 복수결혼을 시행하면 파문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었다.”(“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https://www.lds.org/topics))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반대

1844년 6월에 교회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다. 일리노이 주의 일부 주민들이 성도들을 주에서 몰아낼 논의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일부는 선지자를 죽일 음모를 짜고 있었다.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반대에 공모하는 자 중 일부는 교회에서 배제한 이전 회원들이었다. 1844년 6월 7일에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던 윌리엄 로와 다른 배도자들은 *나부 익스포지터*라는 신문의 창간호를 발행했다. 이들은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악화시키기 위해 이 신문을 이용하여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모략했다. 당시에 나부 시장이었던 조셉 스미스와 나부시 평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이 선동적인 신문이 시에 반대하는 폭도의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지했다. 그들은 그 신문을 사회적 방해물로 선포하고 *나부 익스포지터* 인쇄기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무고하게 기소된 조셉과 하이럼

“시장과 시의회가 취한 조치[*나부 익스포지터* 파괴]의 결과로, 일리노이 주 관리들은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 그리고 다른 나부 시 관리들에 대해 근거 없는 반란죄를 뒤집어씌웠다. 일리노이 주 토머스 포드 주지사는 그들에게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 있는 법정에서 배심원들 앞에 서도록 명령했으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조셉은 카테지로 갈 경우, 자신의 목숨이 자신을 위협하는 폭도들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폭도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뿐이라고 믿고, 조셉과 하이럼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서부로 떠나기로 했다. 6월 23일, 그들은 미시시피 강을 건넜으나, 그날 늦게 나부에서 온 형제들이 조셉을 찾아 말하기를 만약 그가 카테지 관리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군대가 도시를 침공할 것이라고 했다. 선지자는 정부 관리들과 폭도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투항하기로 했다. 6월 24일,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부 시 관리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카테지로 간 후, 다음 날 카테지에 있는 군 관리들에게 자진 투항했다. 형제들이 첫 번째 고소와 관련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후, 그들은 일리노이 주에 대한 반역죄로 거짓 고소되어 다시 체포되었으며, 카테지 감옥에 투옥되어 심리를 기다렸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중 선교사로 떠나 있지 않았던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 장로는 자진해서 그들과 함께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29~530쪽)

카테지 감옥에서의 순교

1844년 6월 27일, 조셉에게는 한 방문자에게서 받은 권총 한 자루가 있었다. 폭도들이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쳐들어오려 했으며, 하이럼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다 총상을 입고 숨졌다.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근처에 선 조셉이 복도 쪽으로 권총을 발사했다. 그는 총알 여섯 개 중 세 발만을 발사했으며, 이에 몇몇 폭도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자 폭도들은 반쯤 닫힌 문으로 총구를 밀어넣었고, 존 테일러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들의 총을 밀어내려 했다.

문 입구에서 물리적 충돌이 심해지자 존 테일러는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입구에서 날아온 총탄이 그의 허벅지에 날아와 박혔고, 밖에서 누군가가 발사한 총탄도 그를 명중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창문 옆 침대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세 발을 더 맞아 부상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한편, 총구가 문을 밀고 들어오자 윌라드 리차즈는 지팡이로 총을 쳐내기 시작했다.

그때 조셉 스미스는 존 테일러가 뛰어내리려던 그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다. 윌라드 리차즈가 문에서 폭도들을 막고 있는 동안, 선지자는 열린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그 순간, 감옥 안팎에서 날아든 총알이 선지자를 명중시켰다. 그는 창 밖으로 떨어지며 “오 주 나의 하나님!”이라 외쳤고, 이내 땅으로 고꾸라졌다. 감옥 안에 있던 폭도들은 조셉이 죽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누군가 “물론들이 몰려온다!” 하고 소리치자 폭도들은 모조리 도망쳤는데, 사실 카테지 감옥으로 오고 있는 교회 회원은 아무도 없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바치는 헌사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조셉을 잘 알고 교회 지도자로서 그와 가까이 있어 본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고 선지자로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형 하이럼은 그의 곁에서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살해되었을 때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앞에서 증거합니다.

조셉은 선하고, 존경할 만하고, 고결한 사람이며, . . . 그의 사적, 공적인 인물됨은 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죽었습니다.’(*The Gospel Kingdom* [1987], 355; 또한 교리와 성약 135:3 참조)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조셉 스미스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지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히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살았던 또는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459)“(조셉, 의로운 자이며 선지자”,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73쪽)



교회 회장단의 계승

십이사도와의 모임, 1844년 3월

월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 . . 그는 세 시간가량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은 타 버릴 듯한 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호박(보석의 일종)같이 맑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써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의 충만함을 설명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생명과 구원에 대한 모든 열쇠, 모든 권능, 모든 원리를 제 머리 위에 인봉하셨습니다. 이 여러 원리들과 신권과 권능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 지상에 세우신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십이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머리 위에 인봉하신 모든 열쇠, 모든 권능, 모든 원리를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인봉했습니다.’ . . .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왕국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임을 맡아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32쪽에서 인용)

시드니 리그돈의 주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은 1844년 8월 3일에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나부로 도착했다. 8월 6일 화요일에 그는 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수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 모임을 열 것을 요청했다. 시드니 리그돈은 미합중국 동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모든 열두 사도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임을 열어, 교회 회원들이 그의 지위를 교회의 수호자로서 인준하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윌라드 리차즈 장로와 팔리 피 프랫 장로의 노력 덕분에 모임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나부로 돌아온 뒤인 1844년 8월 8일 목요일로 옮겨졌다.

시드니 리그돈은 자신이 이전에 조셉 스미스를 위한 대변자로서 부름 받고 성임받았기 때문에(교리와 성약 100:9 참조), “교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감리하는 것”(History of the Church, 7:229)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스트랭의 주장

조셉 스미스가 사망한 후, 1844년 2월에 침례 받았던 제임스 스트랭은 자신을 계승자로 임명했다고 언명하는 조셉 스미스의 편지를 받았으며 주장했다. 그 편지는 위조된 것이었지만, 조셉 스미스의 서명이 포함된 것처럼 보였고, 스트랭이 그것을 보여 주자 몇몇 회원들이 속아 넘어갔다. 또한 스트랭은 자신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그 천사가 열쇠를 주었다고 말했다.

1844년 8월 7일

시드니 리그돈이 나부로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존 테일러, 윌라드 리차즈, 팔리 피 프랫,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가 도착해 있었다. 브리검 영을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도들은 1844년 8월 6일 저녁에 나부로 돌아왔다. 다음 날인 8월 7일에 사도들은 존 테일러의 자택에서 평의회를 열었다. 그날 오후 늦게, 십이사도들과 고등평의회, 대제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 회장은 시드니 리그돈에게 성도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시드니 리그돈은 대담하게 자신이 시현을 보았으며 어느 누구도 교회 회장으로서는 조셉 스미스를 승계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을 교회 회원들의 수호자로서 임명할 것을 제의했다. 시드니 리그돈이 연설을 끝낸 후, 브리검 영(1801~1877)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했다.



“저는 누가 교회를 인도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 . . 그러나 하나님이 이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점만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게는 열쇠와 그 주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얻을 방법이 있습니다. . . .

선지자 조셉은 사망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사도 직분에 속한 모든 열쇠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집단도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조셉과 십이사도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조셉은 십이사도에게 ‘내가 기초를 놓았으니 여러분이 왕국을 세우십시오. 왕국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History of the Church, 7:230)

1844년 8월 8일 오전 10시

1844년 8월 8일 오전 10시에 나부의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시드니 리그돈의 주장을 들으러 함께 모였다. 그는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성도에게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며 왜 자신이 교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몇몇 사람들은 시드니 리그돈의 말씀이 따분했다고 묘사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보다는 선지자를 애도하기 위해 나부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날 오후 2시에 지도자와 회원들의 모임이 열릴 것이라고 공지했다. 나중에 몇몇 교회 회원들은 브리검 영이 말씀할 때 그 모습과 목소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모습과 목소리로 변한 것을 보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에밀리 스미스 호이트는 이렇게 회상했다. “설명하는 방식, 얼굴 표정, 목소리가 내 영혼을 전율하게 했다. . . . 나는 조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자주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사람이 조셉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조셉이 아닌, 브리검 영이었다.”(Lynne Watkins Jorgensen, “The Mantle of the Prophet Joseph Passes to Brother Brigham: A Collective Spiritual Witness,” *BYU Studies*, vol. 36, no. 4 [1996-97], 142에서 인용)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적었다. “제가 그를 제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조셉 스미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를 설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7:236)

1844년 8월 8일 오후 2시

이 자리가 중요한 모임이 될 것을 알았기에, 오후 2시가 되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브리검 영은 시드니 리그돈이 제안한 수호자 직분과 그가 이전 2년 동안 조셉 스미스와 소원했던 일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리그돈 회장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건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습니다.

십이사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브리검의 무릎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입술이 떨렸던 적이 있습니까? 여기 히버 [시 킴볼]과 나머지 십이사도들이 있습니다. 십이사도는 신권 열쇠, 즉 온 세계에 퍼질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진 독자적인 조직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조셉 옆에 서 있으며, 그들이 바로 교회의 제일회장단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7:233)

많은 성도들은 그날 오후에 말씀을 전한 브리검 영에게서 조셉 스미스의 모습과 목소리를 보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기적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브리검 영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이끌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성신의 증거를 느꼈다. 이 모임을 끝내고 나부의 성도들은 만장일치로 브리검 영을 지도자로 하여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이끄는 것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이 사도들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시드니 리그돈과 제임스 스트랭과 같이 자신만의 교회를 설립한 다른 사람들을 따랐다.



유타 전쟁과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

유타 전쟁을 야기한 긴장감 고조

첫 번째 후기 성도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고 3년이 지난 후, 미합중국 정부는 유타 준주를 조직하고 브리검 영을 준주를 감독하는 첫 주지사로 임명했다. 1857년 중반에 후기 성도 지도자들은 연방 정부가 유타 준주 주지사를 브리검 영에서 새로운 인물로 바꿀 것이며, 그 새로운 인물은 엄청난 규모의 연방 군대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다. 1857년 7월 24일에 브리검 영 회장이 성도들과 함께 솔트레이크 벨리 도착 10주년을 기념하고 있을 때, 솔트레이크시티로 군대가 진군해 오고 있다는, 기존 소문을 확증해 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에 후기 성도들은 미합중국 정부와 의견 충돌과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었다. 성도들은 그들이 직접 선택한 지도자가 관리하기를 원했고, 연방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거부했었는데, 그런 인사들은 후기 성도들의 가치관을 공유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 일부는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다. 몇몇 연방 정부 관리들은 이런 성도들의 행동과 태도가 미합중국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제임스 뷰캐넌 미합중국 대통령은 약 2,500명의 군대를 솔트레이크시티로 파병하여, 신임 주지사가 유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동행하고, 대통령이 반역이라 판단한 것들을 진압하게 했다. 이것은 유타 현지 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내려진 결정이었다.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 학생 교재, 제2판[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 368~371쪽 참조)*

준주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

브리검 영 회장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하면서 적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그 군대가 전에 오히오, 미주리, 일리노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을 유타에서 내쫓을까 봐 두려웠다. 영 회장은 몇 년 동안 성도들에게 곡식을 비축하라고 요청했었는데, 군대를 피해 도망칠 때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그 지침을 강조했다. 유타 준주의 주지사로서 그는 또한 준주의 민병대에게 준주를 방어할 태세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마차 행렬 이주자와의 갈등

진군해 오는 미합중국 군대에 대항하여 준주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알칸소에서 캘리포니아를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던 마차 행렬 이주자들이 유타로 진입했다. 성도들은 이미 곡식을 비축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기에, 마차 행렬의 일부 대원들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곡식을 성도들에게서 구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불만을 품었다. 또한 그들은 마차 행렬의 대규모 말 떼와 소 떼가 성도들의 가축을 먹일 목초와 물을 소비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성도들과도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런 긴장감은 결국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유타의 마지막 정착지인, 시더 시티에서 폭발해 버렸다. 일부 마차 행렬

이주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마차 행렬 이주자 몇몇은 진군하는 정부 군대에 합류해서 성도들에게 맞서겠다고 협박했다. 마차 행렬의 지도자가 그런 위협을 한 동료들을 꾸짖었음에도, 이로써 일부 시더 시티 지도자와 정착민들은 이주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마차 부대는 도착한 지 겨우 한 시간여 만에 도시를 떠났지만, 정착민 몇몇은 자신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쫓아가서 벌을 주고 싶어 했다.

극단으로 치달은 대립

그 성도들이 이주자들과의 갈등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시더 시티의 시장이자 민병대장이며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아이작 헤이트는 근처 파로원 정착지에 살고 있던 민병대 사령관에게 마차 행렬의 공격자들에 맞설 민병대를 소집할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회 회원이었던 민병대 사령관 윌리엄 데임은 아이작 헤이트에게 이주자들의 위협을 무시해 버리라고 권고했다. 아이작 헤이트와 시더 시티의 다른 지도자들은 이 권고에 따르는 대신, 이주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근의 인디언들을 설득해 마차 행렬을 공격하고 소 떼를 훔치기로 했다. 아이작 헤이트는 교회 회원이면서 그 지역 토박이인 민병대장인 존 디 리에게 이 공격을 이끌게 했으며, 이 둘은 그 행위를 인디언들의 뜻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주자들을 향한 공격

아이작 헤이트는 마차 행렬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교회와 지역 사회, 민병대의 현지 지도자 평의회에서 발표했다. 일부 평의회 회원들은 그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며 헤이트에게 그 사안에 대해 브리검 영 회장의 조언을 구했는지 질의했다. 헤이트는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견을 구하는 편지를 제임스 하슬렘 편에 보내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솔트레이크시티는 시더 시티에서 402킬로미터가량이나 떨어져 있었고, 이는 전령이 솔트레이크시티에 갔다가 브리검 영의 지시를 받아서 시더 시티로 돌아오려면 쉬지 않고 말을 달려도 일주일쯤은 족히 걸릴 거리였다.

아이작 헤이트가 전령에게 편지를 보낸 직후, 존 디 리와 한 무리의 인디언들은 마운틴 메도스라 불리는 곳에 있던 이주자들의 진영을 공격했다. 리는 그 공격을 주도하면서도, 인디언들만 가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일부 이주자 중에 사상자가 나왔고, 남은 사람들은 리와 인디언들을 물리치기 위해 맞서 싸웠다. 이주민들은 신속하게 수레를 끌어당겨 둥글게 방어진을 치고 그 안에서 버텼다. 마차 행렬을 포위한 닷새 동안 두 번의 추가 공격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시더 시티 민병대는 수레 방어진 외부에 있는 두 명의 이주민 남성을 발견하게 된다. 민병대원들은 그들에게 발포했고, 한 명은 사망했다.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간 나머지 한 명은 공격자들 중에 백인 남성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을

마차 진영에 전달했다. 공격을 주동했던 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속임수에 발목이 잡히게 되었다. 이주자들이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도록 둔다면, 마차 행렬을 공격한 책임이 후기 성도들에게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갈 것이었다. 공모자들은 이 소문이 그들과 측근들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두려웠다.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

후기 성도가 마차 행렬 공격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작 헤이트와 존 디 리, 그리고 현지의 교회 및 민병대 지도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이주자 모두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라 존 디 리는 이주자들에게 접근하여, 민병대가 그들을 시더 시티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안내해 주고 또 다른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주자들이 시더 시티 방향으로 걸어나갈 때, 민병대원들은 그들에게로 돌아서서 총을 발사했다. 정착민들이 고용해 둔 인디언들 역시 숨어 있던 곳에서 튀어나와 공격에 가담했다. 그들은 마차 행렬의 140여 명 중 오직 17명의 어린아이들만을 살려두었다.

대학살이 있고 이들이 지난 후, 제임스 하슬렘이 마차 행렬을 그대로 지나가게 허락하도록 현지 지도자들에게 지시하는, 브리검 영의 답변을 들고 시더 시티에 도착했다. “영 회장의 지시를 읽은 헤이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버렸어.’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Richard E. Turley Jr., “The Mountain Meadows Massacre,” *Ensign*, Sept. 2007, 20)

비극적인 결과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은 120여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들과 희생자들의 친척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다. 몇몇 후기 성도들은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이주자의 자녀들을 가정으로 받아들여 돌보아 주기도 했다. 1859년에 연방 관리들은 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갔고, 아이들은 알칸소에 있는 친척들에게로 보내졌다. 파이아웃 인디언 또한 그 죄목에 대해 부당하게 비난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다.

대학살의 진상을 알게 된 교회 지도자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던 브리검 영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학살이 일어나고 곧바로 그 소식을 접하기는 했지만, 정착민들의

관여 정도와 그 범죄의 끔찍한 상세 내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859년에 그들은 학살에서 역할을 수행한, 시더 시티의 스테이크 회장 아이작 헤이트와 다른 고위 교회 지도자들을 부름에서 해임했다. 그리고 1870년에는 아이작 헤이트와 존 디 리를 교회에서 파문했다.

1874년에 준주의 대배심은 학살에서 역할을 담당한 아홉 명을 기소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결국 체포되었지만, 존 디 리만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에 처해졌다. 기소됐던 또 한 사람은 공범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으며[즉, 그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과 증거를 제공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법을 피해 도망 다녔다. 학살에 가담했던 다른 민병대원들은 지독한 죄책감과 자신들이 행하고 본 것들이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했다.”(Richard E. Turley Jr., “The Mountain Meadows Massacre,” *Ensign*, Sept. 2007, 20)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 150 주기에 부처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의 책임은 시 당국과 민병대의 직위에 있었던 마운틴 메도스 근방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현지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시하에 행동했던 교회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 . .

우리가 옹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들을 냉혹하게 죽이는 것을 혐오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평화와 용서를 지지합니다. 오래 전에 이곳[마운틴 메도스]에서 교회 회원들이 저지른 일은 기독교적 가르침과 행위에 어긋나는 끔찍하고도 용납할 수 없는 일탈이었습니다. . . . 하늘의 심판이 그 대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 .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딸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가 보여 준 순수한 사랑과 용서의 영을 서로에게 보여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150th Anniversary of Mountain Meadows Massacre,” Sept. 11, 2007, mormonnewsroom.org/article/150th-anniversary-of-mountain-meadows-massacre)



구원 사업을 서두름

구원 사업의 각 다섯 분야에 관련하여 다음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 하나님의 사업 중 이 분야에 들이는 여러분의 노력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가깝게 데리고 갈 수 있는가?
- 주님의 구원 사업의 이 분야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현재 가진 교회 부름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사업의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까?

회원 선교 사업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어 더 많은 선교사가 봉사하게 됨에 따라 그들은 또한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마음을 열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들을 알거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에도 삽니다.

길에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거나 학교에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거나 온라인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기적 가운데에서 여러분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투에 명찰을 단 전임 선교사가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명찰을 하나 새겨 넣을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린도후서 3:3] . . .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적에 이바지할 것들이 있습니다.”(“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8쪽)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블라드 장로는 이렇게 선언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되어 복음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여러분과 제게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그분과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 위성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선교사와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감독과 모든 감독 보좌와 모든 와드 평의회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1쪽) 모든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회원들이 열쇠입니다”,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14쪽)

저활동 회원들의 활동 촉진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을 위로하며, 친구들에게 침례를 권하고, 이웃에 사는 연로한 분들의 뜰을 청소하는 일을 돕고, 저활동 회원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이웃이 자신의 가족 역사 사업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저활동 회원들과 타종교인들을 초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할 자연스럽고도 즐거운 방법이다. 사람들과 함께 우리 삶에서 즐거운 시간과 성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8:56)”(“구원 사업을 서두르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30쪽)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엘리야의 영을 체험하며, 자신의 조상을 찾고 또 그분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분명한 부름을 발표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사업을 서두르면서 어려운 일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뿌리와 가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6쪽)

복음을 가르침

“복음을 가르치는 책임은 교사로서 정식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여러분은 부모,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교회의 지도자, 공과 교사,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직장 동료, 이웃, 또는 친구로서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된다. 때때로 여러분은 말씀과 간증을 통해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교사, 가장 위대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1999], 3~4쪽)





세미나리 &
종교 교육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